

Angel Club

DAEGU FC ANGEL CLUB MAGAZINE

대구FC 엔젤클럽 매거진 <Angel Club>

계간 / 2017년 8월 9일 등록 / 등록번호_수성, 바00009

2018년 7월 6일 발행 / 인쇄 : ㈜케이프린텍(한금재)

발행기관 : 대구FC 엔젤클럽(회장 이호경)

발행·편집·디자인 : ㈜솔트커뮤니케이션즈(최종태)

대구광역시 수성구 들안로 163(중동) (우. 42151)

대구FC 엔젤클럽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팔현길 212

(만촌동, 호텔 인터볼고 대구) (우. 42064)

전화 : 053, 602, 7307 팩스 : 053, 602, 7306

메일 : dgangel1004@naver.com



Angel Club

대구FC 엔젤클럽 매거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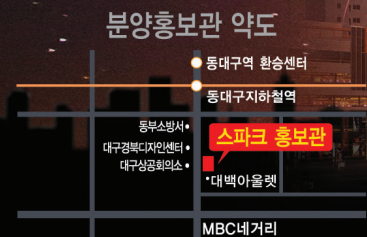


SUMMER,
2018, Vol.4

대구하늘에 대관람차가 온다!

신개념 테마파크 쇼핑몰
동성로 스파크

STREET & PARK MALL



분양문의: 053-766-0707



시행: **DL** | 주·도원투자개발 | 시공: **(주)태양**

※본 저작물의 사진, CG, 그래픽 등은 스파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르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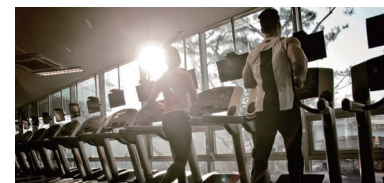
호텔인터불고 대구가

비즈니스 문화를 새롭게 탄생시키다!!

아티스(Artis)클럽은 품격 높은 사교의 장으로
비즈니스, 건강, 휴식, 힐링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문화공간입니다.

내몸을 예술로
FITNESS CLUB

ARTIS 클럽문의: 053) 793-9999



▲ 이탈리아의 테크노집 최상위 아티스라인 구축



▲ 사우나



▲ 실내수영장



▲ 실내골프 연습장

이제 호텔리어에서 놀자!

PREMIUM
PACKAGE

·월~금요일 뷔페, 토~일요일 심비디움 바닷가재 석식제공
·퍼스트 라운지 시그니처 음료 제공
·패키지 금액은 10%의 세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특 / 별 / 우 / 대 / 가 (2인기준)

₩263,000 PACKAGE
패키지 상품은 당일 취소는 불가합니다.

디럭스 더블룸 or 디럭스 트윈룸 + 석식2인(더뷔페 or 심비디움)
+ 퍼스트 라운지 시그니처 음료 2잔 + 사우나2인 + 호텔조식(2인)

객실예약문의 (053)602-7171~3



Hotel Inter-Burgo DAEGU

대구 수성구 팔현길 212 (만촌동 300번지) http://www.hotel-interburgo-daegu.com

CONTENTS



Angel-with-us

08 조현우 스페셜

조현우 선수고맙데이~
엔젤매거진 조현우 브로마이드 사진 인기짱!
'꿈의 무대' 오르기 전 편지로 마음 다잡은 조현우
대구FC, '비타현우' 나눠주며 대학생 응원

14 엔젤종족

16 엔젤소개

다이아몬드 엔젤 : 한국OSG 정태일 회장
하나된 봉사료! 더 나은 내일을! : 반응석 엔젤
(주)동화주택 김민태 대표

21 엔젤포토존

22 기업탐방

(주)대영금속 장민우 대표

24 엔젤과 손잡은 대학 ③대구의한대학교

26 슬기로운 엔젤생활

엔젤 부부젤라!

32 엔젤클럽사무실 엔젤빌리지 오픈!

엔젤을 '엔젤'하다

36 호텔 인터볼고 대구와 함께하는 엔젤클럽!

38 대구FC엔젤클럽, 전용차 엔젤카 탄생!

40 엔젤원정대

정영만 엔젤의 대구,의령 알리기

46 감격의 대구FC 시즌 첫 승!

50 파워엔젤간담회

56 대구FC엔젤클럽 전용앱으로 소통의 장을 열다

대구FC엔젤클럽 전용 모바일 앱 사용설명

60 엔젤클럽 새 후원금 납부 방법 '자동이체'

자동이체 1호 박성수 엔젤
자동이체 후원방법

64 제1회 대구FC엔젤클럽회장배 초청축구대회 성료!

축구대회 리뷰
대구스타디움에 다섯 천사가 뒀다!
축구대회 이모저모

70 영국에서 바라본 대구FC 엔젤클럽

74 엔젤인문학 :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77 대구FC엔젤클럽 동정

82 대구FC엔젤클럽 명단

88 대구FC엔젤클럽 가입안내 및 후원금 자동납부 신청서

Daegu FC Report

92 대구FC 새로운 태양의 전사 영입

'전력보강' 대구FC 새 외국인 공격수 조세 영입
대구FC, 검증된 '골잡이' 에드가 영입
대구FC, 유럽무대에서 활약한 미드필더 츠바사 영입

96 대구FC 정승원·정치인,

성광고 상대로 '스쿨어택당' 첫승 이끌다!

97 대구FC 한희훈, 원정석에서 뒀 89+1번째 경기



<COVER STORY>

대구의 미래!
월드스타 조현우

Half time talk

100 축구의 나라를 가다 ④멕시코

104 현대사진예술의 거장을 만나다 ④제리 율스만

106 남미·유럽 여행하며 보고 느낀 인연을 담다

: 비아헤콘띠

108 향기로 건강해지는 일상의 아로마테라피

112 보험특집 #2.전국민의 건강보험 실손보험 가입?

115 기념엽서 / 엔젤클럽 가입신청서 / 후원금 안내

Angel Club
DAEGU FC ANGEL CLUB MAGAZINE

Angel-with-us



우리는 혼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함께하면 우리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헬렌 켈러(Helen Keller)



조현우가 온다. 엔젤이 여기있다!

조현우 선수고맙데이~



“대구시민에게 감사드립니다!”

월드클래스 조현우 선수의 독일 전 무실점 승리 후 남긴 이 말이 바로 ‘엔젤정신’의 핵심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프로축구 대구FC를 후원하는 것이 무슨 ‘대구사랑’이고, ‘시티즌오블리주’의 실천이냐고 궁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제(6월27일) 경기에서, 분명 ‘엔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지’를 분명히 입증하였습니다. 역대 월드컵에서 인터뷰를 한 선수 중에 특정지역 시민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한 적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월드컵이라는 꿈의 무대에서 조현우 선수처럼 한편의 동화 같이, 영화같이 ‘대구시민에게 감사한다.’라고 한 적이 또 있었겠습니까? 대구시민이면 누구나 어제 조현우 선수의 한 마디에 위로받고 가슴 뭉클했을 것입니다. 대구 FC가 시민구단이기에 가능한 일이었으며, 엔젤처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민구단을 후원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축구하나가 전 세계에 ‘대구’를 알린 것이고, 시민들은 텔레비전을 통해 그 무엇 보다 소중한 감사의 인사, 즉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구의 힘이요, 엔젤의 힘입니다.

조현우 월드컵 인터뷰, 엔젤가치의 핵심 대구정신, 엔젤정신 세계에 알렸다

아시는 대로 최근 대구는 뭐 하나 시민들을 즐겁게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어제 조현우선수의 인터뷰는 이런 대구에게 큰 위로를 주고 “괜찮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실제로 평소에 제가 조현우 선수를 만나면, 기본적으로 대구시민과 엔젤에게 항상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화자찬이 아니라, 엔젤의 힘은 바로 대구시민의 힘이고, 그것을 상징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 본 주장 등 많은 선수들도 평소에 엔젤의 고마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엔젤 여러분! 이번 월드컵을 통하여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곳곳에 ‘대구’의 이름이 알려졌을 것입니다. ‘축구사랑을 통한 대구사랑’이라는 ‘엔젤의 가야할 길’도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월드컵을 마친 조현우선수는 이제 ‘우리들의 축구단’ 대구FC의 한 선수로 돌아옵니다. 머나먼 러시아 땅이 아니라, 지척에 있는 우리동네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경기장을 더 많이 찾는 것입니다. 조현우선수가 세계를 향해 대구시민께 감사의 뜻을 보냈듯이, 우리도 모두 가서 외칩시다, “조현우 선수 고맙데이!”



이 조 경 대구FC엔젤클럽 회장

엔젤매거진 조현우 브로마이드 사진 인기짱!

조현우 녹색 유니폼 착용, 사인도 들어있어 보관용으로 최고

2018년 러시아월드컵에서 대구FC의 조현우선수가 선방을 펼치면서 조 선수의 브로마이드가 들어간 엔젤매거진 봄호도 큰 인기를 끌었다.

엔젤클럽은 당초 시즌 개막특집으로 월드컵 출전이 유력했던 조현우 선수의 전신 사진을 브로마이드로 만들어 매거진에 게재하여, 조선수의 월드컵 첫 출전과 선전을 기원했다. 매거진 뒷 부분에 선수들의 단체 사진과 함께 실린 조현우 선수의 브로마이드 사진은 평소 조선수가 선호했던 녹색 유니폼을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며, 하단에는 조선수의 사인도 함께 실렸다. 평소 엔젤에 대한 사랑에 감사해온 조 선수는 러시아로 떠나기 전 성원해준 엔젤에게 다시한번 고마움을 전했다고 한다. 엔젤의 염원대로 조선수는 월드컵 대표로 최종 선발된 것은 물론, 선발로 기용되어, 자신의 진가를 마음껏 발휘하며 엔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었다.



엔젤, “조현우 선수 활약 기쁘고 자랑스럽다”칭찬 릴레이

특히, 일부 방송에서 대구의 ‘팔공산 데헤아’로 중계되면서 엔젤들은 물론 시민들의 어깨를 들썩이게 만들었다. 이날 조현우 선수를 응원했던 안홍운 엔젤은 “조현우 선수는 이미 K리그에서 증명된 선수만큼 월드컵에서도 출전만 하면 좋은 활약을 확신했다.”며 “평소 엔젤에 대한 사랑도 남다르다고 들은 만큼 엔젤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기쁘고 자랑스럽다.”고 앞으로 활약을 기원했다.

이처럼 조현우 선수의 선방이 화제가 되면서 기존 언론은 물론이고 유튜브 등 인터넷에도 조현우 스토리 찾기가 이어지면서 조현우 선수의 브로마이드 사진이 실린 엔젤매거진을 찾는 사람도 늘어나 현재 사무국에는 비치 분량만 남은 상태다. 덕분에 엔젤매거진에 대한 희소성도 높아지는 등 엔젤매거진도 조현우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꿈의 무대’ 오르기 전 편지로 마음 다잡은 조현우

‘No.3’에서 ‘No.1’으로... 스웨덴전 깜짝 선방쇼 펼친
조현우 비하인드 스토리

‘월드컵 무대’에서 꿈을 펼친 대구FC 수문장 조현우의 스웨덴전 활약
비하인드 스토리가 공개됐다.



지난 6월 18일(월) 열린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2018 러시아 월드컵 첫 번째 경기. 경기를 앞두고 발표된 선발명단에 ‘23번’ 조현우가 이름을 올렸다. 예상 밖의 출전이었다. 조현우의 월드컵 데뷔전이었기 때문이다. A매치에도 6차례(현재 7경기) 나선 것이 다였기 때문에 그의 선발출전을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조현우는 단 1경기 만에 전 세계에 이름을 알렸다. 꿈꿔왔던 월드컵 무대 데뷔전에서 평소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줬기 때문이다. 대구에서도 뛰어난 반사신경과 활동반경으로 ‘대해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조현우는 페널티킥 실점을 제외하고 수차례 스웨덴의 슈팅을 막아내면서 대한민국의 골문을 지켰다.

‘꿈의 무대’에서 맹활약을 펼친 조현우에게는 가족이 있었다. 아내 이희영씨(29)와 딸 조하린양(9개월)이다. 조현우와 아내는 지난 2015년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났다. 당시 조현우는 전지훈련을 위해 키프로스에 머물고 있었고, 한국에 있던 희영씨와 시자로 인해 편지처럼 긴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다. 이후 연애를 할 때도 결혼을 한 뒤에도 무뎠던 축구선수 조현우는 자주 희영씨에게 편지로 마음을 전달했다.

선발출전 소식을 들었을 때도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은 희영씨와 딸 하린양이었다. 스웨덴전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신감을 드러냈던 조현우지만, 선발로 경기에 나서게 되자 떨리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 가족에게 편지를 남긴 것이다.

희영씨가 전해온 편지 내용에 따르면 조현우는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월드컵에 내가 왔고, 경기에 나설 수 있다는 소식을 들어. 모든 상황이 우리가 말하던 대로 이루어지고 있어”라며, 본인의 선발 출전을 전했고, “이제 꿈을 펼칠 시간이야. 나는 지금 솔직히 많이 무섭고



긴장되고, 평생 꿈꿔왔던 순간인 만큼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야. 지금이라도 무섭다고 말하고 싶지만, 이것도 오늘 경기 직전 이 순간까지만 생각할거야.”라며, 긴장된 마음을 아내에게만 전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조현우는 “진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여보 덕분이야. 여보한테 멋진 남편, 하린이한테 멋진 아빠로 살아갈게. 감사한 우리 가족 사랑해”라며, 편지를 마무리 한 뒤 스웨덴전 그라운드에서 나갔다.

조현우의 월드컵 출전은 조현우 본인과 가족의 꿈이었다. 어린 시절 월드컵을 보고 축구를 시작한 조현우는 평소 인터뷰를 통해 “누군가의 꿈이 되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아내 희영씨도 조현우가 ‘월드컵’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실제로 희영씨는 출산 전후 2~3경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구FC 홈경기를 대구스타디움에서 직관했다. 올 시즌은 딸 하린양과 함께 남편 조현우를 응원하고 있다.

스웨덴전 눈부신 활약을 펼쳤지만, 조현우의 앞에는 멕시코와 독일이 남아있었다. 당시, 함께 뛰는 마음으로 한국에서 응원을 보내고 있던 희영씨는 구단을 통해 “여보 그리고 하린 아빠. 여보 인생에서 가장 멋진 순간을 멋지게 해내고 있어서 정말 존경스럽고, 하린이와 나는 여기서 열심히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 몸 건강히 다치지 말고 좋은 모습으로 만나자. 앞으로는 거미손으로 불러줄게. 사랑해”라는 영상편지를 조현우 선수에게 전했다. 있는 희영씨는 구단을 통해 “여보 그리고 하린 아빠. 여보 인생에서 가장 멋진 순간을 멋지게 해내고 있어서 정말 존경스럽고, 하린이와 나는 여기서 열심히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 몸 건강히 다치지 말고 좋은 모습으로 만나자. 앞으로는 거미손으로 불러줄게. 사랑해”라는 영상편지를 조현우 선수에게 전했다.



대구FC, '비타현우'나눠주며 시험에 지친 대학생 응원

조현우 선수 관련 앙케이트 및 인터뷰 실시
시험기간 맞은 대학생 위해 비타민 음료 전달

대구FC '대현우'와 리포터 '효짱'이 지역 대학을 방문했다. '월드컵 무대'에서 꿈을 펼친 대구FC 수문장 조현우를 대신해 대학생들에게 응원을 전하고 오는 7월 8일(일) 오후 7시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리는 홈경기를 홍보하기 위해서다

이날 대구가 방문한 학교는 영남대학교와 계명대학교 두 군데다. 시험기간을 맞은 학생들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대현우'와 '효짱'은 도서관 앞쪽 공터에 자리를 잡고 홍보활동을 시작했다.

마침 점심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밖으로 나온 학생들은 "저거 조현우 아니야?", "와 조현우다 조현우"등의 반응을 보이며 '대현우'의 등장에 큰 관심을 보였다. 높이 4m 30cm에 홈경기 홍보문구가 적힌 망토를 두른 '대현우'로 학생들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한 '효짱'은 학생들에게 다가가 '조현우 선수의 멕시코전 무실점 가능' 여부를 묻는 앙케이트와 함께 인터뷰를 진행했다.

특히 영남대학교 축구부 골키퍼로 활약하고 있는 1학년 강인구 학생은 오는 멕시코전 '조현우 무실점 가능'에 투표를 한 뒤 인터뷰를 통해 "스웨덴전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모습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예상을 내놓았다. 또한 "조현우 선수처럼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 꿈"이라며, 축구선수로서 본인의 꿈을 밝힌 뒤 "첫 경기 때처럼 하면 무실점 경기가 가능할 것 같다. 기죽지 말고 파이터해서

경기 잘 치르셨으면 좋겠다"며, 선배 국가대표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조현우는 외국인 학생들에게도 인기 만점이었다. 계명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은 조현우 골키퍼를 닮은 대현우를 알아보고 인증샷을 촬영하고, 앙케이트에도 참여했다. 그중 다음경기 상대인 멕시코 학생들도 있었다. 조현우의 존재는 멕시코 학생들에게도 부담이었다. 조현우의 '무실점 가능' 여부를 묻는 앙케이트 앞에선 멕시코 학생들은 오랜 시간 고민한 끝에 불가능을 선택했다.

그 외에 많은 학생들이 '시험 잘치기', 'NGO 단체 취업', '여행'등 본인의 꿈을 밝혔고, 김효진 리포터는 월드컵 무대에서 꿈을 펼친 조현우 선수처럼 꼭 꿈을 보낼 수 있도록 조현우 선수의 사진이 있는 '비타민 음료'를 전달했다. '대현우'와 '효짱'의 거리홍보는 6월 22일(금)과 23일(토) 계속되었으며, SNS를 통해 대현우의 사진을 인증할 경우 '조현우 100경기 기념 유니폼'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엔젤서사시대 개막!

엔젤종족(宗族)

ANGELIAN

“당신이 엔젤이라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엔젤의 언어를 던져보세요. 혹은, 엔젤의 상징물을 보여주세요. 혹시 그때 얼굴에 미소가 번져가는지, 서로의 눈빛이 통하는지 바라보세요.

스쳐가는 수많은 사람 중에 엔젤족(族)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혹시 ‘엔젤족(族)’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엔젤이 만났습니다. 평소 입던 양복이나 정장이 아니라, 엔젤 유니폼을 입고, 엔젤이 되어 그라운드 위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엔젤만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했습니다. ‘족구’라는 스킨십을 통해 그렇게 하나의 ‘종족(宗族)’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평소 알고 있던 사람도 있고, 얼마 동안 못 뵈던 사람, 그리고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사업과 직장에 열정적인 사람, 소속 된 단체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 등등 각 분야에서 모두 하루하루 빛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승’과 같은 빛나는 역사를 가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스타들이 즐비한 것도 아니고, 내로라하는 대기업의 후원도 받지 못하는 ‘시민구단’이라는 이름을 가진 프로축구단에 매년 일정 후원금을 스스로 내면서도 생색 한 번 내지 않은 사람들. 본인 일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심판 판정이 잘못됐다면 독립운동 하듯 동전까지 모아가며 목소리를 높여대는 못 말리는 사람들. 바쁜 주말 일정을 바꾸고 전라도까지 가서 깃발 흔들고, ‘부부젤라’라는 응원도구를 아이처럼 붙여대는, 우리 시대의 로맨티스트들.

그들이 바로 엔젤입니다. 문화인류단위(?)로 분류 하자면 ‘엔젤종족(宗族)’에 해당합니다. 줄여서 엔젤족이라고 합니다.

엔젤족의 거주지는 대구시를 중심으로 경북지역으로 퍼져 있으며, 최근에는 서울로 뻗었습니다. 심지어 해외에서도 ‘엔젤영토’를 외치며 엔젤족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이들은 릴레이라는 방식으로 종족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 종족이 무서운 것은 ‘사심(私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과학적이 아니라,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빠를 것입니다.

이들의 복식(服飾)은 몇 가지가 됩니다. 먼저 천사의 날개를 달면 봄-가을 용 푸른 재킷, 여기에 엔젤머플러가 더해집니다. 일상복에는 엔젤배지가 엔젤을 알립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여름용 엔젤 T셔츠도 나왔습니다. 곳곳에 엔젤의 문양이 새겨져 있어 이제는 엔젤족을 쉽게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천 계보별로 分家, 소모임 개최 등 엔젤문화 확산

최근에는 엔젤족이 소모임 형태로 분가(分家) 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엔젤 출범과 활성화를 위하여 ‘도원결의’했던 파워엔젤들이 곳곳에서 일어나 소모임(파워엔젤간담회)을 갖는 등 자신만의 계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엔시오(엔젤소시오: 소액후원엔젤)확대를 통해 모임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춘추전국시대의 영웅들처럼 파워엔젤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엔젤의 이야기는 경기장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지역 곳곳에서 쓰여 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엔젤 서사(敘事)의 시대입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도 파워엔젤에게 그룹깃발을 만들어주며 계보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K리그1 후반부가 시작되는 7월이면 경기 당일 각 파워엔젤의 깃발이 부족연맹처럼 경기장에 나부낄 예정입니다.

“대구에 새로운 종족이 생겼습니다. 이름 하여 엔젤종족입니다.”





운동장에 못가도 나는 엔젤이다! 한국OSG 정태일 회장

“이웃을 섬기며 나누는 것은 당연한 도리이다”

대구FC엔젤클럽 제7호 다이아몬드엔젤인 한국OSG 정태일회장을 만나기 위해 접견실에 들어서는 순간, 정면에 액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그곳에는 정태일 회장 사진과 함께 ‘이웃사랑은 모든 이에게 기쁨과 삶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다’라고 적힌 사랑의 열매 액자가 걸려있었다.

한국OSG는 2002년 대구FC가 창단할 때 참여했던 주주회사이며, 2002년부터 대구시 축구협회에 꾸준히 후원해온 대구FC의 오랜 지원자다. 정태일 회장은 2002년 월드컵 때 외국인 손님을 모시고 경기장에 가본 이후에는 축구경기를 보러간 기억이 없지만, 축구에 대한 관심과 지지는 항상 마음속에 있다고 했다.

그리고 보니, 접견실 밖으로 한국OSG 공장 마당에 잔디구장이 보였다. “공장 내에 축구장이 있네요?” 기자의 물음에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예전에는 회사 내에 축구동아리도 있고 협력업체와 축구시합도 하곤 했는데, 요즘은 거의 그런 풍경을 보지 못한다”며, “스포츠를 통해서 육체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법인데 요즘은 휴대폰만 보고 스포츠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걱정했다.

엔젤클럽 가입은 이호경 회장의 권유로 하게 됐다. 이 회장으로부터 엔젤클럽에 대한 취지를 듣고 망설임 없이 바로 가입했다. 누군가 꼭 해야 할 일을 이호경 회장이 너무 잘 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무엇보다, 단순한 스포츠 후원단체를 넘어 시민정신을 되살리는 대구사랑단체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 크게 환영하며, 꼭 더 크게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 회장은 “대구가 많이 침체됐다. 경제도, 정치도, 스포츠도, 무언가 대구를 일으킬 에너지가 필요하다. 엔젤클럽이 더욱 활성화되어서 대구 활성화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면서, 최근 대구FC의 성적부진을 걱정했다.

하지만 “성적이란 늘 변하는 거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욱 열띤 응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잘 한다고 너무 교만하지도 말고, 못한다고 너무 기죽을 것도 없다”며, “작년처럼 하반기에 다시 일어서서 대구의 에너지, 엔젤의 힘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역 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인만큼 기부나 후원에 대한 요청도 많을텐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물었다.

대구 아너소사이어티클럽에 가입하였으며 행복한 부자상을 수상한 정 회장은 “기업은 이윤창출만큼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다”고 했다.



정 회장은 “최선을 다해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을 위해 노력하지만 그것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 “기부나 후원은 기업이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이지 자랑할 일이 아니다”며, “알려지면 효과도 보람도 없어지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회장은 앞서 계명대에 1억원, DGIST에도 1억원의 발전기금을 기탁한 바 있다.

정 회장은 국가품질혁신상 대통령상 표창, IBK기업은행 기업인 명예의 전당 선정 등 나름대로 보람 있는 수상과 선정을 늘 분에 넘치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 그때마다 기쁘기도 하지만 그에 따른 책임과 품격을 지켜야 하기에 어깨가 무거워지기도 한다.

13살 때부터 가족의 생계를 위해 소년기능공으로 일하면서 중·고등학교를 주경야독으로 살아온 그는, 젊은 시절 일하며 공부하느라 스포츠니 문화니 하는 것들은 모두 사치였다고 했다. 창업 후 해외출장을 다니면서 그는 외국기업들을 통해 기업이 스포츠와 문화와 더불어 발전해야함을 알게 되었고 한국 OSG에 실천하기 시작했다.

한국OSG는 지난 4월 30일 ‘한국 OSG주식회사 장애인 스포츠팀’ 창단식을 가졌다. 수영(김광희), 휠체어테니스(김명제), 휠체어농구(김민성) 등 장애인 선수 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한국OSG는 이들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더 좋은 여건에서 훈련과 선수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음악을 전공한 아내 덕분에 문화공연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2017년 9월부터는 월드오케스트라 조직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으며, 지난해 10월부터 대구오페라하우스 이사로 등재해 문화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정 회장은 “이제 나이가 들어 운동장에서 직접 합성을 지르지는 못하지만 ‘나는 엔젤이다’는 마음을 늘 마음속에 품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전 직원들과 함께 ‘브랜드데이’를 하지 않으시겠냐는 권유에 바로 실무 이사를 불러 협의하라고도 했다.

수입공구의 국산화로 대한민국이 산업경쟁력을 갖추는 데 일익을 담당한 한국OSG, 뼈가 닳도록 일하면서 일으켜온 기업을 이어갈 자식에게 성공노하우보다 겸손을 가르치고자 하는 따뜻한 CEO. 그가 엔젤임이 자랑스럽고 감사하다.

정회장은 5월 30일 영남대 총동창회 장학회에 재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써달라며 후배들을 위한 장학기금 10억원을 기탁했다. 이번 장학기금은 정 회장이 사재를 출연한 것으로 총동창회 장학회 역대 최대 기금 기탁이다.





하나 된 봉사로! 더 나은 내일을!

반용석 엔젤자문위원, 국제로타리 3700지구 총재 취임 대구FC 홈경기 '로타리안 데이' 개최 예정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참봉사’는 받는 사람은 물론 주는 사람도 행복하게 합니다. 이런 참봉사의 정신으로 오늘 보다 내일, 그리고 취임할 때보다 이임할 때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국제로타리 3700지구 총재로 취임한 반용석 엔젤자문위원(반치과 원장·사진)은 ‘하나 된 봉사로! 더 나은 내일을!’을 2018-2019년 지구 슬로건으로 내걸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참봉사’를 통해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취임일성을 밝혔다. 아울러, 같은 봉사의 개념으로 출범한 엔젤클럽의 일원으로서 축구사랑을 통해 더 나은 대구를 만드는데도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구FC엔젤클럽과 국제로타리3700지구는 5월 28일 협약식을 맺고 함께 봉사의 길을 걷기로 의기투합한 바 있어 반총재의 취임은 엔젤로서도 경사스러운 일이다. 반총재는 “로타리가 인류최초의 민간봉사단체로 114년을 이어오고 있는 세계 최고, 최대의 민간봉사단체이지만 일반시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사회의 대표적인 시티즌오블리주, 시민 정신을 대표하는 엔젤과 함께 로타리와 엔젤의 봉사정신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로타리안 역시 엔젤 릴레이에 동참하는 등 지역사회 운동에 적극 나설 계획이어서 상호 윈-윈하게 될 것이라고 협약의 의미를 밝혔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서 이종만, 배상원 총재 지역대표와 백경애 로타리 기획자장이 엔젤가입식을 갖고, 새롭게 천사의 날개를 달면서 두 단체의 협약 의미를 더 하기도 했다.

반 총재는 “후반기가 시작하면 대구FC 홈경기 하루를 정해 ‘로타리안 데이’를 개최하여 로타리안은 물론 축구경기를 관람하기 어려운 여건의 어린이와 이웃들을 초청하여 하나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대구FC경기를 관람하면서 활기를 얻고, 또한 로타리와 엔젤의 정신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슴에서 우러나는 참봉사, ‘우리사회 발전시킬 것’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참봉사’를 거듭 강조하는 반총재가 로타리안이 된 것은 지금부터 24년전, 치과를 개원 하면서 부터다. 당시 현재 위치의 치과를 인수하게 되었는데, 전임 원장이 로타리안이었던 것. 반총재는 치과인수와 함께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삶을 인수 받는 행운을 만났다.

이후 마음을 열고 봉사 할수록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생기면서, 받는 사람보다 베푸는 사람이 더 행복하고 보람을 느낀다는 ‘로타리안’의 정신을 깨달으면서 더 열심히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한다.

이처럼 로타리안으로서 봉사활동을 펼치던 반총재는 새롭게 ‘축구’를 통한 또다른 ‘지역 봉사’에 눈을 뜨게 됐다. 같은 경산중앙로타리 이호경 회장, 최창배, 김병렬 엔젤을 비롯 많은 엔젤들을 만나서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자발적인 엔젤인이 된 것이다. 실제로 반총재는 축구 등 스포츠에 대한 관심도 많다. 어려서부터 반 대항 선수로 축구를 했고, 사회에 나와서도 축구와 함께 했다. 지금까지 넣은 골만 100골이 넘는 다는 것. 최근에는 바쁜 일정으로 축구장에 나오지 못하지만, 언제나 마음은 푸른 그라운드 위에 있다고 한다. 반 총재에게는 엔젤활동도 로타리와 마찬가지로였다. 엔젤로서 가슴에서 우러나는 ‘참마음’으로 대구FC를 후원하면 더 큰 보람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엔젤인으로서 늘 자부심을 느낀다는 반총재는 “엔젤이 출범 1,2년 만에 1004명을 돌파하고 릴레이가 계속되는 것은 엔젤의 숭고한 뜻이 회원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다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이런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면 대구시민의 의식도 한층 성숙될 것”이라고 엔젤활동을 기대했다. 아울러 반총재는 “엔젤의 정신은 단순히 소속 회원들만의 것이 아닌 것 같다”며 “구단에서도 엔젤의 열정이 우리 지역에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선수는 물론 구단 관계자들도 더욱더 많은 힘을 실어주어서 엔젤클럽이 대구의 대표적인 봉사단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동화주택 김민태 대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 기업에 대한 무한 애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난달 초 취임한 동화주택 김민태 대표는 지역 기업에 대해 대구시나 관할 구청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사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동화주택을 지금의 반석에 올려놓은 김길생 전 대표의 뒤를 잇는 2세 경영인으로 30년 된 동화주택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시점에 대표가 돼 어깨가 무겁다고 밝혔다.

그동안 동화주택이 열심히 해온 것도 있었지만 수성알파시티 분양처럼 운도 많이 따랐으며 모든 게 지역민의 애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사실 김 대표는 다른 2세 경영인처럼 바로 회사에 들어와 경영수업을 받지는 않았다.



건영, 화성산업 등을 거쳐 동화주택에 들어와 현장생활부터 했다. 칠곡 3지구 운암중 현장소장을 할 때는 한참 땀흘려 일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쳐다봐서 올려보니 장인이 안쓰럽다는 듯이 쳐다본 적도 있었다고 웃었다.

평소 건강관리나 좋아하는 운동이 뭐냐는 질문에 바빠서 따로 운동할 시간을 내기가 힘들다며 그나마 밤에 좀 걷거나 새벽 4시반 정도에 일어나 반신욕을 30분 정도하는 게 건강관리의 전부라고 했다.

좋아하는 운동은 단연 축구라고 했다. 대륜고 시절 축구부와 겨워서 이길 때 일등공신이라며 자랑하면서 축구로 단련된 종아리 근육을 보여주기도 했다. 여기저기 차인 부상자들이 영광의 상처인 것 같았다.

엔젤로서 올해 경기를 보러 갈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맘속으로는 열두번도 더 가고 싶지만 그렇게는 못하는 게 아쉽다며 그래도 만약 경기장에 나간다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응원할 것이라고 했다. 나이가 시축을 시켜준다면 공을 가장 멀리 차는 사람이 될 것이라며 또다시 환하게 웃었다. 엔젤매거진이어서 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렇지만 다시 본업 이야기로 돌아오니 표정이 달라졌다.

김 대표는 다른 건 모르지만 나중에 대구주택건설협회는 꼭 한번 하고 싶다고 했다. 이유를 묻자 뒷집지고 있는 회장이 아니라 축구를 할 때의 열정으로 앞장서서 누구보다 지역 건설경기활성화를 위해 뭘 자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뭘 해도 잘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동화주택의 새 얼굴 김민태 대표다웠다. 

엔젤포토존에서 엔젤의 날개를 달다.

엔젤 날개를 달다. 엔젤빌리지 앞에 조성된 엔젤포토존에서 엔젤의 날개를 다신 분들을 기념합니다. 앞으로 포토존에서 촬영해서 사무국으로 보내주시면 매거진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주)대영금속 장민우대표

대영금속은 1980년 설립 이후 30년 이상 알루미늄 제품의 연구개발에 전념해, 현재는 고도의 기술을 갖춘 알루미늄 압출 전문기업이다. 대영금속의 장민우 대표는 1996년 1월 대영금속에 처음 입사하여 2001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대영금속이 Aluminum Trend Leader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엔젤클럽이 우리나라 최초 시민구단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타 지역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면서 지역주민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민우 대표는 평소 축구라는 스포츠를 좋아해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구단인 대구FC에 관심이 많았다. 3명으로 시작된 엔젤클럽이 1300명으로 규모가 커진 것을 보면서 대구시민의 한사람으로써 대구FC에 도움이 되고 싶어 엔젤클럽에 가입하게 되었다고 한다.

축구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만큼 장민우 대표는 일에 대한 열정도 넘쳤다. 금속·알루미늄 소재 분야의 기술개발과 산업발전에 대단한 열정과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었다.



▲ 대영금속 회사 전경

현재 대영금속은 품질제일주의 목표아래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국내 공압실린더 시장에서 9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프로파일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대영금속의 주요 사업영역은 공압실린더 부문과 프로파일부분, 태양광, 자동차 분야가 있다.

공압실린더 부문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피막 기술로 국내외 경쟁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내마모성과 내구성을 가진 제품 특성을 만들어내, 글로벌 30%이상의 점유율을 달성하고 있다.

프로파일 사업 역시 알루미늄 제품과 각종 부품의 보급으로 현재 알루미늄 프로파일의 표준이자 최고의 브랜드로 성장했으며, 최근 각광 받고 있는 알루미늄 소재 태양광 구조물 사업 역시 LG전자에 독점공급하고 있고, 일본시장에는 200MW 규모의 물량을 수출하는 등 다양한 실적을 쌓고 있다.

특히 내수 시장의 한계를 일찍이 간파하고, 해외 시장을 노크한지 20여년이 지난 현재 전체 매출의 50%이상을 수출이 차지하고 있고, 수출시장 역시 고품질과 확고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진입이 가능한 일본과 유럽이라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대영금속은 세계 최초로 알루미늄

융복합 신소재를 개발해서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 서로 다른 금속소재를 압출하여 이중 복합형재를 생산하는 기술인 ‘알루미늄 복합 이중소재 압출공법’을 개발하여 신규설비투자를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양산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러한 결과가 있기까지는 장민우 대표와 대영금속 모두의 부단한 노력이 숨어있다.

장민우 대표는 “뿌리 산업, 소재 산업 등 다양한 이름으로 대접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금속 소재분야는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는 등 현실이 어렵다. 신소재의 개발과 제품화만이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 생각하고, 향후에도 소재 개발과 이를 통한 산업발전에 적극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연구에 대한 집념과 고도화 된 기술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신소재 개발을 통한 새로운 사업으로의 순항 또한 이루어질 수 없었다. 장민우 대표의 끈기와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

끝으로 장민우 대표는 대구FC에 대해 애정어린 한마디도 잊지 않았다.

“앞으로도 대구FC가 많은 이들의 응원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선수들이 마음놓고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시민구단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 태양광 구조물

지속가능한 국내 최고 한방웰니스산업 산학협력 거점 대학

3.대구한의대학교

대학·지자체·기업 동반성장 모델 산학협력 맞춤형 SMART CO-UP 시스템 구축

-코어·프라임·CK사업 운영으로 대학 경쟁력 ‘UP!’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화 시대를 선도할 글로벌 인재 양성소

‘지역사회와 함께 세계화를 선도하는 대학’이라는 비전 아래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는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맞춰 국내 최고 한방웰니스산업 산학협력 거점대학으로 재탄생하고 있다.

4개 단과대학(한의과대학·바이오산업대학·의과학대학·웰니스융합대학)으로 개편하는 동시에 한방·바이오산업·의과학 분야 특성화에 주력하는 등 발 빠른 대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성과를 통해 대구한의대는 최근 3년간 정부 재정지원사업과 연구사업을 잇따라 수주하는 쾌거를 거둬 대학 경쟁력을 강화했다. 대구한의대는 대학인문역량강화(CORE·코어)사업과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PRIME·프라임)사업, 대학특성화(CK)사업에 4개 사업단이 각각 선정됐다. 또 △산업단지캠퍼스 조성사업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 △IPP형 일학습병행제 사업 △학교기업 지원 사업 △이노캠퍼스 엑셀러레이팅 사업 등에 선정돼 대외 경쟁력을 인정받았으며 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질 향상과 취업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대구한의대는 ‘코어사업’과 ‘프라임사업’에 모두 선정돼, 이 두 사업을 기반으로 인문학과 이공학을 중심으로 균형 있는 대학발전 방향을 설계할 수 있게 됐으며 사회수요에 부합하는 창의적인 융·복합 인재와 현장중심의 실무능력을 갖춘 맞춤형 인재 양성에 매진할 계획이다.

♣코어사업 선정 … 인문학적 소양이 스며든 차별화된 교육과정 운영

대구한의대는 인문교양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특화된 인프라제도를 구축하고 대학의 특성을 살린 교육과정의 차별화를 통해 전국 최고 수준의 기초교양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문학진흥원과 비교과통합교육센터를 신설하고 학생 중심의 교양교과를 운영해 재학생의 인문소양 교육을 극대화하고 있다. 동시에 평생 멘토교수제와 다채널상담시스템 연계를 통해 재학생 개개인의 대학생활을 진단하고 학업 진로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또 인문교양 교육실현과 인문인재 양성을 위한 ‘仁知力 인재양성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仁知力 인재양성 Program은 △일정 수준의 인문학 교과 수행 학생에게 총장명의 인증서를 수여하는 기린인문학 인증제 △포트폴리오 및 성과 경진대회를 통한 우수학생을 선정하는 인문학슈퍼스타 △인문학수학계획·독서활동·토론활동·나만의 에세이 제출 등 인문학포트폴리오 △자가진단을 통한 강·약점 발견과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인문역량진단 △입학 후 첫 주 인문학교육을 통한 학습동기를 부여하는 동기유발학기 등으로 구성해 대구한의대는 재학생에게 체계적인 교과·비교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대구한의대학교 전경

♣프라임사업 선정 … 아시아 최고의 K뷰티 선도대학으로 우뚝

대구한의대는 ‘아시아 최고 코스메디컬바이오산업 거점대학’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바이오산업대학을 포함한 4개 단과대학 체제로 개편했다. 그중 K뷰티 선도를 직접적으로 이끌 바이오산업대학은 △제약공학과 △화장품제약자율전공 △바이오산업융합학부(화장품약리학전공·화장품소재공학전공·식품생명공학전공) △화장품공학부(화장품공학전공·산업품질공학전공·산업디자인공학전공)로 구성돼 있다. 또 프라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선도연구센터(CRC, MRC), 한방생명자원연구센터(RIC) 등 그동안 정부의 굵직한 대형 국책사업 수행을 통해 축적된 소재개발 역량과 한방임상시험센터(CTC), 한약재품질검사기관 등의 효능검증 및 임상평가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업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산업단지캠퍼스 조성 사업 △IPP형 일학습병행제사업단 △대학 특성화사업단 △화장품생산 CGMP 시설 구축 △OLE교육시스템 △학생진로역량지원시스템(SIMS) 등 대학의 인적·물적 인프라와 운영 노하우 및 지원 역량을 적극 활용해 학생들의 산학연계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노력 결과 1차년도 연차평가에서 ‘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특히 대학 최초로 화장품약리학과 개설 및 학교기업(화장품공장)을 설립해 중국과 태국 등지에 화장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대학 인근에 글로벌코스메틱밸리(대구 R&D 특구 내)가 2019년까지 조성돼 30여개의 화장품 관련 수출기업이 입주 예정에 있어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정부는 입주 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200억 원)를 2018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대학 특성화(CK)사업 선정 … 한방웰니스산업 융복합 맞춤형 특화인재 양성

대구한의대는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과 트렌드가 반영된 OLE 교육시스템(On-site Learning for Employment)과 한방웰니스(Wellness)산업 융복합 특성화를 통한 맞춤형 특화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의 2016년 대학특성화(CK)사업에 3개 사업단(△지역사회 웰니스 HSE 전문인력 양성사업단 △청소년 중독 ACE전문가 양성사업단 △食藥同One 창의인재 양성사업단)이 신규로 선정돼 기존 2014년 이 사업에 선정된 ‘한·양방 융합 스포츠의학 전문트레이너 양성사업단’과 함께 2018년까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예체능분야에서 특성화 우수사례로 선정된 한·양방 융합 스포츠의학 전문트레이너 양성사업단은 한방스포츠의학과를 중심으로 스포츠의학에 한의학적 지식과 기술을 접목해 동서의학의 장점을 최대화한 퍼블릭 트레이너, 선수트레이너, 재활 트레이너를 양성하고 있다.

지역사회 웰니스 HSE전문인력 양성사업단은 보건학부와 실내디자인전공을 중심으로 창의융합형 교육과정, 진로개발 및 취업역량강화, 전공과 연계한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해외실무교육 과정 등을 통해 HSE전문인력(건강·건축 융합전문가, 안전·건축 융합전문가)을 양성하고 이러한 융합인재를 통해 지역 맞춤형 웰니스 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

청소년 중독 ACE전문가 양성사업단은 청소년교육상담학과와 아동복지학과, 중등특수교육과를 중심으로 청소년 중독의 진단, 액션 링그 수업, 큐어(CURE)과정 및 케어(CARE)과정과 연계한 청소년 중독교육 프로그램 등의 특성과 교육을 통해 ACE역량(진단역량, 상담역량, 교육역량)과 융·복합적 실천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

食藥同One 창의인재 양성사업단은 한약개발학전공과 한방식품조리영양학부를 중심으로 한방웰빙식단개발, 한방식품소재연구개발, 약선조리연구, 한방식품산업건설링 분야의 통합교과과정을 운영해, 지역산업 특화에 기여할 융복합 창의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 학생들과 함께 달리는 변창훈 총장



▲ 학생들에게 아식을 배식하고 있는 변창훈 총장



▲ 원스톱 화장품생산 라인에서 제조 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들



▲ 변창훈 총장 취업지원센터의 날

♣일자리 미스매치, 청년실업 돌파구를 여는 취업 명문 2년 연속 대구·경북 사립대학 취업률 1위

대구한의대는 2년 연속 국가근로장학 취업연계 중점대학 선정으로 현장실습 강화와 취업 연계를 위해 국가근로(2개월)와 IPP 일학습병행제(4개월) 통합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해 산업현장에서 실무경험을 쌓으며 대학과 기업간 고용 미스매치에 따른 청년 실업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이노캠퍼스-엑셀러레이팅 사업 ▲사업화 유망기술 발굴·연계 사업에 주관기관 ▲아이디어 업그레이드지원 사업 참여기관 ▲경산시 청년창업지원 사업에 각각 선정되어 학생들의 창업 지원과 지역의 창조경제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대구한의대는 취업전담교수 운영, 찾아가는 취업아카데미, 방과 후 취업학교, 개개인 맞춤 취업컨설팅, 취업 멘토링, 취업캠프 등 특성화된 취업프로그램과 고용노동부의 재학생 직무체험, 강소기업탐방프로그램, 취업성공 패키지 등을 통한 현장실무 중심의 다양한 취업프로그램 운영으로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정보공시에서 2년 연속으로 대구·경북지역 4년제 사립대학 취업률 1위(2015.12.31.기준 졸업생 1,000명 이상 사립대학)를 차지했다.



즐거로운 엔젤 생활

엔젤과 함께 하는 '행복한 엔젤설명서'

엔젤은 과연 100만원만 후원하면 그뿐인가? 엔젤에서 보다 즐겁고 보람된 삶을 누릴 수는 없을까? 이 질문에 실속 있게 답하는 엔젤들이 있다. 바로 즐거로운 엔젤생활을 실천하는 엔젤이다. 우선 올 해 들어 경기장을 자주 찾은 엔젤들의 뒤를 따라가 봤다.



▶ 최경목 엔젤

엔젤룸 적극 활용, 엔젤 티켓은 홍보용으로

수정정비센터를 운영하는 최경목 엔젤은 요즘 즐거로운 엔젤생활을 철저히 실천하고 있다. 그는 홈경기가 열리는 날, 가급적이면 경기장을 찾는다. 솔직히 처음에는 오라고 해서 억지로 온 적도 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은근히 홈경기를 기다린다. 막상, 보고 나니 빠져들더라는 이야기다. 내 팀이 생기니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재미'가 있었다. 물론, 자주 패하니 언짢기는 했지만, 자신의 삶에 축구, 즉 대구FC가 그만큼 들어와 있었다. 후원금만 낸 것으로 다가 아니었다. 내 팀이 되니, 또다른 삶이 생겼다. 그렇다 보니, 토요일도 오전에 출근해서 서둘러 오후 1시까지 업무를 마치고, 헬레벌릭 경기장을 찾는다.

엔젤룸은 그야말로 엔젤천국이다. 솔직히 말해 건너편 본부석의 스카이 박스 못지않다. 스카이 박스는 내부가 낮아 안에서는 경기 보기가 쉽지 않지만, 엔젤룸은 테라스와 높이가 같아, 안에서도 시야가 확보된다.

비가와도 걱정 없고, 온냉방 시설이 다 되어 있어, 추위 더위 걱정이 없다. 냉장고 까지 갖춰져 있다. 경기장 밖의 기후가 좋지 않으면 언제든 엔젤룸으로 자리를 옮기면 된다. 이런 아지트가 어딘가! 여기에 먹거리 천지다. 김미숙 엔젤표(주원 대표) 매운 김밥에 경기마다 서브 메뉴는 달라진다. 지난 4월25일 홈경기에는 떡볶이가 특식으로 나왔다. 큰 술에 떡볶이가 가득이다. 어묵, 떡은 기본이고, 닭고기 까지 들어있다. 엔젤은 물론 가변석 서포터스도 입호강을 했다. 달걀도 반숙으로 고소하기가 말 할 것이 없다. 매운 김밥에 반숙 달걀은 환상의 궁합이다. 지난 4월28 일에는 장떡이 나왔다. 푸짐한 장떡 인심에 엔젤룸이 훈훈했다. 앞으로 여름이면 권일경 엔젤(위드 대표)이 공연한 '화채'가 기다리고 있다. 맥주는 문준기 엔젤(대경맥주 대표)이 이벤트로 지원했다. 대구를 대표하는 수제 맥주의 맛은 깊고도 부드럽다. 거기에서 시원한 아메리카노 한 잔이면 이보다 더한 즐거움이 있을까?

엔젤만의 공간으로 만들어진 엔젤룸은 김완준 엔젤(제아이디 대표)의 후원으로 새단장을 했다. 컨셉은 엔젤들의 친교와 휴식이다.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내는 것. 주어진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했다. 그리고 내년부터 사용될 축구전용구장으로 옮겨가는 것도 감안해야 했다. 당초 열려있는 넓은 공간으로 분위기가 분산됐지만, 이번에 카페식으로 분위기를 바꿨다. 식고보드로 칸막이를 하되 답답하지 않게 한쪽을 열어 두었다. 아담하게 내부를 안고 있으면서도 전체로 열려있고, 열려있으면서도 다가가기 쉬운 공간이 되었다. 덕분에 엔젤들이 좀 더 가까이 만나고 얘기할 수 있는 아늑한 분위기가 조성됐다. 백드롭이나, 내부 디자인은 이태훈 엔젤(애드스미스대표)이 맡았다. 여기에 카페를 연상케 하는 탁자와 의자는 서형석 엔젤(투썸플레이스 대구스타디움점 대표)이 기증했다. TV 는 정영준 엔젤(다원아이디 대표), 엔젤 영상을 소개하는 49인치 키오스크는 조용호 엔젤(어팩시스템 대표)이 들여놨다. 엔젤룸의 기본 공간은 대구FC에서 제공했다. 대구스타디움 내에 엔젤아지트(?)가 생겼고, 구단에서는 여기에 냉장고까지 보탤다. 구단의 배려는 늘 고맙다.

최경목 엔젤은 입장권도 슬기롭게 활용한다. 사무국에 부탁해 '수정정비센터'라는 회사명을 찍고, 차를 맡 끼고 기다리는 손님에게 나눠 준다. 후원도 하고, 정비센터 홍보도 하고, 고객서비스도 하고 일석삼조다. 그제 바로 '대의마케팅'이다. 즐기면서 하는 후원이다. 거기에 더해 사무실에 엔젤사인볼이 '떡'하니 비치되어 있으니 오가는 사람마다 '자랑'이다. 엔젤매거진도 곁들인다. 그림이 나쁘지 않다. 엔젤티켓은 후원하는 금액만큼 나온다. 사무국으로 연락하면 소속단체 이름까지 친절하게 찍어준다. 좀 더 뜻있는 엔젤이 되려면 일부는 사무국에 맡겨 둔다. 사무국에서 좋은 일에 쓸 것이다. 물론, 이름은 엔젤이름으로...



엔젤은 내 삶의 또 다른 버킷리스트

박혜영 엔젤은 주부다.

교사를 하다 그만두고 자신의 행복을 찾아 나섰다고한다. 엔젤활동이 그중 한부분이다. 그녀는 엔젤활동 전에는 엔젤의 존재를 전혀 몰랐다고 한다. 이화선(화선 대표) 엔젤의 추천으로 엔젤이 된 후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푸른 경기장에 와서 좋은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한 곳을 바라보며 응원하는 것이 또 하나의 즐거움이라는 걸 알았다. 이번에 운영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저는 세단계로 제 삶을 살고 싶어요."

첫 번째는 교육자로서 학생들에게 최선의 모습으로 지냈다면 두 번째는 '스스로에게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나?'를 묻는 것이었다. 현재 그녀는 남편의 잔잔한 배려 속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하나씩 찾아가는 중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태어난 이 땅의 소외된 사회에

봉사하면서 아름다운 노년을 맞이하고픈 것이 바람이라했다.

그 여정 속에 대구FC를 만났다. 그녀는 홈경기가 열리는 날이면 열일 제쳐두고 대구스타디움을 찾는다. 후원도 후원이지만, 축구가 주는 행복은 그이상의 가치로 다가왔으며 스스로 삶을 즐기는 '올로(Yolo)'의 선택지가 대구 FC가 됐다.

"다른 분들은 더 많은 후원을 하는데 저는 할 수 있는 게 엔젤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 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요즘 세상에 이해관계 하나 없이 이렇게 경기장에 나와서 선수들을 응원하는 엔젤 분들이 너무 순수했어요. 이분들과 함께 하면서 정말 좋은 인연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에게 엔젤은 또 다른 버킷리스트가 된 것이다. 이 또한 '즐거로운 엔젤생활'이라 할 수 있다. 엔젤활동 덕분에 박혜영 엔젤은 요즘 두 아들과도 대화가 된다고

한다. 스물을 갓 넘긴 둘째 아들은 세계 명문구단 유니폼수집이 취미다. 그것도 '직구족(직접구매족)'이다. 요즘엔 아들도 대구스타디움을 자주 찾는다고 한다. 특히 가변석에서 아들과 함께 응원하면서 축구에 대한 재미를 더 느꼈다고 한다. 가변석은 대구스타디움 중에서 그라운드와 가장 가깝다.

"임재혁 선수를 크게 불렀습니다. 순간 임재혁 선수가 움찔하면서 이쪽을 봤어요. 그 때 찔렀했습니다. 저의 응원이 선수들에게 미친다는 생각에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 박해영 엔젤

박해영 엔젤은 "선수들이 경기가 풀리지 않고 어려울 때 더 힘을 실어주는 것이 진정한 엔젤모습이 아닌가 싶어요"라며 연패로 고개 숙인 선수들을 끝까지 응원하면서 슬기로운 엔젤생활이 무엇임을 보여주었다.



엔젤은 '대구의 로망' 사익 따지지 않은 이타적 후원은 '순수함 그 자체'

엔젤 최고령 층의 나이에도 여느 청춘 못지않게 엔젤활동에 적극적인 김영채 엔젤자문위원(안경회계법인 회장)도 대표적인 '슬기로운 엔젤'이다.

질고도 단정한 반백의 머리에 선비를 떠올리게 하는 김위원은 홈경기는 물론, 원정경기, 그리고 엔젤의 다양한 행사에 적극 참여한다. '엔젤인'으로서 자부심도 대단하다. 이처럼 엔젤활동에 적극적인 이유에 대해, 김위원은 60, 70년대에 유행한 '양가주망(engagement)'을 예로 들었다. '양가주망'은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문학자인 J.P. 샤프트르가 주창한 것으로, 한마디로 지식인들의 '사회현상에 대한 적극적 참여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샤프트르가 2차 대전이라는 위기 속에서 젊은이들의 사회참여를 강조하였듯이, 엔젤 역시 위기에 빠진 대구 FC를 살리는 운동에 시민들의 참여를 외치고 있습니다"

김 위원은 "나는 그저 엔젤의 외침에 이끌려 화답했을 뿐"이라고 겸손해 하며, "엔젤은 자신의 이익과는

관계없이 우리 대구를 좀 더 나은 사회로 발전시키려는 이 시대의 마지막 로맨티스트"라고 설명했다.

대학시절부터 전형적인 모범생이었던 김 위원은 스포츠에도 관심이 많았다. 아마추어 스포츠를 하는 친구들과 자주 어울려 다녔고, 운동하느라 공부를 등한시 했던 이들에게 자신이 작성한 서브 노트와 예상 시험문제까지 보여 주는 등 도움을 준 덕분에 스포츠 분야에서도 인기가 좋았다고 한다. 때문에 김위원은 스포츠가 갖는 힘을 잘 안다. 아울러 '스포츠를 통하여 지역을 사랑하고 발전시키겠다.'는 엔젤이 자랑스럽다고 한다. 개인적인 이득 없이 이타적으로 활동하는 '엔젤정신'이 바로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시대정신'이요, '로망'이라고 덧붙였다.

"요즘 사람들은 에고(ego)가 너무 강해요. 더구나 넘지 말아야 할 금도를 넘어서고 있어요. 욕심이 끝이 없지요. 이런 세상에 내 것 네 것 구분 안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힘이 되어주고 도와주는 엔젤 회원들이 얼마나

이쁘니까! 저는 이런 엔젤의 로망을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김위원은 무엇보다 엔젤클럽이 대구의 '공동선(善)'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FC의 '우승'과 '명문구단'이라는 목표를 추구한다는 것에 대해 뜻을 같이했다. 시민의 손으로 만든 대구FC의 성공은 바로 대구정신을 살리는 길이며 대구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이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전반기 마지막 경기인 전남과의 원정경기를 참관하지 못해 아쉬워했던 김위원은 앞으로도 대구FC 홈경기는 물론,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해, 슬기로운 엔젤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 약속했다. 한편, 김위원의 아들은 세계에서 가장 확장성 높은 채팅 솔루션을 제공하는 실리콘밸리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으로 널리 알려진 샌드버드의 김동신 대표이사다. 김위원은 아들에게도 틈만 나면 엔젤정신을 강조하고 있으며, 기회가 닿는 대로 김 대표도 엔젤 일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김영채 자문위원



이외에도 일일이 소개하지 못하지만, 많은 엔젤들이 슬기로운 엔젤생활을 하고 있다. 앞으로 두고두고 매겨진 지면을 할애할 것이다. 이들은 홈경기는 물론 원정경기에도 참석해 뜨겁게 응원하고, 대구를 사랑하는 일에 열손 제쳐두고 나선다. 아울러 개인적 이익이 생기지 않아도 내손으로 명문구단 하나 만들어 본다는 데 큰 보람을 느낀다. 내가 가는 길이 우리는 물론 우리의 자식, 그리고 친구, 동료들이 숨쉬고 호흡하는 우리 대구사회를 좀 더 가치 있게 만들고 있다는 것만으로 엔젤은 슬기롭다.

엔젤기념품, 적극적으로 챙기자 수요만남의 날, 홈경기 상견례 참석하면 수령 가능

엔젤이 되면 따라오는 것이 있다. 바로 푸른 엔젤재킷과 머플러, 그리고 사인볼과, 엔젤배지다. 사인볼에는 대구 FC 조광래 대표이사의 축구철학과 친필 사인이 있으며, 무엇보다 해당 엔젤의 이름, 직함, 소속명이 들어간다. 케이스까지 포함하면 값으로 따지기가 쉽지 않다. 문제는 엔젤 수가 갑자기 늘다보니 사무국에서 개별적으로 챙기기 어렵다는 것이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챙기지 못한 엔젤도 많다. 사무국에서는 이처럼 제때에 기념품을 챙기지 못한 엔젤을 위해 '수요만남의 날'을 특별히 만들어 기념품을 전달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오전 9시경 호텔 인터볼고에서 만남의 날 행사를 하고 있다. 회장단이 직접 전달하고 늦은 경우에는 사과도 곁들인다. 기념촬영과 덕담으로 행사를 마무리 하는 만큼 의미가 있다. 수요만남의 날은 시즌 비시즌 가릴 것 없이 진행된다. 시즌 중에는 대구FC 홈경기가 있는 날, 엔젤룸에서 열리는 '엔젤상견례'를 통해 전달한다. 이 행사에는 신입엔젤은 물론 그동안 기념품을 챙기지

못한 엔젤에게도 전달한다. 그동안 이 행사들을 통해 많은 엔젤들에게 기념품을 전달했다.

두 행사 모두 참석하기 어려우면 새롭게 단장한 엔젤사무국으로 가도 된다. 단, 방문하기 전에 미리 사무국으로 전화해야 사인볼을 제작할 수 있다. 앞서 밝힌 대로 사인볼은 조광래 대표이사의 친필 사인과 해당 엔젤의 이름 등을 직접 써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실제로 받아보면 사인볼은 물론 재킷이나 머플러, 배지 등을 유용하게 쓸 수 있다. 물론, 현재 사무국에서 기념품을 받지 못한 명단을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확실한 방법은 사무국으로 연락해서 행사에 참여하는 길이다.



슬기로운 엔젤생활, 후원금 경비처리는 이렇게

슬기로운 엔젤생활을 위해서는 후원금에 대한 경비처리를 확실하게 하는 게 좋다. 가급적이면 개인 보다는 법인으로 후원해야 도움이 된다. 대구FC는 시민구단이지만, 시민 주주로 탄생한 상법상 주식회사다. 따라서 입장권 구입비로 처리해야 된다. 아울러 후원금만큼 입장권을 수령할 수 있다. 좀 더 의미 있는 엔젤 생활을 하려면 사용할 만큼만 수령하고 나머지는 사무국에 맡겨 두면 사무국에서 초청용이나 복지시설에 사용할 수 있다. 사표(死票)를 방지하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엔젤입장권에는 회사 이름이나 개인 이름 등 원하는 내용으로 인쇄할 수 있다.(아래 사진 참조) 사무국에서 알아서 해주면 좋지만, 기다리지 말고 적극 의사표현 하는 것이 슬기롭다. 받은 입장권은 즉각 활용해야 한다. 시즌 동안 관람할 수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사용할 수 있는 경기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우면 홍보용으로 사용하면 된다. 다만, 주면서도 꼭 돈을 낸 것이니 ‘꽁짜표’가 아님을 주지 시켜야 한다.



대구FC 엔젤후원금에 대한 회사의 손비처리 방법

■ 입장권 구매(복리후생비)

• 손비인정 한도 : 전액

회사 임직원에 대한 복리후생정책의 일환으로 프로축구경기를 회사의 비용으로 지급할 경우 복리후생비에 해당되며 전액 손비로 인정됩니다. 엔젤이 대구FC에 후원금을 내고 입장권을 받아서 임직원이 개별적 또는 단체로 경기를 관람하는 것이 자극히 복리후생비에 해당됩니다.

• 정규증빙 갖추는 방법

사업자가 입장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장권 구매금액이 회사의 복리후생비로 계상되는 경우의 정규증빙은 아래 사항의 경우 가능합니다.

1. 입장권 대금을 송금할 경우에는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내역과 사용한 입장권이 정규증빙이 됩니다. 실무상 사용한 입장권을 다시 회수해서 보관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입장권 구매에 대한 사내 품의서를 만들고 업무담당자가 결재를 해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카드결제 시, 카드영수증이 정규증빙으로 충분합니다.
3. 더불어 임직원에게 문화생활 지원의 일환으로 경기관람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복리후생규정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강병규 부회장

엔젤 부부젤라!

우리에게는 즐거움을, 상대에게는 괴로움을!
부부젤라 타임 별도 지정, 상대 공격시에만 사용 등

부부젤라(vuvuzela) :

‘레파타타(lepata)’라고도 불린다. 무적(霧笛; 안개가 껴들 때 보내는 신호음) 또는 코끼리 울음, 벌떼가 뿔뿔거리는 것 같은 소리를 내는 플라스틱 재질의 트럼펫 모양 악기이다. 길이는 약 1m이며, 120~140 데시벨(db)에 이르는 커다란 소리를 낸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나온 설명이다. 축구장에 흔히 볼 수 있는 응원도구 부부젤라(vuvuzela)다. ‘부부젤라’는 최근 엔젤과 친근하다. 엔젤들이 응원할 때 항상 등장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경기장에서 첫 선을 보였다. 엔젤 개별적으로 구입 했는데, 종종 분실되는 경우도 많았다. 그래서 올해는 아예 단체로 구입하고, 일괄 관리한다. 원정을 떠날 때도 무기처럼 별도로 챙길 정도다.

부부젤라는 홈 구장인 대구스타디움에서는 제대로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거대한 트랙을 넘어 선수들이 뛰는 그라운드 안으로 전달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라운드와 관중석이 먼 대형 홈 스타디움을 갖고 있는 팬들의 애환이다. 대신, 원정에서는 단단히 효과를 본다. 특히, 올해 원정을 떠난 포항스틸야드와 광양전용축구장은 크기도 작고, 그라운드가 바로 관중석 앞에 붙어있어 효과가 대단하다. 공을 몰고 오는 상대 팀 공격수가 들으면 아무래도 신경 쓰일 만하다. 상반기 마지막 경기인 전남드래곤즈와의 원정에서도 엔젤원정대는 부부젤라를 앞세워 전남 공격진의 혼을 빼놓았다. 특히 이날 원정길에 부부엔젤이 된 문현훈 엔젤과 백경에 엔젤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함께 부부젤라를 불었다. 더구나 이름 자체가 ‘부부젤라’인 만큼, 부부의 화합을 입증하는 악기로 변신 했다. 첫 원정에서 온 힘을 쏟아낸 백경에 엔젤은 “전반전에 전남이 우리 쪽으로 공격했다. 골대 뒤쪽에서 죽어라 부부젤라를 불어댔다. 그 때문인지 전남의 전반 공격은 실패했다. 한골도 넣지 못했다”며 남다른 의욕을 보였다. 백경에 엔젤의 주장은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

실제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요란한 소음이 바분(baboon; 개코원숭이)을 죽인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 ‘악마의 하수인’으로 알려져 있는 바분을 죽이기 위하여 소음이 필요하듯 축구경기장에서 부부젤라를 부는 것은 상대팀을 제압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부부젤라’에 대한 거부감도 있다. 조용히 경기를 관람하고자 하는 관중에게는 분명 소음이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부부젤라가 유명세를 탄 것이 바로 이 엄청난 ‘소음’이다. 듣기에 따라서는 불편할 수 있다. 따라서 일부 구단에서는 ‘부부젤라 타임’을 정해서 별도로 부부젤라를 불도록 한다. 상대의 공격이 몰아칠 때 그 기세를 꺾자는 의미다. 엔젤도 마찬가지다. 기본적으로는 상대가 공격을 해올 때 부부젤라를 집중적으로 불자고 서로 합의했다. 물론, 누구든 흥분하면 뭔가를 불고, 소리를 지르고 한다. 통제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부부젤라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필요도 있다.

배재호 대구FC서포터스 그라지에 회장은 “요즘 엔젤의 응원은 큰 도움이 된다. 다만, 서포터스들이 함께 힘을 모아 응원가를 부르거나 응원을 할 때는 가급적 자체해주시기 바란다. 상대 공격시에는 괜찮지만, 우리가 함께 응원할 때는 힘이 빠질 수도 있다. 부부젤라 타임을 별도로 만들거나 서로 힘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한다면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제 내년이면 꿈에 그리던 축구전용구장이 완공된다. 1만2천석의 아담한 규모에, 지붕까지 있고, 관중석 바닥은 메탈로 되어 있어, 발로 굴리면 응원 효과가 최고조다. 여기에 부부젤라까지 합쳐지면, 상대의 기세가 절로 꺾일 것이다. 우리에게는 즐거움을, 상대에게는 괴로움을 주는 부부젤라가 되기를 희망한다.





김범일 전 시장 “엔젤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일” 서정원 엔젤 조동희, 박래석 엔젤 현장에서 릴레이

또한 이날 엔젤가입식을 갖고 진성엔젤이 된 김범일 전(前) 대구광역시장은 “정말 자랑스롭다. 엔젤클럽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고, 대구에서도 국채보상운동 다음으로 의미 있고 뜻 깊은 일이다. 이번 사무실 개소식을 계기로 엔젤클럽과 대구의 큰 운이 상승(大運上昇)하기를 바란다”고 엔젤클럽의 발전을 기원했다.

이날 참석한 서정원 엔젤은 조동희(주)제이원 대표와 박래석 (자)삼우전자통신 대표를 신입 엔젤로 추천릴레이 하며 ‘엔젤은 릴레이다’를 실천했다.

엔젤클럽사무실 엔젤빌리지 오픈!

엔젤 보금자리, 행정업무 중심 및 사랑방 역할 호텔 인터볼고 서기수회장 등 엔젤들의 자발 후원

대구FC엔젤클럽이 엔젤인의 보금자리가 될 엔젤클럽 사무실, ‘엔젤빌리지’를 오픈하고 새로운 엔젤시대를 열었다.

엔젤클럽은 5월 14일 오전 11시30분 김범일 전 대구시장, 국제로타리 3700지구 반용석 차기총재, 대구시 및 대구FC 구단 관계자,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엔젤사무실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지난 2015년 출범한 엔젤클럽은 그동안 임시 사무실을 사용하는 등 행정업무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 새롭게 단장한 호텔 인터볼고 대구 더 파크빌리지 1층에 공식적인 사무실을 갖게 됐다.

이번에 마련된 엔젤사무실(포토존 포함 40여 평)에는 많은 엔젤들의 정성이 가득 담겼다. 외부 래핑과 내부 설계, 포토존, 칸막이 등 인테리어 공사는 물론 장식장, 선반, 소파, 책걸상 등 사무용 집기, 냉장고, 기념품 등을 엔젤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지원하면서 번듯한 사무실이 됐다. 이와 함께 생수 등 각종 사무국운영에 필요한 물품도 엔젤의 손으로 후원된다.

특히 부부 모두 후원천사가 된 ‘부부엔젤’ 1호 서기수 호텔 인터볼고 대구 회장은 이번 사무실 공간의 무상 제공은 물론, 그동안 사무국 직원들의 식사 및 관리비, 집기 등 사무국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는 등 대구FC는 물론 엔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왔다. 이에 엔젤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서 회장은 “엔젤은 지역의 뜻있는 시민들이 대구사랑과 대구정신을 추구를 통해 실천하는 시민모임인 만큼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힘닿는 대로 사무국을 지원하고 있다”며 “호텔 인터볼고 대구와 더 파크빌리지는 풍수적으로 기운이 좋다고 한다. 좋은 기운 받아서 대구FC엔젤클럽의 발전은 물론 대구FC도 좋은 성적을 거두어, 엔젤의 성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2부 행사로 더 웨딩파크빌리지에서 축하연이 열렸다. 이호경 회장은 인사말에서 “엔젤은 추운겨울을 이겨내고 만개한 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늘에 이르렀다. 엔젤 한 분 한 분의 뜻이 모여 이번에 엔젤사무실을 갖게 됐다. 도움 주신 모든 엔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제 엔젤 사무실을 중심으로 보다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달려 갈 것이며, 수많은 엔젤의 이야기가 이곳에서 넘쳐날 것”이라고 개소식 소감을 밝혔다.



엔젤을 ‘엔젤’하다.

엔젤사무국,
여러 엔젤 도움으로 오픈

대구FC엔젤클럽의 보금자리가 마련됐다. 이번에도 엔젤이 ‘엔젤’했다. 여기서 뒤의 ‘엔젤’은 동사다. 아낌없이 주는 마음이다. 마음만 맞으면 엔젤은 뭐든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호텔 인터볼고 대구의 리모델링이 시작되면서 엔젤클럽 사무실이 임시로 운영됐지만, 대신 꿈이 있었다. 국내 최고 수준의 호텔 내에서 엔젤의 공간을 갖는 일이었다. 그것도 무상으로 말이다. 현재로서는 기한도 없다. 아무리 엔젤이 좋지만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최고급 호텔 내에 40여 평의 공간을 이렇게 내어 준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인가? 부부 모두 엔젤이 된 부부엔젤 1호 서기수 회장은 “엔젤을 항상 가족처럼 생각한다”며 흔쾌히 장소를 제공했고, 수시로 사무국에 들러 도와줄 일이 없는지 살펴볼 정도로 엔젤에 대한 애정이 깊다. 서기수 엔젤은 사무실 공간 외에도 직원 식사부터 집기, 관리비 등 사무국 운영 전반을 지원하고 있다. 공간이 마련되자, 사무실 형태가 필요했다. 이번에는 김완준 엔시오 본부회장(JID 대표)이 나섰다. 사무국 칸막이를 하고, 사무공간과 창고, 탕비실을 나눴다. 내친김에 탕비실에 싱크대까지 설치했다. 사무실을 둘러싼 유리벽면도 장식이 필요했다. 복도에서 보면 사무실이 훤히 보여, 시트로 래핑을 해야 했다. 그동안 각종 엔젤관련 디자인 작업을 지원했던 이태훈 엔젤(애드스미스 대표)이 디자인을 맡았고, 최고급 래핑작업은 이성배 엔젤(예가 대표)가 후원했다. 두 엔젤의 조합으로 심플하면서도 깔끔한 사무실이 갖춰졌다. 사무실 밖의 명물 포토존도 두 엔젤의 합작품이다. 이태훈 엔젤은 나중에 사무국이 허전하다며 현수막까지 설치해 줬다.



사무실, 인테리어, 집기, 전자제품, 이사까지 엔젤 손으로

사무실 외형이 갖춰지자, 내부에 속속 비품이 도착했다. 허전했던 사무실 칸막이 벽에는 잘 짜인 대형장식장이 들어섰다. 정영준 엔젤(다원아이디 대표)이 신경 쓴 작품이다. 정영준 엔젤은 엔젤룸 대형 TV도 후원한 바 있다. 창고에는 최태원 엔젤(대구시축구협회 부회장)이 수납장을 짜 넣어주었다. 사무국에서 쓸 책상은 강준기 엔젤(포머스 대표)이 나섰다. 책상과 파티션, 서류함, 티테이블을 제공했다. 추가 책상과 의자, 그리고 회의용 테이블은 배영호 엔젤(영신F&S)이 들여냈다. 사무국 직원들이 사용할 전자제품도 필요했다. 역시 엔젤에서 팔을 걷어붙였다. 정소영 엔젤(창성산업 대표)이 500L 냉장고를, 차인석 엔젤(대성엔팩스 대표)이 전자오븐레인지를 선물했다. 이호경 회장도 대형 TV를 떼왔다. 사무국에서 축구볼일도 많기 때문이다. 사무국 직원들의 컴퓨터도 이회장이 부담했다. 조용호 엔젤(어펙시스템 대표)은 엔젤 홍보를 위하여 키오스크 TV모니터를 제공했다.

어엿한 사무실을 갖추다 보니, 손님들이 찾아와도 대접하는 데 큰 불편함이 없다. 냉장고에는 음료수와 생수가 가득하다. 호텔 인터볼고 대구에 같은 식구인 최재호 엔젤(골든크라운 대표)이 엔젤사무국 초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지원해 주고 있다.

사무국 이사도 만만찮은 문제였다. 돈을 들이자면 목돈이 들어간다. 백을수 엔젤(국제ITS 대표)과 전성열 엔젤(동양OA 대표)이 나섰다. 백을수 엔젤은 사무국 전체 집기와 짐을 옮겨주었고, 전성열 엔젤은 사무국 내 파티션 및 각종 사무집기의 이전 설치를 도왔다. 엔젤사무국 이전 소식을 접한 박기자 엔젤(무영 대표)도 지체없이 6인용 고급 소파를 택배로 붙였다. 덕분에 엔젤사무국이 편안한 공간이 되었다. 사무국이 새롭게 오픈되면 이것저것 들어가는 것도 많다. 평소 사무국직원들의 사정을 잘 아는 엄태건 엔젤본부 부회장이 보태 쓰라며 조용히 사무국 계좌로 1백만원을 썼다. 엄부회장은 그에 앞서 전화 및 팩스 겸용 사무기도 지원한 바 이다. 5월14일 개소식이 열린 날 많은 엔젤들이 사무실을 찾았다. 돌아가는 손이 가법치 않게 배문구 엔젤(승창침장 대표)이 선물용 수건을 돌렸다. 엔젤사무국이 있기 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엔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 대구 FC 후원에도 만만찮은 비용을 지불하지만, 엔젤사무국 운영에 대한 애정도 뜨겁다.

이호경 엔젤회장은 “이번에 문을 연 엔젤사무실은 그 처음부터 끝까지 엔젤의 후원으로 이뤄진 만큼, 그 사무실 자체가 엔젤의 상징”이라며 “사무실 오픈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엔젤사무국에 대한 엔젤 지원내역-

이름	소속	지원품목
강준기	(주)포머스 대표	책상, 서류함, 파티션, 티테이블
김완준	(주)JID 대표	사무실디자인, 칸막이-싱크대 설치
박기자	(주)무영 대표	6인용 소파
배영호	(주)영신F&S 대표	책상, 회의용 테이블
배문구	승창침장 대표	선물용 타월
백을수	국제ITS 대표	사무실 이전 지원
서기수	바르미, 호텔인터볼고 대구 회장	사무실 공간 지원, 집기, 관리비, 직원식사
엄태건	(주)태준메디칼 대표	현금 100만원, 전화 및 팩스 사무기
이성배	(주)예가 대표	사무실 시트 래핑, 포토존 조성
이태훈	(주)애드스미스 대표	사무실 및 포토존 디자인, 현수막
이호경	대영에코건설 대표	TV, 컴퓨터
전성열	동양OA 대표	사무국 집기 이전 지원, 파티션 재설치 등
정소영	창성산업 대표	냉장고 500L
정영준	(주)다원아이디 대표	장식장, 수납장, TV(엔젤룸)
조용호	(주)어펙시스템 대표	키오스크 모니터
차인석	대성엔팩스 대표	전자오븐레인지
최재호	(주)골든크라운 대표	커피포트, 생수, 음료수 무한 제공
최태원	대구시축구협회 부회장	창고 물품보관 수납장 세트



호텔 인터볼고 대구와 함께 하는 엔젤클럽!

국내 최고 수준의 호텔인터볼고 대구와 함께 하는 근무환경

파크빌리지 잔디광장, 인공폭포 등 수려한 자연경관

엔젤클럽이 다시 한 번 날았다. 호텔인터볼고 대구 파크빌리지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한 엔젤클럽은 이제 행정업무를 체계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호텔 인터볼고의 최고 시설 및 수려한 경관과 함께 엔젤의 성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엔젤 사무실은 2016년 9월 송준기 자문위원의 지산치과에 임시 사무실을 냈다. 호텔인터볼고에 등지를 든 것은 그해 11월말이었다. 당시 마땅한 사무실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서기수 바르미 그룹(호텔인터볼고 대구) 회장은 엔젤의 뜻을 기려, 선뜻 자리를 내주었다. 뿐만 아니라 사무국 직원 식사 등도 해결토록 지원하면서 엔젤클럽도 큰 힘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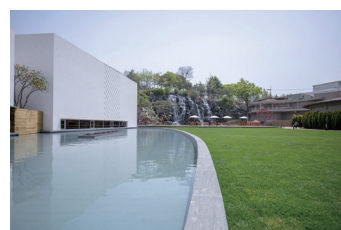
하지만 호텔 인터볼고가 국내 최고 수준의 호텔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목표로 리모델링에 들어가면서 엔젤은 임시 사무실을 사용하게 됐다. 지난해 엔젤로서는 가장 큰 행사인 천사데이 행사를 이곳에서 치르며 어려움을 이겨냈고, 올 해 초에는 본관 호텔 입구에 임시로 사무실을 옮겼다.

그 사이 호텔인터볼고는 ‘웨딩의 성지’를 목표로 별관

쪽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하기 시작했다. 야외 수영장을 덮어 넓은 잔디광장을 조성하고, 최고 수준의 웨딩파크빌리지를 완성했다. 금호강을 안은 언덕아래 시원한 잔디광장이 들어서고, 자연친화적인 폭포에서는 실 새 없이 시원한 폭포수가 쏟아졌다. 웨딩파크빌리지는 잔잔한 인공 연못에 둘러싸여 잔디광장과 조화를 이뤘다. 자연 친화적인 호텔인터볼고의 모습이다. 저녁 어둠이 내리면 웨딩파크빌리지의 벽면은 스크린이 된다. 앞으로 영화 ‘시네마천국’의 장면처럼 동화 같은 웨딩천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조성된 파크빌리지에 엔젤사무실이 들어섰다. 호텔 이라 최고의 자재로 시설 됐고, 엔젤들의 정성으로 완벽한 사무실로 거듭났다. 자동잠금열쇠를 시공하는 업체 관계자는 자재가 좋아 공사하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말하기도 했다.

포토존을 포함하여 40여평의 사무실 공간은 많은 엔젤들의 정성으로 가득 차 있다. 무엇보다 엔젤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다. 뿐만 아니라 엔젤 사무실 인근의 화려한 호텔 시설과 아름다운 자연 풍광은 최고의 근무 환경을 만들어 냈다.



인근 망우당 공원, 영남제일문, 금호강 풍경 점심, 저녁 산책으로 업무 스트레스 날려

바쁜 업무 중에도 틈나는 대로 엔젤사무실을 찾아보는 서기수 회장은 “인근에 산책길이 잘 나 있어, 피곤할 때 편하게 걸으면 업무 효율도 높아질 것”이라며 수시로 불편한 게 없는지 물어볼 정도다. 서 회장의 말처럼 점심 먹고 시간을 내서 사무국 직원들이 산책을 시작하면 여행지가 따로 없다. 호텔인터볼고에서 제공한 식사를 한 뒤, 커피 한 잔 들고 잔디광장 테라스에 서면 ‘이것이 바로 힐링이다’라고 느낄 정도다. 시원한 폭포수에서는 음이온이 쏟아진다. 도심에 어디 이런 공간이 있단 말인가!

쏟아지는 햇살과 잔디는 말 그대로 환상적인 청량제다. 야간에는 더 좋다. 늦은 업무 중에 잔디광장 앞에 서면 은은한 조명에 마음이 차분해진다. 하루의 피곤함도 사라진다. 클래식 음악이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면 산책길은 명상길이 된다. 웨딩파크빌리지를 둘러싼 연못 가운데는 작은 불꽃들이 밤을 아담하게 밝힌다. 일렁이는 불꽃파라 물결에도 따뜻함이 스며든다. 마음만 먹으면 돈 들이지 않고 즐길 수 있는 힐링 코스다.

호텔에서는 이러한 최고의 공간을 활용하여 6월부터 파크빌리지 로비층과 야외를 활용하여 ‘낮잔에 밤별소’ (낮에는 잔디를 바라보며 애프터눈 티를 즐기고, 밤에는 별을 보며 소주파티)라는 커피숍 & 포차가 운영을 시작하였다.

낮에는 한잔의 차로 힐링과 여유를 즐기고, 어둑해진 저녁에는 가벼운 소주 한잔으로 하루의 피로를 풀 수 있는

야외 포장마차 공간이 마련된 것이다.

인근 산책로도 최고다. 공영주차장으로 난 돌계단을 올라가면 금호강을 내려다보고 있는 영남제일문과 망우당공원으로 이어지는 산책길이 나온다. 홍의장군 광재우 동상으로 이어지는 길에는 느티나무, 배롱나무, 목련, 은사시나무 등의 수목과 화초가 작은 숲을 이루며 아름답게 단장되어 있다. 뒤쪽 절벽 아래로는 금호강(琴湖江)이 흐른다. 눈이 오는 겨울풍경은 더 좋다. 지난해 겨울 폭설이 심심찮게 쏟아졌다. 영남제일문의 설경은 그 자체가 시(詩)였다. 내리는 눈을 맞고 선 인근 지역은 동화 속 이야기가 됐다.

아름다움은 먼 곳에 있지 않다. 가까이 우리 가까이에 이렇게 존재한다. 슬기로운 엔젤사무국 생활도 그렇다. 정연주 주임은 “맛있는 점심을 먹고 나서, 파크빌리지를 한바퀴 돈다. 연못 앞쪽에서 스트레칭도하고 음악도 듣다가, 놀이터 쪽으로 발걸음을 옮겨 햇빛을 쬐는 것이 하루 일과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다른 친구들이 최고의 사무실 아니냐며 부러워 한다”고 말했다.

김성곤 엔젤(호텔 인터볼고 전무)도 “서기수 회장님의 엔젤에 대한 사랑이 각별한 만큼, 저 역시 엔젤업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엔젤클럽이 이곳에서 우리지역은 물론 국내 스포츠사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커뮤니티로 성장해 이곳이 엔젤의 성지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구FC엔젤클럽, 전용차 엔젤카 탄생!

회장 기증, 윤경일 차량래핑, 김세중 공기청정기 후원
엔젤이미지 새 단장, 대구는 물론 전국 누벼

대구FC엔젤클럽의 원활한 업무와 홍보를 위한 엔젤업무용차 ‘엔젤1호’가 대구는 물론 전국을 누비고 있다.

지난해부터 엔젤회원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사무국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엔젤클럽의 업무 및 홍보를 위한 차량이 필요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엔젤의 ‘후원본능’이 살아났다. 먼저, 엔젤클럽 이호경 회장이 업무용으로 액티언 스포츠를 기증했다. 중고 차량인 탓에 래핑이 필요했는데, 이번에는 엔젤도 아닌 일반인 나섰다. 차량래핑 업체인 <주>글로벌에스피의 윤경일 대표이사가 바로 주인공이다. 윤대표는 우연히 전화상으로 이회장에서부터 엔젤의 설립목적과 의미를 듣고, 그 자리에서 흔쾌히 차량래핑을 지원할 뿐 만 아니라 엔젤회원으로도 가입했다. 이로써 엔젤이미지를 가득 담은 ‘엔젤 1호’ 엔젤카는 사무국 업무는 물론, 원정을 떠나는 등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다.

윤경일 대표는 “이호경 회장에서부터 ‘축구를 통한 지역사회’와 ‘대구정신’이라는 엔젤클럽에 대한 의미를 듣고 그 뜻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하여 차량래핑은 물론 엔젤회원이 되기로 마음먹었다”며 “무엇보다 이회장을 비롯 엔젤클럽 회원들의 열정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지원배경을 밝혔다. 이 소식을 들은 김세중 엔젤도 초미세먼지배기가스 알리지 유발물질을 없애주는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기증하는 등 미담이 이어졌다.



엔젤카는 그냥 차가 아닌 엔젤의 정신이 담긴 식구

새단장을 마친 엔젤카는 대구는 물론 경북에 있는 엔젤들을 찾아 나섰으며, 엔젤카를 발견한 엔젤들은 가족을 본 듯이 기뻐했다. 출근길에 엔젤카를 우연히 만난 문현훈 엔젤은 무엇에 홀린 듯 추격(?) 끝에 엔젤카를 따라가 확인까지 했다. 그때를 떠올린 문현훈 엔젤은 “출근하는 길에 엔젤카를 보니 너무 반가워서 나도 모르게 따라가게 됐다”며 “엔젤카가 거리를 활보하니 새삼 엔젤이라는 것을 재확인하고, 자부심도 느낀다”고 말했다. 시내 노보텔에 출장 업무 중인 김진태 엔젤도 “주차하다가 엔젤카를 보고 깜짝 놀랐다. 사진으로보다 실물로 보니 너무 멋있었다”고 엔젤카를 보며 흐뭇했다고 한다. 심인철, 김일권 엔젤도 엔젤카의 모습을 보면 엔젤들의 왕성한 활동력을 느끼는 것 같으며,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 단독방에 올리며 홍보하기도 했다. 이처럼 엔젤카에 대한 반응이 뜨겁자 송원배 엔젤은 ‘엔젤카를 찾아라! 행운이 온다’라는 이벤트를 마련해 거리를 질주하는 엔젤카의 모습을 찍어서 단독방에 올리는 엔젤 선착순 15명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또는 아이스티 2장을 선물로 쏘기도 했다. 엔젤과 연관된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엔젤카도 단순한 차가 아니라, 엔젤의 정성과 정신이 담긴 엔젤의 상징물로 자리잡고 있다.



▲엔젤카의 첫 원정행(창원 축구센터 가는길, 엔젤과 함께)

엔젤카 보면 반갑고 자부심 생겨, 사진촬영 등 대환영 앞으로도 엔젤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갈 예정

차량을 기증한 이호경 회장은 “처음에는 영혼 없는 업무용 차량 같았으나 엔젤로 와서 엔젤카가 되니 마치 살아있는 영혼이 스며든 듯 정감있고, 사랑스러운 식구가 됐다”며 “앞으로도 엔젤카는 엔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한걸음에 달려가 엔젤의 정신을 널리 알리고 엔젤회원들에게는 자부심을 심어줄 계획”이라고 엔젤카에 대한 엔젤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했다.



‘엔젤원정대’ 전국에 엔젤정신 전파! 3월 개막전 포항, 5월 전기 최종전 광양 서포터스와 하나 돼 대구FC응원!

대구FC엔젤클럽의 원정경기 공식 단관(단체관람), ‘엔젤원정대’가 올 시즌 전반기 대구가 아닌 타 도시에서 엔젤의 힘을 보여주었다. 지난해의 경우 공식적인 단관은 그해 8월 광주원정경기가 유일했다. 물론 지난해 10월 1부를 확정했던 포항스틸러스와의 경기에 개별적으로 원정에 나선 경우는 있었지만, 공식적인 단관은 광주경기 하나였다. 그 때문인지 엔젤들의 아쉬움이 컸고 올해에는 포항, 경남, 상주, 울산 등 인근지역에는 기본적으로 ‘엔젤원정대’를 꾸리기로 했고, 중요한 경기나 이슈가 되는 경기도 포함시켰다.

올 시즌은 지난해 잔류를 확정지었던 포항에서 개막전이 열린 만큼 엔젤의 기대가 컸다. 3월의 바쁜 일상 중에도 많은 엔젤들이 개막의 설렘을 안고 원정을 떠났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러시아 월드컵 브레이크를 앞둔 상반기 마지막 경기도 체첸가(家)의 형제인 전남드래곤즈와의 원정 경기였다. 당초 원정 일정이 잡혀 있지 않았으나 앞서 열린 수원삼성과의 원정 경기에서 발생한 심판판정 문제로 또다시 엔젤들이 들쭉 거리기 시작했다. 경고성 파울에 심판은 VAR까지 거치면서도 레드카드를 꺼낸 것이다. 엔젤은 유튜브에 관련 영상을 올리는 한편, 급박하게 광양으로 ‘엔젤원정대’를 띄우기로 했다.

올해 엔젤원정대의 성과 중 하나는 ‘축구전용구장’의 분위기를 미리 체험했다는 것이다. 선수들을 응원하는 것이 주목적이지만, 올 연말 완공될 전용구장의 참맛을 미리 본다는 것도 의미 있었다. 첫 경기 포항스틸야드는 우리나라 최초의 전용구장으로 가장 박진감 있는 축구를 볼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마지막 광양전용축구장은 규모가 1만2천여 석으로 대구축구전용구장과 크기 면에서 가장 유사하다. 덕분에 엔젤들은 1년 앞서 축구전용구장을 앞서 경험한 셈이다. 실제로 원정대 대부분의 엔젤들이 전용구장에서 축구에 ‘중독’ 되는 경험을 함께 했다.

또 다른 성과는 바로 대구FC 서포터스와 함께 응원하면서 거리감을 좁혔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응원하는 방법이 달라 서로 오해가 있었던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은 서포터스와 하나가 되어 대구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 현수막도 함께 걸고, 구호도 같이 외치면서 대구의 축구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원정에서의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홈경기로 이어져 엔젤과 서포터스의 거리를 한층 좁힌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무엇보다 원정에서는 서로가 단단히 뭉친다. 홈에서 수성을 하는 적진 속으로 들어간 엔젤원정대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봤다.



3월3일 오후 2시 포항스틸야드, "엔젤의 봄! 희망을 봅니다"

엔젤본부 임태건 부회장(태준메디칼 대표)을 원정대장으로 한 ‘엔젤원정대’는 출발부터 개막전이라는 설렘이 가득했다. 더구나 포항은 지난해 1부 잔류를 확정된 팀이었다. 당시에는 엔젤 공식단관이 뜨지 않았지만, 개별적으로 포항스틸야드를 찾은 엔젤이 많았다. 이번에는 ‘엔젤원정대’라는 공식 단관을 띄워 포항으로 향했다.

서포터스와 함께 원정석을 가득채운 엔젤원정대는 ‘대구FC의 절대승리’를 외치며 끝까지 하나가 됐다. 서포터스와 구호를 같이 외치고, 부부젤라를 불 타임에는 함께 포항 공격진을 교란했다. 릴레이대장 안홍운 엔젤(YH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은 적진에서 북을 치며 응원을 독려했고, 깃발을 든 엔젤들도 일사불란하게 깃발전쟁을 펼쳤다. 원정대의 응원에 힘입은 대구 선수는 ‘에이스’ 세징야가 빠졌지만, 전반을 압도했다. 다만, 골 결정력이 문제였다. 결과는 0 대 3. 경기는 아쉽게 패했지만, 돌아오는 원정대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엔젤원정대는 ‘절대희망’을 이야기했다. 경기결과도 중요하지만, 선수들이 엔젤응원단을 보고 열심히 뛰어준 것에 만족해했다. 그것이 엔젤이다.

아들 신창무선수를 상주에 보내고 첫 번째 경기장을 찾은 박기자 엔젤(무영 대표)은 "대구FC를 응원하면서 오늘처럼 편하게 응원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결과와 관계없이 우리 선수들이 열심히 했다"고 박수를 보냈고, 박기자 엔젤과 함께 온 황주연 예비엔젤(한솔해피니스대구수성센터장)은 "오늘 분위기를 보니 엔젤가입 해야겠다. 엔젤재킷도 받았고 축구경기도 봤는데 너무

좋았다. 좋은 기운 받아간다"고 소감을 밝혔다. (황주연 센터장은 지난 4월 정식 엔젤이 되어 엔젤룸에서 가입식까지 가졌다.) 최익진 엔젤(풍국면 대표)도 "원정경기에서 새얼굴들을 뵈게 돼 너무 반갑다. 엔젤가입을 적극 추천했다"고 반가움을 나타냈고, 강정영 엔젤(뉴스웨이 대구경북본부장)은 "3월 첫 휴일 포항원정을 다녀와서 보람 있었다. 오늘은 워밍업이라고 생각한다. 차차 나아질 것"이라고 희망을 이야기했다. 송원배 엔젤(대영씨앤디 대표) 역시 "지난해 초반 안 풀렸지만 꾸준히 응원한 결과 좋았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하다보면 잘될 것이다"고 했고, 선수들의 보금자리인 대구FC클럽하우스를 설계한 이창환 엔젤(토담건축 대표)은 "40년 전에 축구 응원하고 처음 왔다. 역동적인 모습에서 감동받았다. 앞으로 같이 하겠다"고 청춘의 기억을 되살렸다. 맛있는 김밥으로 즐거운 원정길을 만들었던 김미숙 엔젤(주원 대표)은 "친구와 함께 와서 너무 행복했다. 앞으로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태훈 엔젤(에드스미스 대표)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할 것이다. 엔젤이 끝까지 밀어줄 것이다"고 희망을 이야기 했다. 모처럼 찾은 하호만 엔젤은 "엔젤 가입 후 처음 왔다. 김밥도 너무 맛있었고 즐거운 하루 보냈다. 앞으로 열심히 응원하겠다."고 자주 볼 것 을 약속했다. 정영준 엔젤(다원아이디 대표)은 "포항을 응원한 해병들을 엔시오로 단체 가입시키겠다"며 홍보에 나서 박수를 받았고, 원정대의 살림꾼 안홍운 엔젤은 "오늘 포항 다녀오기가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것. 앞으로 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참석을 요청했다.



미리 보는 축구전용구장 기쁨도 감동도 ‘두배’ 이젠 나도 ‘축구덕후’

가족과 함께 한 윤창섭 엔젤(GOLDEN-B 대표)은 "봄나들이 하듯이 행복한 하루였다. 전용구장의 열기를 느꼈다. 심적으로 안타깝지만, 승전보를 올릴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 하겠다"고 좋은 추억이라고 했다. 박혜영 엔젤도 같이해서 즐거웠고, 김규정 엔젤(삼성생명)도 "좋은 날씨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했다. 우리가 응원 하는 것을 알고 있는지, 우리 선수들이 더 열심히 뛰는 것 같았다. 앞으로 더 많이 선수들을 응원하겠다"고 했다. 쌀쌀한 날씨를 뜨거운 응원으로 녹였던 최미애 엔젤(뉴니케 팀장)은 "원정 경기에 나선 우리 선수들이 엔젤로 인해서 든든했을 것이다. 앞으로 선수들이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겠다"고 했다. 김영채 엔젤자문위원(안경회계법인 회장)은 좋은 날씨에 봄소풍 왔다고 웃음지었고, 정소영 엔젤(창성산업 대표)은 "원정버스 타면서 여러가지 상상을 해봤다.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점차 나아질 것이다"고 앞으로를 기대했다. 백우연 엔젤

(한국여성인정제인협회)은 "정영준 엔젤이 해병과 잘 어울리는 등 분위기가 좋았다.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조직적인 응원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원정대장 엄태건 엔젤은 "모두 고생하셨다. 첫 경기에서 부부젤라를 열심히 불고,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앞으로 단체응원에 더 열심히 동참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날 엔젤원정대에 동행한 대구FC 이도현 실장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마음이 아프다. 엔젤의 응원에 용기가 난다. 앞으로 엔젤의 뜨거운 열정에 보답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호경 회장은 "이번 엔젤원정대의 목적 중 하나가 바로 전용구장 분위기를 한 번 경험해보자는 것이었다. 올해 말 대구축구전용구장이 완공된다. 스틸야드보다 더 관중친화적이고 도심에 있는 최적의 관람조건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엔젤의 훈이 녹아들고 엔젤 응원석이 특화될 것이다. 그때까지 끈 놓지 말고 한결같이 응원하자"고 마무리했다.

5월19일 : 의령 받은 氣運, 광양으로 문화투어와 어우러진 새로운 원정문화

전반기 마지막 원정경기도 엔젤이 함께 했다. 당초 전남 원정은 일정에 없었으나, 변수가 생겼다. 5월13일 수원과의 원정경기에서 심판 판정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 세징야가 바그닝요에게 한 파울이 VAR까지 거쳐 레드카드를 받았고, 이후 수원 이종성선수에 대한 퇴장성 판정이 경고에 그치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엔젤은 지난해 9.24 전북 전이 다시 떠올랐다. 급한 대로 엔젤원정대를 꾸렸고, 5월19일 아침부터 광양으로 향했다. 특히, 이번에는 연패의 사슬을 끊고 승리를 기원하기 위하여 좋은 기운이 넘친다는 경남 의령을 경유해, 광양으로 향했다. 마침 정영만 엔젤(제이아그로 대표, 자유총연맹 대구경북수석부회장)이 엔젤을 초청했던 터였다.

경남 의령은 인물과 역사와 자연이 모두 풍요로운 고장으로 그야말로 좋은 기운의 땅이다. 임진왜란 당시 국난 극복을 위해 의병이 최초로 일어난 곳이다. 위기에 빠진 시민구단 대구FC를 자발적인 릴레이로 살려보겠다는 엔젤클럽이 떠오르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 뿐만 아니다 삼성그룹 호암 이병철(의령군 정곡면), 효성그룹 만우 조홍제(함안군 군북면), LG그룹 연암 구인회(진주시 지수면)선생이 태어난 곳으로 애국과 경제의 좋은 기운이 가득한 곳이다. 이호경 회장을 비롯해 이날 원정대에 참석한 엔젤들은 충익사를 찾아, 이처럼 좋은 기운을 받아 대구FC가 승리를 하는 것은 물론 ‘대구’도 발전하기를 간절히 기원했다.



좋은 기운을 흠뻑 받은 원정대는 의령을 뒤로 하고 서둘러 광양으로 향했다. 원정대는 광양에 도착하자마자 서포터스와 가세했다. 100여명에 이르는 응원단이 형성됐다. 상대의 기를 꺾고도 남음이 있었다. 특히, 대구FC의 주장 한희훈이 응원석에 합류했다. 재심결과 세징야의 징계는 풀렸지만, 세징야 판정에 거친 항의를 한 한희훈은 징계를 피할 수 없었다. 한희훈은 이날 응원석에서 엔젤, 그리고 서포터스와 함께 끝까지 응원전을 펼쳤다.

이제 원정에서 낮익은 엔젤과 서포터스는 경기 전부터 함께 자리를 이동, 한곳에 집결했다. 서포터스가 구호를 선창하면, 엔젤이 따라했고, 신호에 따라 부부젤라도 함께 불었다. 리그 최하위 팀답지 않게 광양구장에는 ‘대구’라는 함성이 계속됐다. 엔젤과 서포터스의 연합응원 덕분인지 선수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 뛰었다. 분위기는 원정팀 대구가 리드했다. 하지만 첫 골은 전남의 몫이었다. 후반 33분 전남 허용준에게 선제골을 허용하고 말았다. 엔젤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깃발을 더 흔들고,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그 때문인가, 선수들도 끝까지 밀어붙였다. 앞선 경기에서는 후반전이면 맥없이 무너졌지만, 이날만큼은 달랐다. 대구의 응원 소리가 출렁이는 전남의 골대 앞에서 결국 추가 시간에 동점골이 터졌다. 박한빈의 극장 골이었다. 엔젤과 서포터스는 기쁨으로 하나가 됐다. 비록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연패의 사슬을 끊고 후반기를 도모할 수 있는 동점골이었다.

애국, 경세제민의 땅 의령서 간절한 기도 승리 같은 무승부, 하반기 대반격 기대

돌아오는 엔젤원정대의 버스에도 희망이 가득 찼다. 김완준 부회장(제이아이디 대표)은 “바람이 거세게 부는 가운데도 오늘 정말 열심히 응원했다. 그 때문인지 후반에 맥을 못 추던 선수들이 오늘은 달라졌다. 비록 이기지는 못했지만, 박수 받을 만했다”고 원정소감을 밝혔다. 첫 원정을 나선 김동국 엔젤(DK글로벌코리아 대표)은 “대구스타디움에서 처음 경기를 봤고, 이번에 원정이 처음이다. 원정까지 와서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엔젤에 놀랐다. 오늘 함께한 분들이 척추같은 역할을 한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척추를 잘 감싸는 근육의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안홍운 엔젤 역시 “올해 전반기에서 후반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연패를 끊고 넘어간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 후반기를 기대하겠다”고 이번 경기의 의미를 설명했다. 박혜영 엔젤은 “선수들이 우리가 오는 것을 물랐는지, 우리를 보고 놀라는 것 같았다. 아마도 더 힘을 받았던 것 같다”고 했고, 정모경 부회장(정원자가텍 대표)도 “오늘 일정이 너무 좋았다. 오전에 의령에서 좋은 기운을 받고, 그 기운과 함께 광양에 도착했다. 아나나 다들까, 그동안 답답했는데, 오늘 선수들이 우리 응원에 보답하듯 최선을 다한 것 같아 원정 온 보람을 느낀다”고 원정의 힘을 이야기했다. 부부와 함께 뜨거운 응원을 했던 문현훈 엔젤(덕영치과기공소)은 “엔젤이면서도 원정은 처음이었고, 무승부지만 충분히 박수 받을 만한 경기였다. 특히, 이번 원정길에서 의령에 들러 정영만회장을 비롯한 엔젤들이 대구는 물론 나라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어 느끼는 게 많았다”고 첫 원정 소감을 전했다. 어김없이 김밥을 준비한 김미숙 엔젤은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그만큼 몰입했다는 이야기다. 김미숙 엔젤은 “오늘은 지고는 못 간다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응원했다. 그 뜻이 선수들에게 전해졌는지 정말 열심히 뛰더라”며 끝말을 잊지 못해 박수를 받았다. 강병규 부회장(세영회계법인 대표)은 “이번 원정을 통해 생활에 변화가 올 것 같다. 이번에 광양에 앞서 의령에서 정말 좋은 경험을 했다. 앞으로 원정을 하게 되면 가족과 함께 좋은 곳에 여행도 즐기고,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면 더 좋은 스포츠문화 체험이 될 것이다. 엔젤가는 우리 엔젤 모든 분들이 나처럼 돼서 버스 1대가 아니고 10대 이상 원정을 오는 날을 기대해 본다”고 남다른 소회를 밝혔다. 경기 전부터 대구의 선전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이호경 회장(대영에코건설 대표)은 “이번 원정길에도 많은 것을 배웠다. 간절하면 그 뜻이 통한 다는 것도 새삼 느꼈다. 의령에서 정말 성심껏 기도했다. 무엇보다 전용구장에서 우리 선수들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면서 선수에 동화가 더 됐고, 기도발도 더 먹히는 것 같았다. 내년 전용구장에서 더 간절히 응원하면 분명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다”며 원정에 참여한 모든 엔젤들의 건승을 간절히 기원했다. 아울러 이회장은 “경기장을 나오면서 조광래 대표로부터 팀 리빌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좋은 선수들이 보강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하반기에는 좋은 성적이 기대된다”며 “후반기에도 엔젤원정대를 꾸려 선수들의 뒤를 든든히 받칠 것”이라고 많은 엔젤의 참여를 희망했다.



민간외교 정영만 엔젤

대구, 의령 알리기 통해 지역 사랑 실천

자발적 엔젤활동에 감동, 의령 초대

“대구요! 대구하면 그냥 사람 사는데 아깝니까! 뭐 별 게 있나요? 덩고, 춥고, 보수적이고, 고집 세고...”

경남의령 출신으로, 대구에 살고 있는 정영만 엔젤(제이아그로 대표, 대구대 겸임교수)은 서울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구’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그때부터 대구의 참 모습을 알리고 싶었다. 그것이 대구를 사랑하는 길이었다. 지체할 수 없었다. 곧 바로 대구 알리기에 나섰다.

서울 인맥이 풍부했던 정영만 엔젤은 어떻게 하면 서울 사람들이 ‘진짜 대구’를 보고 갈까 고민했다. 먼저 할 수 있는 것부터 했다.

“제가 국민 학교 총동창회 회장이 되고서부터 문경 등 타 지역에서 하던 임원회의를 대구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한번 대구에 와서 제대로 ‘대구’를 보더니 사람들의 인식도 달라지더군요. 그 후로 더 많은 사람들을 대구로 오게 했어요”

정영만 엔젤은 대구를 보여주는 방식도 달랐다. 무의미한 수박 겉핥기 식의 방문보다는 대구의 숨은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우선 대구의 대표적인 영산인 팔공산으로 모셨어요. 하지만, 주말 오후는 피했습니다. 오죽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오히려 짜증스러워서 역효과가 납니다”

대신 조용한 아침의 팔공산을 보여주기로 했다. 팔공산 인근에 숙소를 잡고, 오전 8시 출발, 동화사 뒷문에 차를 세운 뒤 일행을 하차시켰다. 버스는 이동해 동화사 정문에 섰고, 방문단은 도보로 아침의 팔공산과 동화사를 맞이했다. 환상적이었다고 한다.

“많은 대구 사람처럼 저도 수십 번 대구를 왔어요. 하지만, 초겨울의 아름다운 팔공산과 동화사를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시간대의 팔공산은 사람의 흔적이 비워지고, 그 공간에 조용한 산사의 침묵이 충만해 있었습니다. 대구만의 남다른 경험이었습시다”

정영만 엔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4차례에 걸쳐 대구방문단을 꾸려, 팔공산은 물론 대구시내의 근대유산을 타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렸다. 진정한 대구 알리기 역할을 톡톡히 한 것이다.

정영만 엔젤은 고향 의령에 대한 애정도 깊다. 3년 전부터 800여명의 대구 사람들이 정영만 엔젤을 통해 의령을 새롭게 보았고, 많은 것을 느끼고 돌아갔다.

무엇보다 의령은 대구와 그 정서가 비슷하다. 구국의 상징인 광재우 장군과 세계적인 그룹 삼성은 두 지역을 정서적으로 잘 이어준다. 그 연결고리가 바로 엔젤이다. 이번 엔젤원정대의 의령문화투어 역시 정영만 엔젤의 초대에 의해서 이뤄졌다.

의령 정암진에서부터 엔젤들을 기다렸던 정영만 엔젤은 “지역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일어난 ‘엔젤 정신’이 의령의 구국정신과 그 맥을 같이 한다”며 환대했다.

“엔젤은 제가 살아가면서 찾은 보기 드문 사례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인 이득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시민구단 발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릴레이 하는 것은 물론 서로 협조하는 시민정신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열리는 ‘수요만남의 날’을 찾았던 정영만 엔젤은 특히 회장단들이 조찬회의를 진행 하는 모습보고, 느끼는 게

많았다고 한다.

“오늘의 엔젤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보이지 않은 곳에서 많은 분들이 희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선배로서 보탬이 되는 일 없을까?’하는 생각을 하다가 의령문화투어를 제안했습니다”

의령투어는 애국, 부자 투어로 반응이 좋았던 코스다. 더군다나 이날은 6연패의 위기 속에서 엔젤들이 승리의 염원을 안고 광양으로 원정을 떠나는 길이었다. 정영만 엔젤은 대구FC를 응원하는 엔젤의 입장에서 의령의 좋은 기운이 원정길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했다.

물론, 이날 경기는 승리하지 못했지만, 추가시간에 극적으로 동점골이 터지면서 연패의 사슬을 끊었고, 후반기 대반격의 불씨를 살려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미국 6.25 참전용사 초청행사 개최, 감동과 보람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과 친선 민간 외교 펼쳐

정영만 엔젤은 이처럼 대구 알리기, 의령 알리기를 넘어 힘닿는 대로 우리나라의 민간 외교관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나이 오십 후반을 넘어서부터, 나라에 보탬이 되고 내 사업도 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내가 나라와 고향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는 시늉이라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했어요”

정영만 엔젤은 이런 건강한 고민 끝에 지역적으로는 우리 고향을 알리고, 국가적으로는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리는 민간외교관 역할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한다.

실제로 정영만 엔젤은 지난 2016년 업무 차 미국에 갔다가 조지아 주 애틀랜타에서 6.25전쟁 참전용사를 초청, 감사와 위문의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당시 현지 교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40년을 현지에서 살았는데 민간인이 와서 한국전 참전 용사들에게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처음 봤다고 했습니다. 저는 큰일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 했는데 그 감동과 보람은 남달랐습니다”

정영만 엔젤은 그 감동을 잊지 못해, 자신이 수석부회장으로 있는 ‘자유총연맹대구경북지부’ 멤버들과 함께 오는 8월 시애틀에서 한국전참전용사 초청행사를 가질 계획이라고 한다. 정영만 엔젤의 민간외교는 미국에 그치지 않는다. 중국, 일본 등 한반도를 둘러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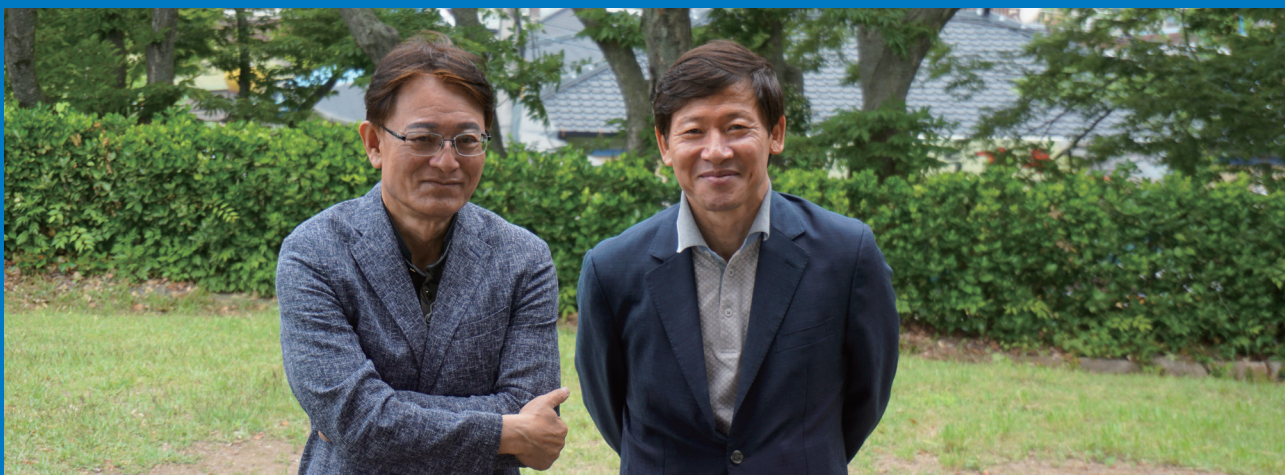
강대국이 모두 민간외교의 대상이다.

중국 상해임시정부를 다녀와서는 대구에서 임시정부방문단을 꾸릴 준비를 하고 있고, 업무 차 일본 교토에 갔다가 일본과도 가까워지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에는 블라디보스톡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민간인 신분이지만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과 사이좋게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는 오늘도 바쁘다.

‘나라사랑과 지역사랑’ 하는 길에 또한 엔젤도 있다. 국내 최초로 시민구단으로 출범한 대구FC를 명문구단으로 키워내는 또 다른 지역 사랑의 길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후기리그를 준비하는 선수들에게 정영만 엔젤은 “올 전반기는 지난해 무난히 잔류했던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비록 결과가 좋지 않았지만, 이러한 시련의 기간 동안 우리는 오히려 팀을 돌아보고, 정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수록 엔젤이 더 많이 응원해야 한다는 정영만 엔젤은 “힘든 기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슬기롭게 이겨 내 미래를 대비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며 “대구에서 가장 먼저 생긴 시민구단 대구FC가 명문구단이 되어 대구의 또 다른 자랑이 되어달라”고 주문했다.



정영만엔젤(오른쪽)이 서상보 전(前) 의령군 부군수와 의령군 정암진에서 화안한 미소로 엔젤방문단을 맞고 있다.

감격의 대구FC 시즌 첫 승!

4.15 강원 상대 김경준, 김진혁 영건의 연속골 엔젤의 간절함 승리로 이어져

“첫사랑, 첫키스 < 첫 승”

4월15일, K리그1 7라운드 대구FC와 강원FC의 경기가 열린 대구스타디움에는 서포터스들이 직접 손으로 쓴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첫사랑, 첫키스 보다 첫승’이라는 이 문구는 대구FC의 2018년을 잘 말해 준다. 엔젤도 마찬가지다. 지난 겨울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했던 중국 쿤밍까지 원정방문하며 힘을 실어주었던 엔젤은 그동안 내내 첫 승을 기다렸다.

실제로 엔젤의 기대는 남달랐다. 지난해 후반 좋은 경기력으로 8위를 하며 여유있게 잔류를 확정 지었던 만큼, 올해는 물론 내심 6강 진입을 조심스럽게 점지기도 했다. 3월에 발간된 봄호 엔젤매거진 설문조사에서도 많은 엔젤들이 6강 진입과 함께 세징야의 첫 골을 예측하기도 했다.

하지만, 엔젤들의 기대와 달리 첫 승 소식은 개막 한 달이 넘어서도 들려오지 않았다. 3월3일 포항원정에서 치러진 2018년 K리그1 개막전에서 새롭게 합류한 브라질 듀오 카이온과 지안의 기대감을 높였지만, 그 뿐이었다. 마수걸이 골을 성공시키지 못한 카이온과 지안은 이후 부상이라는 이유로 사라졌다.

엔젤의 갈증도 심해졌다. 첫 경기부터 원정에 나서며 기세를 올렸던 엔젤이지만 승리가 없자 조바심이 났다. 무엇보다 ‘첫 승’이 중요했다. 무엇이든 해야 했다. 대구FC가 첫 승을 거둘 때까지 모두들 자신만의 방법으로 간절히 승리를 기원했다. 좋은 기회가 왔다. 바로 강원FC와의 홈경기였다. 강원은 당시 시즌 초반 3연승을 하며 강팀의 면모를 보였지만 이후 3연패를 하며 기가 꺾였다. 골잡이 디에고가 이전 경기 퇴장으로 출전하지 못했고, 공수의 핵심 정석화도 부상으로 선발출전이 불투명했다. 이근호 역시 부상 이후 복귀했으나 제 컨디션만 못했다. 그에 비해 우리 선수들의 첫 승에 대한 열망은 뜨거웠다. 젊은 피의 대거 투입이 예고되면서 새로운 바람도 기대됐다.

엔젤들은 그 어느 때 보다 첫 승에 대한 기대를 안고 경기장으로 향했다. 엔젤룸 앞에도 전장을 앞 둔 군진의 엄숙함처럼 ‘엔젤기’가 펄럭였다. 다만, 긴장된 분위기와 달리 엔젤들의 표정은 밝았다. 어떤 믿는 구석이 있는 모르겠지만, 모두들 승리를 기대하는 얼굴이었다. 경기 뒤에 밝혀진 이야기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승리 맞춘 사무국 이삿날, 승리표 김밥 등 간절했던 엔젤

사실 엔젤들은 며칠 전부터 첫 승을 위한 자신만의 '승리기원제'를 올리고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엔젤사무국 이삿날이다. 경기를 앞둔 4월 13일 이호경 회장과 엔젤릴레이 대장 안홍운은 모 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을 엔젤로 가입시키기 위하여 공동작전을 벌였고, 마침 점심 식사를 같이했다. 이 때 동석한 김종두 사무총장이 사무국 이삿날을 물었다. 이왕이면 좋은 날, 손 없는 날 이사하자는 뜻이었다. 마치 신기(神氣) 받은 표정의 이호경 회장은 스마트 폰으로 날짜를 보더니, 갑자기 “오늘 바로 가서 간판을 떼서 새 사무실로 옮기세요”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반드시 대구가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에 앞서 김종두 사무총장은 단독방에 “오늘은 꼭 이깁니다.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염려 말고 응원하세요. 승리를 만끽하실 것입니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외에도 임태진 부회장의 빨간 속옷은 이미 승리의 징크스로 유명하다. 임부회장은 “며칠 전부터 마음 속으로 대구FC의 승리만 생각했다”며 “오늘은 반드시 이길 것 같다”라며 감이 좋다고 했다. 거기에도 최근 바쁜 일정으로 대구스타디움을 찾지 못했던 김미숙 엔젤도 그동안의 부진이 자신의 탓인 것 마냥 자책하며, 첫 승을 위하여 손수 짠 매운 김밥을 공수했다. 승리의 화재를 약속했던 권일경 엔젤(위드 대표)도 바쁜 일정 마다하고 경기장에 왔다. 얼마나 간절하길래 이렇듯 승리의 징크스를 갖고 있는 엔젤들이 경기장을 찾았을까?

이런 기운 때문일까? 경기 시작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김경준, 정치인 등 새롭게 투입된 대구의 영건들은 온 힘을 다해 경기장을 누볐고, 초반부터 대구가 기세를 올렸다. 그 기세는 결국 결과로 이어졌다. 전반 25분 세징야의 패스를 받은 영남대 출신 골잡이 김경준이 지체 없는 드리블에 이어 슈팅으로 깜짝 데뷔 골을 기록했다. 엔젤들은 환호했고, 응원의 목소리는 높아졌다.

이후에도 대구의 젊은 패기에 당황한 강원은 전반을 끌려갔다. 후반 들어서도 대구의 기세가 거셌다. 그러나 변수가 생겼다. 좋은 모습을 보이던 정치인이 백태클로 퇴장을 당한 것이다. 아무래도 첫 선발을 맞은 젊은 선수에게는 흥분되는 경기였다.

수적으로 불리하던 상황에서 결국 33분경 강원의 세트피스 상황에서 주장 한희훈의 백 헤딩이 골문을 향하면서 동점골을

허용하고 말았다.

엔젤의 그 많던 간절함도 바래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엔젤 누구하나 실망하지 않고, 젊은 선수들을 응원했다. 믿는 구석도 있었다. 간절함은 대구 편이었다. 후반 39분 코너킥 상황에서 문전혼전 중 골 넣는 수비수 김진혁이 한 박자 빠른 슛으로 승점 3점짜리 골을 성공시켰다. 엔젤존은 흥분의 도가니였다. 엔젤들은 “역시”라며 엔젤의 간절함을 확신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지 않았다. 종료직전 올해부터 실시하는 엔젤들의 승리의 하이파이브 이벤트를 위해 엔젤들에게 이동을 요청했으나, 엔젤들은 승리하기까지는 꼼짝하지 않고, 응원에만 집중하겠다는 자리를 지켰다.

권일경 엔젤은 “승리의 하이파이브도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이긴 게 아니다”며 “마지막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선수들을 응원해야 부정 타지 않는다”라고 응원에 열중했다.

엔젤의 간절함에 부응하듯 결국 마지막까지 리드를 지킨 대구는 7경기 만에 귀중한 첫 승을 거두었다. 분명 첫 승의 주인공은 선수들이다. 하지만, 경기 전부터 각자의 방식으로 승리를 간절히 염원하고 응원한 엔젤과 팬도 첫 승의 밑거름이 되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를 말해주듯 선수들도 엔젤들도, 팬들도 모두가 한 마음이었다.



선수, 엔젤, 팬과 함께 승리의 하이파이브!

마침 첫 승의 열매는 달았다. 엔젤과 팬들도 선수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승리 시 엔젤존 앞의 구름다리를 개방해 그라운드의 트랙에서 선수들을 맞는 '승리의 하이파이브'가 기다리고 있었다.

올해 첫 시행하는 '승리의 하이파이브'를 하면서는 엔젤들은 선수들과 하나가 됐다. 임태진 부회장은 '야아들' 세징야를 부둥켜안으며 애정을 과시했다. 하이파이브가 끝난 뒤, 이호경 회장은 이날 주인공 김경준과 김진혁을 만나, 기념촬영을 하며 격려하기도 했다.

서태현 엔젤(산동개발 대표)은 “승리 후 선수들과 함께 기쁨을 같이 하니 너무 좋았다”며 “앞으로도 선수들과 승리의 하이파이브를 하는 날이 많았으면 한다”고 기쁨을 전했다.

안상영 엔젤(광진종합건설 대표)은 네이버에 올라간 뉴스웨이의 칼럼에서 “대구FC는 다른 구단에 없는 것들이 있다. 승리에 대한 절박함으로 유격대를 결성한 젊은 골잡이 등이 있고, 인디언 기우제를 남 몰래 지내는 이호경 엔젤회장의 승리 염원이 있다. 제사상을 차리는 마음으로 준비한 승리 방정식 미숙표 매콤김밥도 있다”며 시즌 첫 승의 분위기를 글로 대변 했다. 



파워엔젤간담회

엔젤커뮤니티! 파워엔젤이 책임진다

파워엔젤그룹 간담회 정모경 그룹 스타트-릴레이 시조에서부터 3대가 한자리에

대구FC엔젤클럽이 소그룹 간담회를 통해 엔젤 진성화에 나섰다.

바로 ‘파워엔젤그룹간담회’다. ‘파워엔젤그룹간담회’는 엔젤 중 자신의 릴레이 계보를 갖고 있는 ‘파워엔젤’이 중심이 되어 그동안 릴레이 한 엔젤들과 갖는 소모임을 뜻한다. 파워엔젤은 최소 10명 이상 릴레이를 한 엔젤을 말한다. 예를 들자면 ‘엔젤종족(宗族)’이라는 큰 카테고리 속에 ‘부족(部族)회’의 개념이다. 이 부족들이 연합 된 것이 바로 ‘엔젤’이다.

엔젤클럽은 이러한 소 그룹 모임을 통해 릴레이 한 엔젤들이 서로 소통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예비 엔젤을 영입하는 등 엔젤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간담회를 제안한 강병규 부회장은 “지난해 ‘천사데이’ 때 엔젤들을 참석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파워엔젤을 통한 홍보와 연락이었다.”며 “엔젤들의 진성화를 위해서도 파워엔젤 별로 그룹을 만들어 간담회를 갖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았다”고 제안 배경을 말했다.

강 부회장은 “우리가 1차적으로 목표한 1004명 엔젤달성은 명분으로 가능했다. 하지만, 그 이상은 또 다른 뭔가가 필요하다는 것이 집행부의 분석이다”며 “엔젤 인원이 급증하다보니 누가 릴레이의 ‘시조’인지, 예를 들어 우리 족보에 누가 조상인지, 그리고 4촌 5촌 인지 모르는 경우도 생겼다”고 계통별 소모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간담회를 통해 릴레이에 대한 정체성을 확보 하고 소그룹 활성화를 통해 건전한 커뮤니티를 형성해 갈 때 엔젤클럽은 단순한 명분을 넘어 재미와 흥미가 있는 커뮤니티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파워엔젤 그룹 간담회’의 이름으로 첫 스타트를 끊은 것은 정모경 파워엔젤이다. 정모경 엔젤은 여성 1호 엔젤이기도 하다.

6월2일 금요일 오후 6시30분 호텔인터불고 대구 심비디움에서 처음으로 열린 간담회는 정모경 파워엔젤의 릴레이 계보를 확인하고 소통하는 소중한 자리가 됐다.

이날 자리에는 정모경 엔젤(정원자카텍)이 릴레이한 박기자 엔젤(무영 대표), 김판권 엔젤(명산 대표), 하정식 엔젤(서보정밀 대표) 등 소위 ‘자녀’에 해당하는 2세대부터, 2세대 엔젤 박기자 엔젤이 릴레이 한 이호경 엔젤(월드산업 대표), 이정미 엔젤(아사무역 대표), 황주연 엔젤(한솔해피너스대구수성센터 센터장) 등 3세대, 즉 손자손녀뻘 엔젤들도 함께 했다. 정모경 엔젤은 황주연 엔젤이 자신의 손녀뻘(?)인지 몰랐다면 반가워했다. 그리고 예비 엔젤 이정현(현대자동차 대구중앙지점 차장(정모경 엔젤 추천))도 참석했다. 시조, 2세대, 3세대부터 신입엔젤까지 각 세대별 엔젤들이 계보대로 모였다.

파워간담회, 엔젤종족의 부족회의 릴레이 족보 확인, 3대가 하나로 어우러져

이렇게 한 계보가 모이자 스토리도 쏟아졌다. 먼저 정모경 파워엔젤의 가입 이야기부터 남다른 사연이 있다. 2016년 정모경 엔젤은 호텔 인터불고 뷔페에서 모 모임에 참석하고 있었고, 음식을 담기 위해 나서던 중 강병규 부회장과 마주친 것. 마침 옆방에서는 엔젤 상견례가 열리고 있었다. 강부회장은 될성부른(?) 정모경 엔젤을 바로 모시고 왔고, 그 자리에서 여성 1호 엔젤이 되었다.

이날 파워엔젤간담회에서 강부회장은 “그 때를 후회하느냐”고 묻자 정모경 엔젤은 “만족합니다”라고 답해 웃음꽃이 폈다.

정모경, 김판권 엔젤의 인연도 흥미로웠다. 두 엔젤은 한국생산성본부 7기 교육과정을 함께 했지만, 정작 과정 중에는 제대로 서로 얼굴 한 번 못 봤다는 것이다. 결국 종강하고 식당에서야 인사를 나눈 두 사람은 그 후로 엔젤 인연까지 맺게 됐다.

또 엔젤회장과 동명이인인 이호경 엔젤(박기자 엔젤 추천)은 모 방송국 커피숍으로 찾아온 사무총장과 가입식을 치렀으며, 이정미 엔젤은 운동하는 중에 박기자 엔젤의 요청으로 즉석에서 가입서에 사인했다고 한다. 그렇게 맺은 엔젤이 이제 정모경 파워엔젤의 그룹으로 한자리에 모이게 됐다.

간담회에서 엔젤들은 대구FC를 화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으며, 국내 경제 및 사업관련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누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파워엔젤간담회

릴레이 중 갖가지 에피소드 등 스토리 쏟아져 즐거운 한때 신입엔젤 가입식도 함께 열려

정모경엔젤은 “오늘 저로 인하여 엔젤과 인연을 맺은 분들께서 바쁜 시간 중에도 참석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적어도 1년에 2,3차례 소모임을 가져 서로 얼굴도 확인하고 새로운 엔젤식구도 늘이겠다.”고 말했다.

사업장이 영천에 위치한 김판권 엔젤은 “회사가 멀어 자주 들리지는 못하지만, 내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하루 날을 정해 직원들과 함께 단체 응원을 와서 축구저변을 확대시키고, 관중을 늘이는 것이 대구FC와 엔젤클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경엔젤은 “스포츠는 TV로 보는 것과 현장에서 느끼는 감응이 다른 만큼 앞으로 경기장에서 엔젤 분들을 자주 뵙겠다.”며 “여기 나오신 분 모두 엄청 바쁘시지만 짬을 내서 한 분 두 분 이렇게 마음을 모으는 것이 바로 대구를 위한 길인 것 같다”고 말했다.

가입한지 1년이 넘었지만 해외 출장으로 바빴다는 이정미 엔젤은 “이제 여유가 좀 생겼다.”며 “앞으로 후원도 하고, 릴레이도 열심히 해서 진정한 엔젤이 되겠다.”고 열의를 보였다. 이날 정모경 엔젤이 ‘조상’인지 알게 된 황주연엔젤은 “시즌 개막전에 포항원정을 편한 마음으로 갔다왔지만 당시에는 엔젤을 깊이 알지 못했다.”며 “하지만, 자동이체 등 엔젤클럽의 발전을 위하여 고민하고 열정을 보이는 엔젤들을 보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앞으로의 활약을 예고했다.

회장단 멤버로 참석한 김완준 부회장은 “그동안 ‘회장님에 비해서 부족하지요’라고 많이 이야기 했는데 이 말이 회장님에게는 ‘참 부담스러웠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오늘 파워엔젤그룹간담회를 참석해 보니 우리가 정말 회장님 보다 더 열심히 해서 귀감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간담회에 참석한 소감을 말했다.

정모경 파워엔젤을 즉석 추천, 이 계보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인연이 있는 강병규 부회장은 “오늘 이 모임은 엔젤이 좀더 좋은 커뮤니티로 가기 위한 답을 찾아가는 정말 소중한 의미있는 자리”라며 “간담회를 준비한 정모경파워엔젤과 오늘 금요일을 맞아 바쁜 시간에도 참석해주신 엔젤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파워엔젤그룹간담회의 발전을 희망했다.



6월, 이태훈-김완준-심인철-전성열 등 파워간담회 이어져 이태훈 엔젤 “가정 꾸려 분가시키는 게 목적”

파워엔젤클럽 간담회는 월드컵 브레이크 기간에도 계속됐다. 6월12일에는 이태훈파워엔젤 (에드스미스 대표)의 그룹 간담회가 대구 서구 배박사늑대갈비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새롭게 이태훈파워그룹의 식구가 된 이양구 (주)에코텍 대표이사의 가입식이 있었다. 이태훈 파워엔젤은 직접 회원증과 사인볼을 전달하면서 축하했고, 아들이 축구를 좋아한다는 이양구 대표도 앞으로 아들과 함께 경기장을 찾고 다른 엔젤들과 인사를 나누기로 했다. 이날 이태훈 파워엔젤을 비롯 광신혁엔젤(〈주〉에코팜 대표), 김용규엔젤(배박사늑대갈비 대표), 이양구엔젤, 전중달엔젤(제이디 건설(주)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갑작스러운 일로 참석하지 못한 그룹 내 엔젤들도 전화로 첫 모임을 축하했다. 이태훈 파워엔젤은 “형식을 갖추기 보다는 서로 자주 만나 가족처럼 자연스럽게 정도 나누고 엔젤의 뜻도 다져나가는 모임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며 “‘시조’(始祖)로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하루 빨리 그룹 내 엔젤들이 가정을 꾸려 분가(?)하는 것”이라고 분가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모경, 이태훈 파워엔젤에 이어 김완준, 심인철, 전성열(일정 순) 등 파워엔젤들의 그룹 간담회가 대구 곳곳에 열리면서 월드컵 브레이크로 잠잠했던 엔젤분위기가 한껏 고조됐다.



파워엔젤간담회

파워엔젤클럽 간담회 새로운 커뮤니티 문화 조성

일반 식당은 물론 커피숍, 강의장 등 개최

파워엔젤클럽 간담회가 새로운 엔젤커뮤니티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처음에는 호텔 인터볼고나 일반 식당에서 열렸으나, 최근에는 커피숍, 그리고 강의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열리고 있다. 6월19일에 열린 김완준 파워엔젤간담회는 김완준부회장의 사무실 1층의 커피숍 '두앤(doux&)'에서 열렸다. 앞산 아래 카페거리에 위치한 터라 사무실 1층을 카페로 만들어 직원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날 오전 앞산의 신선한 공기와 함께 진한 커피향이 가득한 커피숍에서 권석원 엔젤부회장(동진건설 대표), 박병구 엔젤(대구미술협회장), 강정길엔젤(디자인비전 대표), 김충환엔젤, 김동국엔젤(DK 글로벌 코리아), 장국윤엔젤(영진수예집장) 등이 참석해, 커피향 가득한 간담회를 가지며 앞으로 활발한 릴레이를 다짐했다.



대영에코 '캔두홀' 간담회 장소 인기

오후에는 대영에코건설 6층에 위치한 인문학 강의장, 'Can-Do Hall'에서 심인철파워엔젤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 앞서 이호경 회장은 파워엔젤간담회 장소로 본사 6층의 인문학 강의장을 선뜻 내놓았다. 실제로 여기에서는 대영가족들이 매월 한 번씩 '인문학특강'을 개최하기도 한다. 이에따라 이날 사무국에서 별도의 자료를 준비 엔젤과 축구에 대한 '엔젤브리핑'을 짧게 하며 간담회를 시작하는 등 마치 '엔젤포럼'과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날은 심인철 파워엔젤(동명테크윈 대표)이 초청한 이동관(매일신문 국장), 김용범(에스알 대표), 김영준(중원 대표변호사), 이경호(동대구신세계약국), 김대엽(대영일루션 대표), 차순봉(선우종합건설 대표), 김일권(삼성생명 부장), 송원배엔젤(대영 씨앤디 대표)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또한 정에스터 갤러리 제이원대표가 심인철파워엔젤의 추천으로 이날 간담회에 자리를 뜻깊게 했다. 물론 두 간담회는 인근 식당으로 이어져 점심 및 저녁 식사를 하면서 편안한 가운데 화기애애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날 행사공간을 제공한 이호경회장은 "평소에 직원들의 인문학강의 그리고, 영화감상 등 다양한 힐링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곳"이라며 "장소가 마땅찮은 파워엔젤은 누구라도 간담회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많이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청정에너지, 천연가스 자동차로 대기질 개선에 기여합니다

2000년부터 보급되기 시작한 천연가스 자동차는 도시지역 대기질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수송용 천연가스의 지속적인 보급으로 보다 푸르고 깨끗한 초록빛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천연가스 차량 종류



오염물질이 적은 청정 에너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이 감소된 깨끗한 에너지



공기보다 가벼운 안전 에너지
공기보다 가벼워 누출이 되어도 대기 중으로 쉽게
날아가며 발화온도가 높은 안전한 에너지



유지비가 절감되는 경제 에너지
유류 대비 경제적인 에너지



생활이 편리해지는 실용 에너지
전세계적으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실용적인 에너지

좋은 에너지 더 좋은 세상



엔젤앱 개발자 임익기 엔젤<주>브라이트 대표이사)

대구FC엔젤클럽 전용앱으로 새로운 소통의 장을 열다.

앱 통한 ‘디지털릴레이’ 가능, 사용자 편의 위주로 개발



엔젤의 행복한 릴레이를 위한 대구FC 엔젤클럽 전용 앱이 개발되어 엔젤의 한 사람으로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이번에 개발된 엔젤 앱에는 엔젤회원 전체 소개와 대구FC 경기 관전리뷰 및 언론보도 뉴스를 볼 수 있는 ‘리뷰’, 회원끼리의 커뮤니티, 다양한 행사를 발 빠르게 전해드릴 수 있는 ‘엔젤클럽 공지사항’, 그리고 행사참석 여부를 파악하고 행사일정을 공지할 수 있는 ‘행사일정’ 등 다채로운 카테고리가 마련되어 있고, 사용자 편의 위주로 개발되었습니다. 엔젤 앱이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등 모든 휴대폰에 적용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회원들의 소통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엔젤 앱 개발을 통해 엔젤클럽 회원가입이 좀 더 손쉽게 이루어 질 수 있고, 자칫 번거로울 수 있는 후원금 납부 형태도 간편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이나 SMS기능을 통해서도 엔젤 릴레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보다 편리하게 엔젤 릴레이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원관리시스템도입과 대구FC 엔젤클럽 홈페이지 오픈으로 본격적인 디지털 대구FC엔젤클럽시대를 열 것으로 예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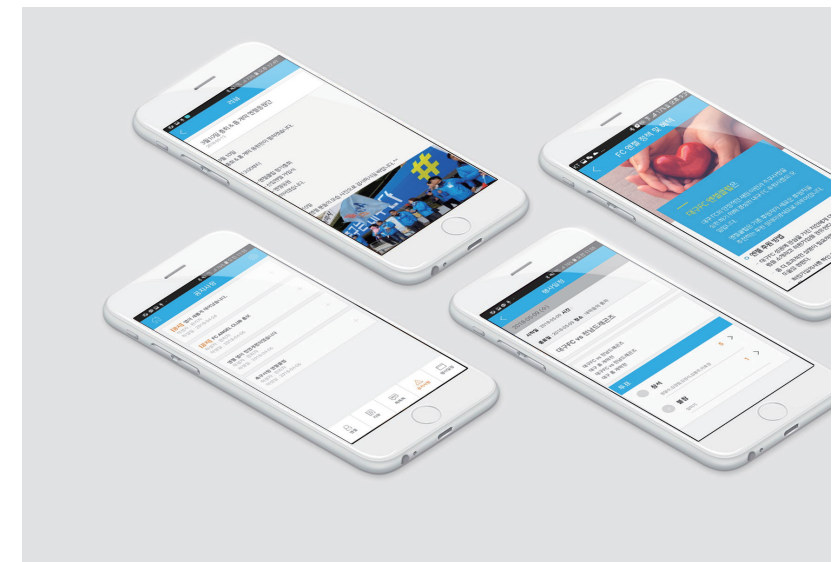
엔젤 앱을 개발하면서는 기업의 이익 보다는 엔젤의 공공성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축구사랑을 통한 지역사랑’이라는 엔젤의 가치가 그만큼 엄중하고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엔젤 앱의 개발자로 보람과 자긍심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다 많은 엔젤 분들의 요청사항과 개선점을 담아내기 위하여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엔젤공공성 생각하며 개발, 엔젤일원으로써 자부심과 보람 느껴

이를 위하여 기업의 가치를 개발과정에 집중했습니다. 브라이트의 기업가치는 “누구보다 완벽하게”, “새로운 시도의 존중” 그리고 “정직하고 투명하게” 입니다. 전산시스템의 구축에서 홍보, 그리고 서비스 운영기획과 활성화 컨설팅까지 제공하고 있는 브라이트는 이번 엔젤과의 협업을 통해 엔젤이 원하는 모든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보다 쉽게 릴레이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릴레이 앱’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엔젤의 가치를 이해하고 정직하고 투명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 개발을 통해 이익보다 더 큰 가치를 얻었던 것도 큰 성과입니다. 저 역시 엔젤의 일원으로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엔젤’이 갖는 우리 시대의 가치를 디지털화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에 상관없이 엔젤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일반 시민 역시 엔젤의 가치를 보다 손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앱은 누구든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군더더기 없이 심플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브라이트는 디지털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첫 소통의 공간이 웹사이트라고 생각하는 만큼, 이곳에는 감성코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엔젤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엔젤은 물론 많은 시민들도 함께 ‘엔젤의 감성코드’를 공감하고 소통해서, 언젠가는 모든 시민들이 먼저 이 공간을 통해 ‘엔젤’이 되는 ‘디지털 엔젤의 도시’를 꿈꿔봅니다.



(주)브라이트 대표이사 임익기

대구FC 엔젤클럽 전용 모바일 앱 사용설명

대구FC엔젤클럽 전용 앱은 엔젤 회원들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전용 어플리케이션 입니다.

주요메뉴

엔젤 소개, 온라인 회원가입, 회원·회비관리, 기념품 관리,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등...

주요기능

동영상 미디어 플레이어기능, SNS 연동, 온라인 거수기능, 위치기반의견 참여기능 등

이용대상

대구FC엔젤클럽

예상인프라

서버, 통신장비, 이동식 인터넷 기지국, 영상장비

주요 구성항목

엔젤 엔젤 회원 목록

리뷰 홈페이지와 연동되는 온라인 게시판

톡톡톡 엔젤회원들만의 비공개 소식 게시판

공지사항 엔젤회원들에게 전달하는 공지사항 소식 게시판

행사일정 대구FC엔젤클럽의 행사 일정 안내 (회원들의 참석여부 투표 게시판)



메인

대구FC엔젤 클럽의 주요 소식 링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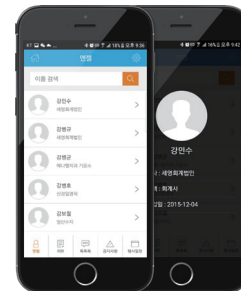
- 대구FC엔젤 클럽 홈페이지 바로가기
- 오늘의 행사일정 노출
- 현재 엔젤 회원 수 표시
- 비회원인 경우 회원가입 기능
- FC엔젤클럽 소개 및 비전 안내



엔젤

엔젤 회원들의 목록 및 개인 정보

- 회원 검색
- 이름과 회사명 표시
- 상세보기 화면에서 직책 및 가입일 표시



리뷰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주요 소식의 사진 및 영상 게시물을 열람할 수 있는 메뉴

- 홈페이지와 연동
- 최근 소식 미리보기
- 사진 및 영상 열람
- 이전글과 다음글 이동



톡톡톡

대구FC엔젤 클럽 회원들만의 비공개형 온라인 커뮤니티

- 엔젤 회원들은 누구나 업로드 가능
- 사진 및 영상 업로드 기능
- 댓글 기능



공지사항

사무국에서 알리는 공지사항 게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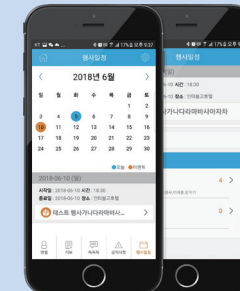
- 관리자가 업로드 하는 공지사항 게시판
- 일반글과 공지글 구분



행사일정

달력 형태로 구성되는 행사일정 게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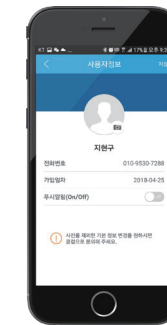
- 행사가 있는 날짜에 대한 표시
- 오늘 날짜 바로가기
- 이전 달과 다음 달의 손쉬운 스와이프 이동
- 행사별 참석여부 투표 기능



환경설정

개인 사용자 정보 설정

- 개인 프로필 사진 등록
- 투표 알림 등 수신여부 설정



엔젤클럽소개

대구FC엔젤 클럽의 소개 및 비전

- 홈페이지와 연동되는 안내 페이지
- 비회원도 열람 가능한 페이지



엔젤클럽 새 후원금 납부 방법 ‘자동이체’

100만원 후원시 월 83,000원 납부 실납부액 연 996,000원

대구FC의 명문자립구단을 위한 재정 후원을 목적으로 하는 대구 FC 엔젤클럽의 핵심은 아무래도 ‘후원금’이다. 많게는 연 2,000만원이 넘게 대구FC를 후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연 100만원을 후원하고 있다. 이 후원금은 전액 대구FC로 입금되어 ‘엔젤티켓’으로 엔젤들이 사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후원금은 주로 계좌이체, 카드결제 등 일시납으로 이뤄졌다. 매년 후원하다 보니 일부에서는 입금 시기를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일시납이다 보니 부담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 사무국을 비롯하여, 임원진들이 조찬회의를 거치며,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한 결과 ‘자동이체’라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예를 들어 연 100만원의 후원금을 예로 들 경우, 대구FC통장으로 후원금이 매월 83,000원이 정기적으로 납부된다. (엔시오의 경우 월 1만원)

1년 단발성이 아니라, 연속적인 후원을 함으로써 일시납 후원으로 인한 부담을 줄여 주며, 달마다 대구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엔젤클럽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자동이체뿐만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결제 방식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색 할 예정이며, 엔젤 분들이 불편해하지 않는 후원 활동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자동이체 1호 박성수 엔젤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후원 위해 신청 구단 사무실 찾아가 엔젤가입

서울에서 공부하다 대구에서 아버지와 함께 사업을 하는 박성수 엔젤(신화헬스앤드리로기 대표, 엔시오본부 운영이사)이 자동이체 첫 번째 신청자가 됐다. 엔젤에 앞서 축구팬이었던 박성수 엔젤이 생각하는 엔젤과 자동이체를 하게 된 이유를 들어봤다.

1. 올해부터 엔젤에서 자동이체를 통한 후원금 납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엔젤(엔시오본부 운영이사)이 그 첫 번째 주인공이 됐습니다. 자동이체를 신청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회성 후원이 아닌 지속적인 후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매년 시즌 개막 하면서 계좌이체로 후원했었는데요, 100만원이라는 돈이, 그래도 적은돈은 아니잖아요. 사실 뭇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게 부담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월 8만원 대로 납부하는 만큼 부담이 덜고 언제 입금해야한다는 강박도 사라져서 좋습니다.

2. 자동이체를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까?

더 많은 엔젤 유치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100만원을 내야만 엔젤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달 지출비용 중 어느 정도만 아끼면 엔젤클럽 회원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일회적인 후원이 아닌 지속되는 후원만이 대구FC를 안정적인 궤도에 올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적인 성장만큼 중요한 것이 지속적인 후원입니다.

3. 엔젤가입은 언제 하셨나요?

2016년 7월 가입했습니다. 엔젤클럽에 가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구단 사무실에 연락을 하니 구단 직원 분들이 안내해주셨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구단 사무실에 방문했었지요. 구단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서 가입한 사례가 없었던지 직원 분들도 깜짝 놀라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조광래 대구FC 사장님께서 직접 맞이 해주시고 같이 기념사진도 촬영했습니다.

4. 아버지하고 같이 가셨다니, 대단하십니다. 무슨 사연이라도 있습니까?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아버지께서 동의하셨습니다. 2008년부터 서울에서 대학생활을 하다, 2016년에 대구에서 아버지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에서 수익이 나는 것도 좋지만 일부 수입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도 관심을 가지고 설득했습니다. 특히 그 후원하는 곳이 제가 평소 관심 있어 하고 취미생활 하는 대구FC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알려드렸죠. 마침 그때 뉴스기사로 엔젤클럽에 관한 걸 접했었습니다.

5. 엔젤가입 이전부터 대구FC를 후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엔젤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팬심입니다. 제가 중학생이었던 2003년 첫 시즌부터 대구FC의 팬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엔젤클럽 이전에는 후원이라기보다는 응원이었죠. 어렸을 때지만 사실 서포터즈 활동도 잠깐 했었습니다. 당시 실점은 많지만 득점이 1위로 성적에 관계없이 재미있는 축구를 하던 시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대구FC에서 조금만 눈에 띄고 잘하는 선수는 다음시즌에서 볼 수가 없었어요. 대구에서 첫 국가대표 출신 홍순학 선수도 그렇고 에닝요, 이근호 등등 정말 좋은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만약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면 대구에서 잘하는 선수를 내년에도 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성적도 안정적으로 될 것이고 상위권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제가 엔젤이 된 이유입니다

6. 개인적으로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헬스기구와 의료가 판매 대여업을 하고 있습니다. 헬스장이나 회사 체력단련실에 있는 운동기구 납품을 하기도 하고 수리업무도 합니다. 또 단기간 운동기구나 의료가 필요한분께 대여해드립니다.

7. 앞으로 엔젤에게 바라는 점이나, 발전을 위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회장님을 비롯해 엔젤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엔젤클럽 회원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시즌 전북전 VAR 사태에는 우리 모든 엔젤분들이 자신의 일인 것처럼 하시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6만석 메르드급 경기장으로 규모가 큰 만큼 경기장 내에서 엔젤클럽 따로 대구시민 따로 그라지에 따로 뭔가 분리된 느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새로운 구장으로 이사를 갑니다. 거기에서 대구FC 선수들, 엔젤클럽과 대구FC를 사랑하는 모든 대구시민이 잘 어우러져 우리 대구FC만의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8. 7월8일부터 월드컵브레이크가 끝나고 후반부가 시작됩니다. 대구FC에 대한 전망은 어떤 것 같습니까?

올 상반기는 운이 조금은 따라오지 않았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경기 내용이 좋았을 때 승리가 없었습니다. 또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경기결과가 뒤바뀐 게 많이 보였습니다. 이럴 때 선수들의 힘이 더 빠지겠죠. 선수들 기 살리기에는 꾸준한 응원이 최고라 생각합니다. 새로 영입한 조세 선수가 팀에 잘 녹아들어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고 월드컵에서 경험 쌓은 조현우 선수가 복귀한다면 공-수 모두 안정화되지 않을까 예측해봅니다.



제1회 대구FC엔젤클럽회장배 초청축구대회 성료!

대구건축사회, 대경의사, 대구변호사, 대구식품협 축구팀 초청 건축사회와 업무협약식, 엔젤가입 등 후원릴레이도 이어져

‘축구사랑, 대구사랑’이라는 엔젤정신을 기리고, 지역 각 전문가 단체와 축구스킨십을 확대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 1회 대구FC엔젤클럽회장배 초청축구대회가 6월16일 오후 2시부터 대구스타디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공정섬 대구건축사회 회장, 조광래 대구FC대표이사, 이호경 엔젤클럽회장을 비롯 엔젤과 지역 전문단체 축구동호인 그리고 가족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해의 경우 대구경북의사축구단(단장 정영철)의 엔젤클럽 단체가입 기념으로 친선경기를 가졌으나, 올해부터는 대회 명을 ‘대구FC엔젤클럽 회장배 축구대회’로 정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기로 했다. 이번 첫 대회는 대구건축사회 축구동호회(회장 최종준), 대구변호사 축구팀 저스티스(단장 김진형), 대구경북의사축구단, 대구중소기업식품발전협회(회장 권재원) 등 지역의 전문가 단체 4개 팀을 초청, 엔젤팀과 함께 모두 5개 팀이 첫 대회 우승 트로피를 놓고 치열한 경기를 펼쳤다.

축구경기에 이어 리셉션홀에서 열린 2부 행사에서는 대구건축사회(회장 공정섬)와 엔젤클럽간의 상호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두 단체는 앞으로 대구FC의 발전과 함께 축구를 통한 지역사회운동을 적극 펼쳐나가기로 했으며, 엔젤과 엔시오(엔젤소시오 : 소액후원엔젤회원) 확대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호경 회장은 “지역 전문가 단체의 모임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는 대구건축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게 되어 정말 기쁘다”며 “앞으로 보다 많은 전문가 단체와도 서로 협력해서 대구FC를 발전시키고, 축구를 통해 지역사회를 실천하는 ‘시티즌 오블리주’정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공정섬 대구건축사회 회장도 “엔젤클럽은 대구FC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버팀목이며 시민구단이 나가야 할 방향타”라며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앞으로 엔젤클럽의 홍보는 물론 회원확대에도 힘을 보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 우수트로피는 결승전에서 식품협회팀을 꺾은 건축사회팀이 차지했다. 최우수선수(MVP)는 건축사회 축구동호회 최종준회장이, 감독상은 같은 팀 이대희 감독이 각각 수상해 이날 협약식을 가진 대구건축사회에 경사가 겹쳤다.

최우수선수로 뽑힌 최종준 축구회장은 “수상을 떠나 오늘은 좋은 경기장에서 좋은 분들과 좋은 맘을 같이 흘린 즐거운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더욱이 축구를 통한 대구사랑이라는 엔젤정신이 담긴 뜻 깊은 대회를 마련한

엔젤클럽에 감사하며 앞으로 엔젤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아쉽게 첫 준우승을 차지한 식품협회FC 권재원 회장은 “월드컵 시즌을 맞아 월드컵이 개최된 대구스타디움의 잔디를 밟아볼 수 있는 자체가 영광이었다”며 “아울러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매너와 페어플레이도 대회의 수준을 높였다”고 말했다. 권회장은 “엔젤클럽이 이정도로 대구발전과 대구사랑을 위하여 힘쓰는 것에 감동받았다”며 “축구대회는 끝났지만 이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 회원들이 엔젤에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에 친선경기에 이어 이번 대회에도 참가한 의사축구단 정영철 단장은 “지난해와 달리 다양한 전문단체가 참가한 만큼, 다른 직업군의 전문인들과 함께 몸으로 부딪치며 축구로 스킨십을 하며 어울릴 수 있어서

좋았다”며 “엔젤이라는 것이 부듯하고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계속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축구사랑상’을 수상한 대구변호사회 저스티스 김진형 단장에게도 남다른 대회로 기억됐다. “엔젤클럽의 초청에 감사드린다”는 김단장은 “월드컵 경기장에서 축구를 하게 되어 매우 기뻛고, 특히 선수만의 축구경기가 아닌 가족들도 참가하여 대회를 즐길 수 있어 축구 저변확대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행사가 아니었나 생각한다”며 “이번 경기를 계기로 대구사랑 축구사랑의 엔젤정신을 회원들에게 홍보하여 엔젤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대회 참가 소감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2부 만찬에서는 가족과 함께 왔은 어린이들에게 대구FC사인볼을 선물하는 등 한마당 잔치분위기가 이어졌고, 문준기 엔젤(대경맥주 대표)이 수제 맥주를 후원하는 등 훈훈한 정이 넘쳤다.

제1회 엔젤회장배 축구대회 리뷰

엔젤과 함께 한 즐거운 축구스킨십!

엔젤에 대한 관심 고조, 성공대회로 평가



엔젤FC는 예선 성적 1승1패로 4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처음 발을 맞추는 멤버가 많았지만 눈빛으로 팀워크를 다졌다. 젊음과 조직력으로 다져진 정예 팀들 속에서 선발 출전 선수 11명의 합계 나이가 600살에 근접하는 엔젤팀은 노익장(?)을 과시하며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다.

전국 건축사 축구대회 우승 경력의 대구 건축사회 팀, 구력은 짧지만 정대세 급 선수를 폭풍 영입한 대구식품협회FC, 창단 4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구경북의사축구팀, 젊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구변호사 저스티스 등 어느 하나 만만한 팀이 없었다.

우승은 준비된 팀의 몫이었다. 풍부한 스쿼드로 프로팀을 방불케하는 위밍업은 시작부터 남달랐다. 감독의 지휘하에 이사분란한 행동으로 몸을 데운 건축사팀은 다른 팀의 모범이 되기에 손색이 없었으며 시합에서는

경기력으로 고스란히 묻어났다. 결승에서 젊은 선수들이 주축인 식품협회FC의 파위를 관록으로 제압하며 우승컵을 치켜들었다. 경기 후 시상식과 이호경 엔젤회장과 공정섬 건축사 회장이 체결한 협약식에서 장내 분위기를 주도하며 보여준 협조와 매너는 행사의 주인공으로 손색이 없었다.

성지 않는 몸으로 경기를 뛰며 엔젤의 위상을 높여준 출전 선수 한 분 한 분의 노고와 바쁨 속에 짬을 내 운동장에 오셔서 응원의 합성을 목청껏 높여주신 엔젤님들의 자발적 참여는 엔젤의 숨은 자산이었다. 엔젤 사무국의 헌신 덕분에 참가한 모든 팀들의 찬사도 이어졌다. 결코 부끄럽지 않게 조용히 대회를 준비하고 매끄럽게 진행한 것은 다른 어떤 조직에서도 본 적 없는 훌륭함이었다. 행사를 치를수록 원숙미를 더해가는 것은 엔젤정신의 산물이자 긍지였다.

대구FC 후반기 반등 위한 기원도 함께 담아

후반기 경기 준비에 바쁜 조광래 대구FC 대표이사도 참석하여 동반한 선수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 대구시 김형동 체육진흥과장은 직접 선수로 뛰며 호흡을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히 축구 경기로 끝나는 것이 아닌 대구FC의 하반기 반등을 위한 찻집의 마음으로 준비하고 정성을 들였다. 참가하는 한 팀 한 팀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초청하고 허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팀이 즐거운 가운데 엔젤 정신이 스며들 수 있도록 정성을 들였다.

덕분에 흥행과 성적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성공적 대회였다. 참가팀 모두 이구동성으로 다음 대회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했다.



안상영 대회진행위원장

대구스타디움에 다섯 천사가 떴다!

의사축구단 최주열, 김지은 부부 다섯둥이

시운·시윤·은유·시호·시안 재간에 웃음꽃 만발

엔젤클럽축구대회에 다섯 천사가 떴다. 주인공은 대구경북의사축구단 최주열(동아메디병원 내과과장), 김지은씨 부부의 최시운(11세), 최시윤(9세), 최은유(6세), 최시호(4세), 최시안(2세) 다섯 동이다. 해맑은 다섯 천사들이 공을 차며 이리저리 뛰어다닐 때 마다 그라운드 곳곳에 웃음꽃이 폈다. 대회 참가자들도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에 한동안 행복에 젖었다. 아이들과 함께 경기장에 오고 싶었던 최과장의 얼굴에도 아뵤 미소가 한 가득이다.

다섯 천사의 아빠인 최과장은 예전부터 아이를 많이 갖고 싶었다. 아들 두 형제였던 최과장은 딸이 하나 더 있으면, 3남매가 되어 보기에 좋고 외롭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섯 천사의 엄마 김지은씨는 더 동화적이다. 영화 '나니아 연대기'를 좋아했던 그녀는 영화처럼 4명의 천사 같은 아이들을 서른 전에 갖고 싶어 했고, 그 꿈을 이뤘다. 여기에 서로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던 부부는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이동국 선수처럼 다섯둥이까지 얻게 됐다. 하늘이 준 선물이었다. 이 과정에서 최과장도 최과장이지만, 아내 김지은씨가 더 대단하다. 그 어렵다는 소아과 전문의 수련 과정에서 아이 3명을 낳았던 것이다. 공부하랴 아이 낳고 키우랴, 힘든 일상 속에서도 씩씩한 모습으로 과정을 무사히 마쳤다. 그녀가 다닌 영남대의대에 전설이 될 정도였다. 물론, 부부는 같은 학교 출신은 아니다. 경북대 출신인 최과장은 캄보디아 의료봉사를 갔다가 김지은씨를 만나 결혼까지 이르게 됐다.

부부는 다섯둥이를 가지는 데 그치지 않았다.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갖기 위하여 아파트에서 마당이 있는 집으로

옮겼다. 특히, 김지은씨는 첫째와 둘째를 키울 때 함께 하지 못한 때가 많아 마음이 아팠다.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겠다고 다짐한 그녀는 소아과 전문의를 따자마자 미련 없이 직장을 구하지 않고 아이들을 택했다. 그런 아내가 최과장은 늘 고맙고 감사했다. 가정적인 최과장이지만 축구에 대한 사랑도 남다르다. 대구FC 경기를 가족과 함께 관람하는것은 물론, 3년 전부터 자신이 다니는 해아림교회의 젊은 아빠들을 중심으로 시작한 DEEM FC에서 '야간 축구'를 즐긴다. 모두들 아이를 재운 뒤 밤 10시가 돼서야 풋살장에 나타나 자정까지 축구를 한다. 아들 야간 축구족은 아이들이 크면 '시즌 2'로 아이들과 함께 축구를 할 계획이란다. 이 때문인지 최과장은 첫째와 둘째아이에게 축구를 시킨다. 물론, 선수가 목적은 아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라고 취미로 시킨다. 그래서인지 대회 당일 운동장에 나온 아이들은 너무 신이 났다. 유니폼과 축구화까지 갖춰 잔디밭을 내달리며 마냥 행복해 했다.

가족과 함께 여서 인지 최과장도 더 행복했다. 특히, 얼마 전 월드컵대표팀 평가전을 보러 온 탓에 그 경기장에서 직접 뛰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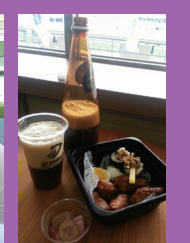
이런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준 엔젤클럽에 감사한다는 최과장은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여하는 엔젤클럽의 정신에 늘랐고 한편으로는 이처럼 의미 있는 엔젤이 아직까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게 안타깝다"며 "앞으로 엔젤정신과 활동이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엔젤축구대회 이모저모

- ❖ 백무연 엔젤의 조카 손녀가 엔젤 축구대회에 응원하러 왔다가 '축구소녀'의 자질을 마음껏 발산했다. 조광래 대구FC대표이사로부터 사인볼을 받은 이 꼬마아가씨는 축구선수가 되겠다고 온 운동장을 뛰어다녔다.
- ❖ 당초 대회에 참석키로 했던 김성관 엔젤이 급한 출장으로 출전하지 못하면서, 아버지와 아들간의 맞대결이 무산되었다. 김성관 엔젤은 지난 6월2일 엔젤FC 예비소집에 참석, 식품협회FC 선수로 출전할 두 아들 김진철, 김진규와 대결을 준비했으나, 바쁜 일로 참석하지 못했던 것. 김진규씨는 "축구를 좋아하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형과 함께 축구를 하고 있다"며 "이번 대회에 참가하게 돼 영광이며 엔젤인 아버지가 존경스럽다"고 말했다.
- ❖ 평소 '미숙표 김밥'으로 엔젤의 입맛을 달랜 김미숙 엔젤이 당일 갑작스런 일로 늦게 경기장에 나타나면서 미처 점심을 못 챙긴 엔젤들의 원성이 자자했다. 모 엔젤은 당연히 미숙표 김밥과 계란이 있을 줄 알고 점심을 안먹고 왔는데, 이럴 줄은 몰랐다며 하소연했다. 김미숙 엔젤은 이 소식을 듣고 오후 다른 일정을 모두 접고 나타나 엔젤로부터 다시금 존재감을 입증했다.
- ❖ 엔젤FC로 선발 출전한 이호경 회장과 김형동 엔젤이 교체 되자마자, 선수교체에 문제가 있었다며 감독에게 뒷담화를 하며 한편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는데... 이날 내심 선전을 노렸던 엔젤FC는 첫 경기에서 제대로 풀리지 않자, 감독이 이호경, 김형동 엔젤의 교체를 실시한 것. 하지만, 선수교체 후 내리 2골을 내주자 밖에서 이를 지켜보던 이호경, 김형동 엔젤은 안도의 한숨(?)과 함께 선수교체의 문제를 지적했다는 것.
- ❖ 올해 첫 골키퍼로 출전한 최태원 엔젤은 팀의 위기 상황에서 선방쇼를 펼치며, 대구FC의 조현우를 방불케 하는 맹활약을 펼쳤다. 특히 변호사팀과의 경기에서 1 대 0으로 아슬아슬한 리드를 이어가던 엔젤은 결정적인 찬스에서 최태원 엔젤의 몸을 사리지 않는 선방으로 첫 승을 거둘 수 있었다.
- ❖ 남해 전지훈런 등 후반부 리그 준비 중인 조광래 대구FC 대표이사가 바쁜 일정에도 직접 경기장을 찾아, 엔젤들을 응원하고 사인볼을 나눠주는 등 축구사랑을 펼쳐, 대회 분위기가 한층 고조됐다. 대구FC는 최근 특급 외국인 선수들을 잇달아 영입하는 등 후반부 리그 반등을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 ❖ 이날 엔젤축구대회에는 문준기 엔젤(대경맥주 디퍼스트 대표)이 후원한 대구수제 맥주로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지난 홈경기에도 대구의 맛을 자랑하는 수제맥주를 후원한 문준기 엔젤은 이번에도 바쁜 일로 직접 참석하지 못하지만, 대구 수제 맥주로 응원을 대신한다고 밝혔고, 참석자들의 최고의 맛이라고 극찬하기도 했다.

이호경



영국에서 바라본 대구FC 엔젤클럽

“지난달 24일(토) 한국 대표팀은 북아일랜드에 1대2로 아쉬운 역전패를 당했다. 경기가 열린 곳은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에 위치한 원저파크 경기장.

경기가 한창 펼쳐지던 중 뜻밖의 광경이 TV중계 화면 속에 잡혔다. '대구은행'이 선명하게 적힌 유니폼이 관중석 한쪽에 걸려있었던 것이다. 대구를 연고로 하는 프로축구팀 대구FC 유니폼임이 틀림없었다. '뭐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도대체 어떤 팬이길래 머나먼 북아일랜드의 벨파스트에서 대구 유니폼을 딱하니 걸어놓은 것일까?” - 대구FC매거진 꼴 중에서

영국리포트

지난 3월, 한국 대표팀과 북아일랜드가 평가전을 가진 벨파스트 원저파크 경기장에 나타난 대구FC 유니폼의 주인공 정무열씨 (경북대 졸업, 영국 유학 중). 최근 그가 유럽축구문화와 함께 영국에서 본 엔젤클럽현상을 글로 작성해 엔젤클럽으로 보내왔다. 정씨는 대구FC의 열렬한 지지자이자, 평소 엔젤클럽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던 축구팬이다. 전공 공부를 위해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지만, 축구에 대한 사랑은 더 뜨거워졌다. 엔젤매거진도 1,2,3호를 받아보고 일일이 다 읽어볼 정도다. 특히, 정무열씨는 엔젤클럽 영국지부를 만들어 축구본토에 엔젤을 홍보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 이 소식에 사무국에서는 곧바로 '엔젤재킷과 깃발' 등을 보내기로 했다. 앞으로 정무열씨가 이끄는 엔젤클럽 영국지부의 활약을 기대하며 그의 영국발 축구리포트를 매거진에 신고자 한다.



떠난 후에 ‘우리 팀’의 소중함 절감 ‘대구FC’와 ‘엔젤클럽’ 당연하지만 소중한 가치

지난해 가을, 정은 고향 대구를 떠나서, 이역만리 영국에 정착한지 벌써 8개월에 접어들고 있다. 적지 않은 나이에 혈혈단신으로 떠난 유학이라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하다 보니 어려움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이 또한 인생에서 소중한 배움의 시간이라 생각하고 즐기려고 노력 중이다. 그런데 한 가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내가 지지하는 대구FC에 대한 갈증이다. 우리는 일상에서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없을 때, 비로소 소중함을 느낀다고 했는가? 늘 내 인생에서 동반자와 같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대구FC 구단이지만, 더 이상 옆에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나니 얼마나 구단을 사랑했고, 내게 소중한 존재였는지 다시 한 번 뼈저리게 느낀다.

흔히들 내가 영국에서 공부한다고 하니, 내 주변 지인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축구 좋아하더니 영국 갔네”, “축구 많이 볼 수 있겠구나”, “프리미어리그 볼 수 있어서 좋겠다” 등의 부러움 섞인 이야기들이다. 축구 종주국답게 지역단위의 하부리그부터 프리미어리그까지 리그는 잘 갖추어져 있지만 현실은 유학생인 나에게도, 또 현지 영국인들에게도 최상위리그인 프리미어리그를 마음껏 직관하기란 쉽지 않다. 프리미어리그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인기 있는 리그 중의 하나로, 많은 이들이 직관하기를 희망한다. 축구 티켓은 경기장의 규모와 팀의 유명도에 따라서 가격대도 팀별로 천차만별이나 현장에서 정가에 티켓을 구매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설령 티켓을 정가에 구한다고 하더라도 그 가격이 성인 1인 기준으로 평균 30파운드 (한화 45000원 정도) 이상이므로, 유학생의 입장에서 매 경기를 간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더욱 놀라운 것은 현지의 축구팬들도 매 홈경기를 갈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한 영국인의 말은 창단 이래 대구FC를 응원하며 흠, 원정 가리지 않고 경기장을 가던 나에게는 큰 울림이 되어 내 머릿속을 계속해서 맴돌았다.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 시즌권의 가격이 거의 100만원에 이르는데다

경기장 좌석의 수도 일부 빅 클럽들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작은 2만석 내외의 규모이므로 티켓 구입 경쟁도 꽤 치열하다. 이처럼 프리미어리그의 높은 인기는 영국 내에서 산업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한국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우리 또한 존재하고 있는 현실이다.

프리미어리그 세계자본 유입으로 정체성 잃어 최근 ‘우리동네, 도시’ 대표하는 구단지지 받아

과거 우리 동네, 도시를 대표하는 팀에서 출발해 이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기 구단과 인기 리그로 발돋움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의 자본이 프리미어리그에 스며들고 있다. 하지만, 우리 도시를 대표하는 축구단이 다른 나라 자본가들에 의해 소유되는 구단으로 바뀌어가며 현지 팬들이 배척되는 상황 역시 일어나고 있다. 이들은 좀 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세계시장을 공략하면서,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들이 필연적으로 티켓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현지 팬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된다. 실제로, 내년 시즌 신축 구장 개장을 앞둔 토트넘의 시즌티켓 중 가장 싼 좌석(제한된 시야)이 795파운드(한화 약 120만원)이며, 평균적으로 1000파운드(한화 약 150만원)를 상회하는 가격이 발표되자 많은 축구팬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구단주인 마이크 애설리는 2011년 뉴캐슬과 영국축구의 상징적인 축구장인 세인트 제임스 파크 경기장의 이름을 자신의 기업명을 포함한 이름으로 변경하였다가 팬들의 반발에 부딪혔으며, 2012년 영국 내의 다른 기업이 경기장 네이밍 권리 구매 및 스폰서십 체결을 통하여 다시 세인트 제임스 파크로 변경함에 이르렀다(그러나 사실 네이밍 권리를 구매한 회사와의 거래도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유는 이 회사가 대부업체이며,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향후 또 변경 될 가능성도 있어 비난 받고 있다). 올 시즌에 보도된 BBC 뉴스 자료에 따르면, 2017-2018시즌에는 시즌티켓의 약 80%가 가격이 직전 시즌과 비교하여 동결되거나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82%의 20대 초중반의 젊은이들은 높은 티켓 가격이 축구를 보러 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한다고 꼽았다. 일각에서는 현재 추세로 가다가는 프리미어리그에는 나이드 영국 중장년층 팬과 해외에서 온 관광객들로 관중석이 가득 찰 것이라는 자조 섞인 조롱 또한 심심치 않게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러한 세계의 거대자본 등장과 자본가에 의한 독단적인 구단 경영은 그동안 노동자, 서민층을 대변하는 축구에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제 팬들의 관심과 시선은 진정한 동네 팀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팀들은 내가 살고 있는 동네, 도시를 대표하면서 동시에 지역 주민들에게 건전한 여가 활동의 공간과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끼리 함께 소통하고 호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대구FC 시민구단으로 출범했으나 침체 최근 엔젤클럽, 전용구장 등으로 새로운 변화

우리 대구FC 구단은 2002년 월드컵의 대성공 이후 프로축구팀의 열망을 담아 시민주 공모를 통해 탄생한 대한민국 최초의 시민구단으로 높은 기대 속에 시작하였지만, 대구 지역경제가 부진을 겪는 것처럼, 16년이 흐른 지금까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 채 침체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바야흐로 이제 대구FC는 전용구장 및 클럽하우스 건축 등 외연적인 변화와 함께 “엔젤클럽”이라는 내적 변화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대구는 임진왜란 이후 경상감영이 처음으로 설치되면서 영남권의 행정, 경제 중심 도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구한말에는 “국채보상운동의 발상지”이자 “항일운동”에도 앞장섰던 중심지였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화,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최근에는 경제 문화적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고 답기만 하고 즐길 것 없는, 보수적인 도시라는 오명을 쓰고 있었다. 이러한 대구를 발전시키는 데에는 “관”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대구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시민 한명 한명에서 시작되는 “아래로부터의 변화”이다. 그리고 현재 이 변화를 시작하고 주도하고 있는 곳이 바로 대구FC와 엔젤클럽이다. 내가 사는 대구를 대표하는 대구FC를 함께 응원하면서 그 속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와 발전 방안을 고민하고 노력하는 엔젤클럽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자발적인 대구 살리기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고백하자면, 2015년 처음 엔젤클럽이 등장했을 때만 해도 이 정도로 성공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작년 목표시기를 훨씬 앞당겨 엔젤 회원이 1004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놀랐고 엔젤클럽이 잠자던 대구시민을 깨우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시티즌 오블리제”의 엔젤클럽 정신을 널리 퍼뜨려서 내 고장 대구가 더욱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를 기대하며, 또 그 중심에는 대구FC가 진정으로 시민의 팀으로 자리 잡아 주기를 기원한다.



축구를 통한 지역발전 모색 엔젤클럽에 관심 많아 대구로 돌아가면 청년엔젤 ‘엔시오’ 일원 희망

필자 또한 대구FC와 내 고장 대구를 사랑하고 아끼는 대구시민으로써 아직은 엔젤클럽에 가입하여 활동하기엔 어려움이 많지만, 이러한 우리 지역사회를 튼튼하게 지탱하는 엔젤클럽의 활동에 누구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또한 이곳 영국에서도 축구장을 갈 때 대구FC 머플러를 메고, 대구유니폼을 입고 다니는 등 대구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앞으로도 대구를 대표하는 “대구FC”를 통해서 수많은 엔젤들이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되고, 이렇게 설립된 엔젤클럽이 대구FC와 내 고장 대구를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언젠가 내가 다시 대구에 돌아 갈쯤에는, 엔젤클럽의 정신을 바탕으로 더욱더 발전해 있을 대구FC와 대구를 만날 날을 그려본다. 또 앞으로도 대구를 사랑하는 많은 시민들이 엔젤클럽의 활동에 참여하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청년들의 취지를 살린 엔젤클럽 엔시오의 일원이 되길 희망한다.



엔젤클럽 영국지부장 정우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엔젤! 우리시대의 위버멘쉬(Übermensch)”

대구를 바꿔보겠다는 순수한 '아이', 그것이 바로 '엔젤'

엔젤인(人), 특히, '열혈(熱血)엔젤'들을 보면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겉보기에는 장군처럼 큰 덩치에 남다른 지위를 갖고 있으면서도, 사진 촬영용 말에 올라타서 '아이'처럼 웃으며 사진을 찍는가 하면, 원정 경기에서는 선글라스 끼고, 메가폰 쥔 채 골목대장처럼 응원단장이 되어보기도 합니다. 기(氣)가 좀 좋다는 명당자리에서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대구FC승리'를 위하여 정성 들여 기도도 하고, 꼴이 터지면 '좋아라' 아이처럼 손가락으로 'V'자를 표시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보면 엔젤은 그 이름처럼 순수한 '아이'와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의 위대함을 노래 한 사람은 독일의 시인이자 철학자인 '니체'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니체를 잘 아는 건 아닙니다. 니체하면 가장 잘 알려진 저서가 바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인데요. 저는 학창시절 품 잡을 시늉이라도 하려고, 이 책을 가방에 넣어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몰랐지만, '글을 쓰려면 피로 써라. 그러면 너는 피가 곧 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와 같은 열정에 사로잡힌 문장을 일기장에 베껴 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차라투스트라'가 세계사 시간에 배운 '조로아스트르'의 창시자라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흉내내듯 건성으로 읽고는 잊고 있었던 게 바로 그 책이었습니다.

정작 '차라투스트라' 선생이 던지는 메시지가 육화되어 들어온 것은 우연찮은 순간이었습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영업달인 H님의 절절한 체험담을 들으면서 머리가 정화되는 듯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영업인들이 일선에서 느끼는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영업 달인 H씨는 뜬금없이 '차라투스트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역시 현장의 고수다운습니다. 제가 개념적인 문구에 도취되어 흘러버린 이야기를 그는 '우화'를 예로 들어 정확하게 잡아내고 있었습니다. '낙타', '사자', 그리고 '아이' 이야기였습니다. 웬 '낙타, 사자, 아이'이야기인지 의아했습니다. 읽었던 기억도 가물가물했습니다. 하지만 우화 같은 그 이야기에서 저는 '두려움'과 그 '두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리고 '아이'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렵게나마 이해 할 수 있었습니다.

'차라투스트라와 엔젤' 이렇게 말했다! 낙타, 사자, 아이 그리고 엔젤

차라투스트라는 '인간 정신의 변신' 이야기를 하면서 낙타와 사자, 아이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먼저 '낙타'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사막을 건너야 합니다. 'ought to', 즉 '해야 만 한다'는 정신세계를 뜻합니다. 차라투스트라는 '낙타는 무엇이든 잘 견뎌내지만 이와 같은 정신을 지닌 자들은 자신의 삶을 더 높은 차원으로 고양시키지 못한다.'고 비판합니다. 행복하지 못한 것이지요. 다음 단계는 '사자'의 정신세계입니다. 밀림의 왕 사자는 '하고 싶은 것'을 합니다. 바로 'want to'의 세계입니다. 그에게는 자유가 있지요. 누구의 명령도 따르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의 욕망을 신뢰하겠다는 것입니다. 니체는 자유를 누리고자 한다면 낙타의 정신에서 사자의 정신으로 변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자의 정신을 지니려면 우리는 수많은 위협과 유혹을 이겨 내야 합니다. 이는 분명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이처럼 사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만, 그만큼 힘들고 고독한 길을 걷게 됩니다. 사자 역시 자유롭지만, 그의 얼굴에 난 상처로 보아 행복한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라투스트라는 '아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밀림의 왕' 사자의 다음 단계가 '아이의 정신세계' 라고 합니다. 좀 의아했습니다. 밀림의 왕이며 자유로운 사자의 정신세계 보다 아이의 세계가 더 행복하다니요! 차라투스트라는 “‘아이’는 과거에 얽매이지도 미래를 기다리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저 오늘을 즐긴다는 것이지요. 다만 이 순간을 행복해 한다는 것입니다. 영업의 달인은 이 3단계의 정신세계를 영업에 비유했습니다. 처음엔 영업을 '해야만 하니'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낙타의 단계인 것이지요. 그 단계를 넘어서면 '영업을 하고 싶어'하는 단계에 이른다고 합니다. 누군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want to'하려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자체를 즐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만 한다는 것은 하기 싫은 것도 있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세상 살면서 어디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완전한 행복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이 '아이'의 단계입니다. 바로, '즐긴다는 것'이지요. 영업을 하는 것도 즐겁고 고객을 만나는 것도, 그리고 거절을 당하는 것도 즐거우니 천국이 따로 없다고 합니다. 저는 영업달인의 육화된 이야기를 듣고서야 비로소 차라투스트라의 메시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니체가 이야기한 초인, 즉 '위버멘쉬(Übermensch, overman)'의 메시지를 비로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위버멘쉬'는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세계를 긍정하는 존재입니다. 차라투스트라가 말한 낙타-사자-아이의 변신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긍정'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우화라고 합니다.

니체가 엔젤을 봤다면...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세계를 긍정하는 존재' 대구의 '위버멘쉬(Übermensch, overman)'

엔젤도 그런 것 같습니다. 몇 해 전 마치 '독립운동' 하는 마음으로 모 일식집에서 몇몇 뜻있는 시민들이 모여 엔젤을 '해야만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야만 하는 의지'로 천사대이를 돌파했습니다. 이제는 사자, 즉 엔젤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변신해야 합니다. 이 단계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많은 엔젤 분들이 엔젤을 원하고, 배지를 달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단계인 '아이'는 아마도 '엔젤'과 가장 잘 맞는 이미지가 아닌가 합니다. 엔젤과 '함께 하는 것'도 즐겁고, 엔젤을 '릴레이 하는 것'도 즐겁고, 설혹 거부를 당해도 즐거운 단계 말입니다. 그저 엔젤이어서 '아이'처럼 좋은 단계. 앞서 말씀 드린 열혈의 엔젤은 바로 이 '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회에서 이 바닥 저 바닥 다 경험해 보신 분들 같은데, 어쩌면 저토록 '천진난만'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언젠가는 '엔젤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경기장이 엔젤들로 가득 찰 날을 꿈꾸며 아이처럼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고 적잖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엔젤 이야기 하는 자체를 즐기고, 자부심을 갖고, 그러다 보니 만나는 사람마다 엔젤을 전파하는 삶이 행복한 것 같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더라도 배넘치 않고, 언제나 행복한 미소를 보였지요. 한마디로 그 분들이 '엔젤' 그 자체를 즐기는 엔젤의 '위버멘쉬', 초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그 분들의 '천진난만함'은 이제 '엔젤'이라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엔젤이 니체가 말하는 인간 정신의 최상위 단계인 '아이'의 단계가 될 때, '시티 오브 엔젤', '시티 오브 조이'이 도시가 완성될 것입니다. 만약, 차라투스트라가 현존 한다면 아마도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엔젤! 축구를 통해 대구를 바꾸겠다는 순수한 아이, 우리시대의 위버멘쉬'라고 말입니다. 

아름다운 대구·경북을 위해 금복재단이 함께 달려합니다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50억 후원
무료급식, 사랑의 쌀 지원 등 복지시설 후원
대구·경북 체육 성금 및 독도 후원금 지원
청소년 및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
금복문화상 시상 및 예술인 후원
대구·경북 세계물포럼 후원



금복문화재단 금복복지재단 금복장학재단

경고: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대구FC 엔젤클럽 동정



2018년 첫 운영이사회 개최

2018년 3월 7일

2018년 대구FC엔젤클럽 첫 운영이사회회가 3월7일 오전 7시 호텔 인터볼고 대구 더 뷔페에서 열렸다. 이날 집행부에서는 총회일정을 공지하고, 3월10일 대구 홈개막전에 많이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2018년 정기총회

2018년 3월 10일

대구FC엔젤클럽 2018년 정기총회가 3월10일 오후1시 대구스타디움 엔젤룸에서 열렸다. 임원 등 60여명의 엔젤들이 참석, 2018년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엔젤들은 정기총회 후 관중 1만 3천명과 함께 수원삼성과의 홈개막 경기를 관람하고 대구FC를 응원했다.



대경연구원 자문회의 참석

2018년 3월 14일

강병규 엔젤클럽 운영부회장은 3월14일 오후 3시 호텔 인터볼고 대구 퍼스트 라운지에서 대구경북연구원(원장 이주석) 연구원들과 '대구FC엔젤클럽 지속가능한 활성화 방안 연구'를 위한 자문회의를 가졌다. 대경연구원은 대구시의 의뢰로 7월까지 대구FC엔젤클럽의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2018 R리그 응원

2018년 3월 27일

이호경회장, 안상영 상임이사는 3월27일 오후 2시 대구스타디움 보조구장에서 열린 2018 R리그(2군리그) 홈 개막전에 참석, 경기를 관람하고 선수들을 격려했다. 이 날 대구FC는 대전시티즌을 맞아, 전후반 득점없이 0:0 무승부를 기록했다.



대구FC 엔젤클럽 동정



영남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2018년 3월 30일

대구FC엔젤클럽(회장 이호경)이 3월30일 영남대학교(총장 서길수)와 지역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영남대 총장 접견실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 체결식에는 영남대 서길수 총장과 대구FC엔젤클럽 이호경 회장, 강병규·엄태건 부회장 등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단체응원 국군장병 지원

2018년 3월 31일

이호경 대구FC엔젤클럽 회장이 3월31일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대구FC와 전남드래곤즈와의 경기에 단체응원 온 국군장병에게 음료수 등을 제공하며 고마움을 전달했다. 이회장은 앞으로도 자주 경기장을 찾아 군생활을 더 의미있게 하고, 대구도 사랑해달라고 말했다.



2018년 1차 이사회

2018년 4월 4일

대구FC엔젤클럽 2018년 1차 이사회가 4월4일 오전 7시 호텔 인터볼고 대구 더뷰페 룸에서 열렸다. 이호경 회장 등 10명이 참석, 그룹간담회 및 후원금 납부활성화에 대해 토의했다. 엔젤클럽은 앞으로 이사회와 함께 운영이사회의 등을 통해 클럽 전체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합동 워크숍

2018년 4월 20일

대구광역시, 대구FC, 엔젤클럽 합동 워크숍이 4월20일 오후 3시부터 5시간동안 호텔 인터볼고에서 열렸다. 이날 대구시, 구단, 엔젤클럽 등 유관기관에서 13명이 참석, 대구FC엔젤클럽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다.



대구FC 엔젤클럽 동정



MBC문화원 골프대회 참석 및 엔젤 홍보

2018년 4월 24일

대구FC엔젤클럽이 4월24일 오전 10시 경산 인터볼고CC에서 열린 MBC문화원 총동창회 골프대회에 참석, 엔젤클럽 홍보와 회원확대에 나섰다. 이날 이호경회장 등 엔젤들은 엔젤매거진 등을 나눠주고 기념촬영을 하면서 엔젤을 홍보했다.

메인비즈골프대회 참석 및 엔젤 홍보

2018년 4월 30일

엔젤회원들이 4월 30일 오전 10시부터 대구 팔공CC에서 열린 메인비즈골프대회에서 참가자를 대상으로 엔젤홍보에 나섰다. 회원 중 엔젤들은 기념촬영의 하고, 클럽의 발전을 기원하며 매거진과 홍보물을 배포했다.



경북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2018년 5월 2일

대구FC엔젤클럽은 5월2일 오후 3시 경북대 본관 제1회의실에서 경북대학교(총장 김상동)와 지역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대구FC 프로축구단의 발전과 지역 스포츠 활성화 및 건전한 스포츠 문화 정착에 상호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호경 회장, 티브로드 대구 사랑방 녹화

2018년 5월 9일

대구FC엔젤클럽 이호경회장이 5월9일 티브로드 대구방송 사랑방 대담프로그램에 출연 엔젤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녹화했다. 본 방송은 5월26일 방영됐으며 여러 차례 재방송되는 등 엔젤의 가치와 활동을 널리 알렸다.



대구FC 엔젤클럽 동정



영남일보 국제하프마라톤 참석 및 엔젤 홍보 2018년 5월 13일

엔젤 20명이 5월13일 열린 영남일보 국제 하프마라톤 대회참석, 건강도 챙기고 엔젤의 존재감을 알렸다. 이날 엔젤들은 엔젤깃발을 들고 대회에 참석했으며, 출발선에서 엔젤활동을 적극 알렸다.

대가대 미래지식포럼 상견례

2018년 5월 21일

대구FC엔젤클럽은 5월21일 레드피아노에서 대구가톨릭대 미래지식포럼과 상견례를 개최했다. 이날 상견례는 금윤식엔젤이 주선하고 이호경 엔젤회장이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박순복 미래지식포럼원장, 허성규 동문회장과 객진섭 직전회장, 조득환, 윤종현, 백무연 회원들이 참석했다.



최태원 엔젤 울원중학교 선수 응원 2018년 5월 28일

최태원 엔젤은 5월28일 탄금대 축구장에서 열린 47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축구 남자 중학부 예선전인 대구FC U15유스팀 울원중학교와 금산중학교와 경기에 참석 응원선수들을 격려했다. 울원중학교는 창단 후 첫 소년체전에 진출했다.

국제로타리 3700지구와 협약식

2018년 5월 28일

국제로타리 3700지구(차기총재 반응석)와 대구FC엔젤클럽(회장 이호경)이 5월28일 오후 4시 대구시 중구 로타리 클럽 사무국에서 협약식을 갖고, 시민구단 대구FC의 활성화와 스포츠를 통한 지역봉사를 위해 상호 협력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반응석 차기총재를 비롯, 9개 총재 지역대표가 참석하였으며, 엔젤클럽에서는 이호경회장과 부회장, 상임이사 등이 참석해 협약의 뜻을 함께 했다.



대구FC 엔젤클럽 동정



대구가톨릭대학교와 업무협약식

2018년 6월 4일

대구FC엔젤클럽은 6월4일 대구가톨릭대학교와 업무협약식을 갖고, 지역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협력기로 했다. 이날 학생처장 조극래 교수 엔젤회원으로 가입하기도 했다.

엔젤클럽, 넥센-세인트나인 골프대회

2018년 5월 29일

엔젤클럽, 넥센-세인트나인배 골프대회(대회장 이호경)가 5월29일 팔공CC에서 성공리에 열렸다. 이날 이호경 회장 등 엔젤 40명 등이 참석했으며 엔젤부스를 설치하고 홍보했다. 이날에만 3명의 신입엔젤이 탄생했고, 우승은 엄태건 엔젤본부 부회장이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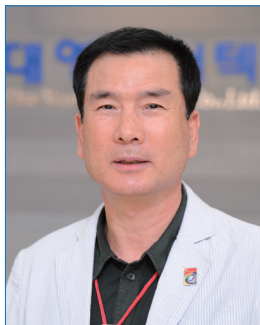
대구FC 엔젤클럽 명단

다이아몬드 엔젤

※ 본 명단은 가입 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삼보모터스(주) 이재하



대영코어텍(주) 정태호



(주)태왕이앤씨 노기원



(주)서한 조종수



삼익THK(주) 진영환



한국OSG(주) 정태일



(주)세신정밀 이익재



대홍코스텍(주) 진덕수



SL(주) 이충곤

엔젤클럽 자문위원단

※ 본 명단은 가나다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권오섭	(주)청구푸드시스템 대표이사	송준기	지산치과원장
김성열	(주)아나 대표이사	엄달현	(주)태창엔코 대표이사
김영채	안정회계법인 대표	이병훈	(주)대구스텐레스 대표이사
김충환	김창준한미래재단	장익현	덤프이사장 / 前 대구변호사회회장
남성희	대구보건대학 총장	조종수	(주)서한 대표이사
도재영	(주)웅진기업 대표이사	주대중	함창장학재단이사장
박명수	명진금융 대표	진덕수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구경북지회장
박병구	대구미술협회장	진영환	삼익THK 회장
박순복	대가대 미래포럼 원장	천자우	(주)에슬린 대표이사
박영석	대구문화재단 대표	하윤수	한국공조 대표
박윤경	KK주식회사 회장	하준수	대구가톨릭대학 부총장
반용석	반치과 원장	하홍만	명성골프 대표이사

대구FC 엔젤클럽 명단

※ 본 명단은 가나다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성명	소속	성명	소속	성명	소속
강민수	세영회계법인	권정미	에스라인 포톤 테라피	김병찬	건축사무소한동
강병규	세영회계법인	권준호	권준호 법률사무소	김상걸	(주)미래세한 감정평가 법인 대구지사
강병균	에나멜치과 기공소	권혁	대구경북인재개발원 철금	김상덕	부경TS
강병호	(주)신경일염직	권혁기	(주)산동개발	김상도	(주)셀피고
강보철	일진수지	권혁준	요셉 성형외과	김상섭	(주)티브로드 대구방송
강삼동	(주)에이치	권호겸	(주)풍림	김상수	청운신헌
강성길	(주)디자인비전	금윤식(법일)	(주)폴든브릿지	김상완	(주)한백종합기술공사
강신일	(주)대영에코건설	김갑태	(주)아름	김상우	세무법인 대한
강영철	에스에스엘엘(주)	김강수	푸르덴셜	김상원	부호채어원(주)
강은주	한국일보	김경태	리더스금융판매(주)센트럴	김상호	(주)내일건설
강은희	대구광역시 교육감	김고용	(주)명종스틸	김성훈	(주)모던테크
강의원	(주)일신건설엔지니어링	김관식	더나은요양병원	김석	삼익아스콘(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시회장)
강일규	대서산업(주)	김광덕	대구시 자격 연맹회장	김석호	한도식품
강일만	(주)세신엔지니어링	김광배	(주)디에스종합건설	김선일	(주)상일종합관리
강정숙	(주)동재건설	김광수	(주)한맥장호	김성곤	호텔 인터볼고
강정영	뉴스웨이 대구경북 본부장	김국경	(주)세영디앤씨	김성관	이슬나라
강준기	(주)포머스	김규일	(주)세원이앤지	김성렬	(주)대성건설
강철원	(주)에일커뮤니케이션즈	김규정	삼성생명	김성열	(주)아나
강태중	(주)한도엔지니어링	김규혁	(주)포이즈시스템	김성준	G&B오도모빌(주)
강해구	경민테크	김기섭	덕수복지재단 미소마을	김성호	(주)성산종합건설
고경집	부부엔젤	김기완	경북염료	김성희	(주)오상인터네셔널/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
고민환	주식회사 상산건설	김기철		김세종	(주)천궁산업개발
고백희	디자인 '감'	김길복	대가대 미래포럼 리더스 클럽	김세중	비즈니스컨설팅트
고삼규	보광병원장	김길생	(주)동화주택	김숙현	세원 공인중개사
공영우	동성건설	김남호	티원창호	김순조	삼성생명
공윤옥	신진회계법인	김나나		김승근	대구일보
공인옥	(주)백향에스엔피	김대경		김승찬	대구경북디자인센터
곽기철	지우C&D	김대엽	(주)대영레테크	김승필	(주)삼성프린팅솔루션
곽덕섭	(주)태명건설	김대윤(용운)	(주)태시시스템창호	김시보	백두산업
곽동호	곽치과병원	김덕신	(주)우진비철	김시승	(주)다원
곽신혁	Eco Farm(주)	김덕영	성서연합외과의원	김영규	김영사종합상사
곽재환	(주)중산도시개발	김도현	(주)한국신재생에너지	김영만	홀인원 로스트볼
곽재훈	운경재단	김동구	금복주	김영숙	대구보건대학교 대외협력실
곽준성	삼성전자	김동국	DK 글로벌 코리아	김영식	영진전공
곽진섭	(주)금오조경	김동규	(주)범서	김영업	지디종합건설(주)
구건우	PR 네트웍스	김동섭	대구가톨릭 대학교	김영주	주식회사 경북합판
구명임	(주)크린포시스템	김동용	(주)씨엠	김영준	법무법인 중원
구미숙		김동우	월드퍼스트	김영재	안정회계법인
구분도	렉서스 대구	김동읍	(주)조광종합포장	김영택	일월건설
권경훈	강북연합정형외과	김동재	골마켓	김영화	(주)영화
권광	행복을 심는 치과	김동조	플레이위즈	김영희	구병원
권대열	(주)부원	김말분	부부엔젤	김오동	명진종합건설(주)
권병규	화인산업	김명수	대남건설	김완준	(주)제이아이디
권병균	행복을 심는 치과	김명용	(주)명성	김용규	창녕 참우 축산
권상현	홍전사(주)	김명웅	DGB생명 AM사업부	김용범	(주)에스알
권석원	동진건설(주)	김무길	삼성전자 무비스 B2B	김용봉	(주)와이즈리
권성숙	결혼정보회사 바로연대구지사	김묵진	대구고등검찰청	김용식	(주)정맥산업
권시원	(주)중산도시개발	김미숙	(주)주원	김용찬	(주)보광건설
권엽	대구테크노파크	김민석	(주)서한	김우일	김샘 대표
권연숙		김민선	의사회사포터즈	김유석	경북대학교
권오상	변호사	김민지	스피치김교육	김윤곤	부성주식회사
권오섭	(주)청구푸드시스템	김민태	제이와이 건설	김윤찬	CREDIT AGRICOLE Investment Bank
권오춘	아름다운건설	김범대	미플러스스피부과	김익수	(주)신종합건축개발
권일경	(주)위드	김범일		김인식	대호화학산업
권장대	(주)세화정공	김범현	한라이앤씨	김인식	
권재원	(주)아우노	김병렬	오성고속관광(주)	김일권	삼성생명
권재행	한국다문화재단	김병오	필즈학원	김재엽	(주)하우스타디엔씨

대구FC 엔젤클럽 명단

※ 본 명단은 가나다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김재필	(주) 주안	노병수	영남일보	박소이	(주)미래테크
김재필	산록 도시락	노승희	SGI구미지점 미주대리점	박순복	대가대미래포럼
김재혁	잉글리쉬 유나이티드	노영균	안강삼성의원	박승국	아시아요양병원
김재홍	대호약품/대구광역시 하키�협회	노정섭	대어초밥	박승현	
김정수	김정수경영회계사무소	노주호	(주)대성아이디	박신영	하나투어
김정철	경북대학교보발이식센터	노혜영	부부엔젤	박신제	PSJ창업네트웍스
김정희	김정희건강피부관리실	농협두류은행		박영석	계명대학교 교수
김종구	로즈마리 여성산부인과	농협생명보험	농협생명보험 대구지역총국	박우용	(주)대산라이팅
김종선	세광종합상사	농협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대구총국	박우호	세영회계법인
김종철	주식회사 신흥버스	도건우	前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박원득	한원금속
김종호	(주)우인바스텍	도재영	(주)용진기업	박윤경	KK주식회사
김종호	(주)케이원	류광열	(주)원재산업	박윤하	(주)우경정보기술
김종환	(주)메디피아이앤씨	류시장		박은이	(주)수만
김종훈	영남대학교의료원	류영애	세무사	박인호	(주)삼영이앤티
김종희	웨딩하모니	류형우	대구예총	박재관	제일푸드
김주성	광개토병원	류호충	신라산부인과	박재범	AIG어드바이저(주)대구지역본부
김주형	웨딩클	류훈	중앙세라믹스	박재영	(주)헬시안디앤씨
김주환	(주)경안플랜트,경안솔라	문길남	신세계	박재현	(주)신우씨엠디
김준현	세무법인대명	문문문	(주)디에스팩	박점희	플라워아트 / 한국화원협회
김준현	가람건축사사무소	문성균	홈타홈즈	박정기	진성, 일진종합건설
김준홍		문수영	(주)에플에드벤처	박정민	(주)칸여행사
김중곤	ADT캡스	문영일	(주)태홍	박정배	(주)우방
김중곤	인슈미디어그룹	문재혁	(주)동아티오엘	박정희	세무사
김지건	의사회 서포터즈	문종혁	(주)동화건설	박종철	(주)우일건설
김지미	(주)시마	문준기	대경맥주(주)	박종호	(주)삼정 종합페차장
김진수	엔에이골프(주)	문현훈	덕영치과 기공소	박종홍	금호개발
김진엽	송산엘앤씨	민재철	(주)뛰는아이들	박종화	(주)세보종합건설 (달서구 축구협회 회장)
김창희		민춘홍	한국PIPE	박종희	(주)TS 스틸
김춘희		박경국	(주)성우 아이디	박주현	대구과학대학교
김충환	김창준 미래한미재단	박경우	(주)현창건설	박준	게임물산(주)
김치호	주식회사 도영건설	박경진	해나 C&D	박준규	(주)이노커뮤니케이션
김재길	피엔에이	박경환	박경환 변호사 사무실	박준섭	박준섭 법률사무소
김태순	팔공온천 호텔	박관식	명진BS치과	박지훈	농협중앙회 - 고령축산물공판장
김태훈	태경건설	박금화	서라벌대학	박진	진보상사
김판권	(주) 명산	박기양	세무사	박진숙	동일가구
김한수	마이스산업연구원	박기원	아트진업	박진우	(주)효성종합 건설
김애용	인덕염공(주)	박기자	(주)무영	박진향	어번라이팅
김현만	서원종합건설(주)	박길상	남북의료기상사	박찬력	경북봉투사
김현수	대호기업	박대진	(주) 이비팜	박찬학	대구시 체육진흥과 체육시설 팀장
김현숙	(재)한국의학연구소	박동술	성동제통의원	박철형	한빛에너지(주)
김형동	대구시체육진흥과	박래석	(자)삼우전자통신	박태민	뮤직라운지 팬트하우스
김형식	(주)동인전력	박명수	명진금속	박태정	주원조경
김호준	준 애니팜	박미경	삼성요양센터/자인삼성요양센터	박한상	갑을상사그룹(주)
김홍근	건축사사무소 ADF	박민천	(주)다온PLUS	박한석	팔공 컨트리 클럽
김홍석	디지털신세기	박병구	대구미술협회장	박해대	(주)미래테크
김홍식(김샘)	대경대학교	박병규		박해동	강북 요양병원
김휘종	(주) 굿윌니름	박병욱	달인의 집담	박해연	유진제지
김홍수	(주) 이명E&C건설	박석현	(주)TBC	박현경	의사회 서포터즈
김희곤	연세계활요양병원	박성수	신화헬스앤드의료기	박현근	브라이튼
김희찬	PEGDYCCO	박성욱	(주)삼송BNC	박현욱	대가대교수
나광무	엘리바덴 온천	박성준	미래테크	박현주	장아푸드
나상수	의사회축구단	박성진	꿈그린	박혜영	(전)교사
남경원	경원치과 상사	박성호	금강운수(주)	박홍철	(주)신흥메탈
남병환	국제로타리3700지구지역대표	박성훈	(주)피닉스건설	박홍식	NS디자인
남성희	대구보건대학교	박성희	(주)AK메디 / (주)한올홀딩스	박희경	도미니크
남재현	(주)리버원	박세정	링크샵 커뮤니케이션	박희진	은성복어
노기원	(주)대왕이앤씨	박소민	디자인그린/한국자유총연맹 여성협의회	반용석	반지과

대구FC 엔젤클럽 명단

※ 본 명단은 가나다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반정옥	미르건축	성순화	피플라이프	엄달현	(주)대창엠코
방우정	리더스	성점화	(주)뉴프라임	엄복태	스타커뮤니케이션즈(주)
배국종	(주)씨엔비건설	성정용	(주)신도시건설	엄용선	(주)네방네소식
배명수	근영토건	소정호	(주)미래테크	엄재국	(주)포맨
배문구	승창침장	손동태	(주)미래테크	엄태건	(주)태준메디칼
배상원	상원종합식품/오대양식품	손동현	동현케이블	여태용	세계 주류 대표
배석우	에스와이하우징 대구경북총판 / 세종정공	손민호	동서가스	여영숙	삼성생명 명예전무
배성혁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덱프) / 예술기획 성우	손병갑	(주)성도/로타리3700지구 전 총재	여춘호	요셉성형외과
배영호	영신에프앤씨	손상명	(주)신아	오기우	(주)엘리컨스
배우균	카이도 코리아	손상주	천하장사	오무신	OMS부티탈롱
배인규	한남라이팅	손성태	성진포머	오재완	(주)한국 키네틱코 엔지니어링 / 에스엠인더스트리
배인호	성호건설(주)/ 경북건설협회	손수완	(주)수경	오진섭	오진섭세무사사무실
배장수	진명전력 주식회사	손영훈	성도팩	오택근	더좋은병원(수성구)
배종찬	기성광고	손원배	태명약업사 태명헬스케어	우경호	제일약품(주)
배창희	인덕텍스타일	손인락	영남일보	우상현	W병원
배태관	백산자카드(주)	손인택	(주) 서한	우성진	(주)메가켄임플란트
배혜민	(주)팔도에프씨/토끼밀	손주옥	(주)한국재무설계	우승민	스포츠와
배효삼	(주)달구벌석권	손중배	(주)유레카	우승수	대구부고
백건호	(주)경동BK	손지영	삼성디지털프라자 수성점	우영재	(주)한영
백경애	부부엔젤	손형문	대진렌탈	우외태	유화 비엔피
백덕열	지오 종합건설	송남희	본죽 시지점	우종곤	영인 E&C
백무연	(주)뷰티코하트/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송미향	(주)현대미주여행사	유다건	경대일어일문학과
백순정	네추럴플러스	송석훈	우리연합의원	유명상	대구한국일보
백영기	아름다운 사람들	송원배	(주)대영레테크	유병완	사진작가
백용환	(주)미래테크	송준기	지산치과/대한적십자사 대구광역시지사	윤경일	(주)글로벌에스피
백은규	우림종합엔지니어링 /은마건설	송준호	한국 PIM	윤귀자	삼성생명 명예상무
백은일	(주)백광테크	송진오	(주)아이에스메이드	윤남수	(주)아식건기
백을수	(주)국제ITS	송채은	부부엔젤	윤민환	교촌치킨 황금점 / 황금상가 연합회 회장
백혜자	동인간호학원	송해신	하나은행	윤소원	한국일보
백현석	더블유병원	신경우	(주) 부창솔라	윤영수	(주)우정건축자재
변창훈	대구한의대학교	신규창	신규창내과의원	윤용득	교통시스템 연구소
변향숙	돈모닝 식당	신기영	ARSTROMA	윤종현	수성문화원
서기수	(주)즐거운 세상 / 바르미	신선영	대구 미래대학	윤창권	그린에어시스템
서기승	의사회 서포터즈/동대구농협경제	신성철	(주)동원섬유산업	윤창섭	GOLDEN-B
서상인		신영필	주노캐피탈	윤철식	(주)주성종합건설
서상환	현대개발	신용범	(주)한미산업	윤태경	바로본병원
서순옥	미래테크/가족엔젤	신재열	(주)안다미로	윤형돈	미래에셋대우
서영득	색동가방	신재천	대구영화인협회	은영기	한솔개발
서정우	신성기업 / 포그니코리아	신정원	(주)한국센서	이갑열	(주)상일종합관리-SL산업개발
서정옥	광고회사 MSC	신철균		이강태	한국교통정보
서정원	(주)대선	신철수	에나 인드스트리	이강하	(주)아스코/상록로타리
서정원	효성그라비아 렌탈이벤트	신호철	플러스메드 / 삼성메디슨	이경곤	주식회사 유성기초
서종균	대경전력	신화섭	여행박사	이경호	(주)한길산업
서준덕	신세계영상의학과의원	신희득	(주)용성건설중기	이경호	동대구신세계약국
서중호	(주)아진산업	심건희	(주)천지개건	이경훈	인터볼고 아티스클럽
서찬곤	(주)E하얀바다	심인철	동명테크원(주)	이광해	아사다라
서찬교	대원전기	안상영	광진종합건설(주)	이기식	(주)현대스텐
서태현	(주)산동개발	안용모	경일대 석좌교수	이기화	행복을 심는 치과
서형석	투엄플레이스 / 서린디앤씨	안조셉	(주)미래테크	이대영	
석경환		안종수	태권도협회회장/태원엔씨건설	이대우	기운산업
성경환	성경건설	안준태	예진건설	이대형	세계설업(주)
성달표	현대통상 대표	안태현	태원전력	이덕록	(주) 서보
성무용	前대구은행 부행장	안홍윤	YH바이오사이언스	이덕현	디스이즈모든
성병철	(주)디자인JSP	양대석	(주)약령시 사람들	이도윤	(주)세광하이테크
성부영	정일건설(주)/삼역건설(주)	양은지		이도희	대한주택건설협회
성석훈	(주)대덕건설/ (주)명덕건설	양종호	수성구축구협회 / 현대자동차북대구지점	이동건	Sk건설
성수환	신영남산업 주식회사	엄관식	엄관식 수학교습소	이동경	(주)도원투자개발

대구FC 엔젤클럽 명단

※ 본 명단은 가나다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이동관	매일신문	이재남	DGB생명	임영미	DGB생명
이동명	(주)자비스	이재택	금성가구	임익기	브라이트
이동섭	울스타당구장	이재익	가람테크	임재현	(주)현대목재산업
이동성	(주)홍맥건축디자인	이재태	대구경북철단의료산업 진흥재단	임재형	(주)원규
이동열	참좋은요양병원	이재표	(주)제이에프	임홍규	(주)대평산업개발
이동원	변호사 이동원 법률사무소	이재하	삼보모터스	장극윤	영진수예침장
이동원	현대자동차 앞산지점	이재형	삼이HPS	장기석	주호산업, 아인
이동현	(주)우행주 건축	이재호	한경회계법인	장기식	JCI
이두원	(주)DRK	이재훈	푸드윈	장길화	(주)세안정기
이명현	동광명품도어	이정미	아사무역	장도미	(주)Queens
이문열	(주)대신공업	이정주		장민우	주식회사 대영금속
이민화	(주)백강	이정현	현대자동차 대구중앙지점	장병배	신부/범이 대성당
이배	재불화가	이정훈	(주)TPC	장병환	삼보이데아
이병훈	(주)대구스텐레스	이종만	미전커텐	장선운	고문당인쇄(주)
이복환	군민신문	이종복	삼해인터스트리	장성태	대한개발
이복희	광덕전력	이종운	택재건설	장세주	(주)한국포장산업
이상권	운경재단	이종원	KOG	장세철	고려건설
이상섭	조아전자(주)	이종현	(주)퓨리지	장안중	석문전기
이상열	(주)씨유컴퍼니	이주현	엘플러스	장영자	HILIVING
이상탁	반도광학(반도옵티컬)	이주형	(주)엘컴	장용호	(주)나라산업
이상혁	(주)비토코리아 / 슬립리스인시애틀	이중락	대구영화협회	장우영	대구보건대학교
이상홍	팔공인터내셔널(주)	이중원	경산상공회의소/ 원호금속(주)	장원규	(주)화성
이상효		이중호	(주)세신정밀	장원용	전 대구MBC
이석우	(주)삼진씨앤씨	이지언	운경재단	장윤재	장윤제연합지과의원
이선찬	진성테크	이지완	명진BS치과	장익현	장익현 변호사 사무실
이성구	마리아나임클리닉	이진백	G&B오토모빌(주)	장재철	AIG어드바이저
이성구	대구 의사회 부회장(이엔김연합내과의원)	이진복	보람회계법인	장재태	영남대학교 ROTC 동창회
이상동	금보건설	이진호		장재화	(주)창녕참우축산
이성배	(주)에가	이진환	삼원회계법인	장정숙	(주)자원환경
이성태	주식회사 풋살스포츠	이창근	극동1급정비공장	장정호	장정호 법률사무소
이성하	BL 성형외과	이창두	(주)알파메틱	장종욱	아곱의집
이숙형	여행의향기	이창영	신부/만촌1동성당	장팔술	
이승민	리얼홀딩스	이창환	(주)토담건축	장혜정	백산부동산
이승진	나우산업개발	이창희	이코노식자재마트	장홍석	대원테크
이승현	(주)동서개발	이충경	JUWEL J	전미조	효성복지재단
이시연	DESIGN GROUP KHAN	이충곤	s그룹	전성렬	동양OA
이암우	옛밥사랑협동조합	이치우	대구음악협회	전수근	삼명종합상사
이양구	(주)에코텍	이태훈	(주)에드앤피알스미스	전영호	팔공신협
이영순	부부엔젤	이필후	대구그린에너지센터(주)	전용수	(주)신동아관광
이영우	(주)대광엔지니어링	이한일	드림병원	전재관	전재관한의원
이영웅	(주)디자인로움	이한	코디박	전중달	제이디 건설(주)
이영준	선경건축자재센터	이현수	MG새마을금고	전태제	대구CC
이영호		이현득	이현득법률사무실	전혜영	화인건축사
이용재	석문전기	이형선	지성건설(주)	전형노	메가미레라이프
이원영	(주)평산개발	이형원	일성집장	정경용	민 초심
이원우	한은 이앤씨	이호경	월드산업 주식회사	정군섭	(주)대영산업
이원찬	(주)이진산업	이호경	(주)대영에코건설	정기옥	
이윤하	그린사이언스	이화신	(주)화신	정기은	분홍빛병원
이윤환	(주)미래테크	이희도		정기출	삼성생명 대구법인지점
이윤희	한국알카리수A(주)	이희준	SGI 서울보증보험 대동대리점	정모경	정원자가택
이은수		이희재	이희재건축사사무소	정민교	대영모던텍(주)
이은준	(주)SJ홀딩스	인재현		정병창	세종건설
이웅찬	(주)건화	임건주	다운비엔에이	정병환	대구시보도기획팀장
이익재	(주)세신정밀	임광호	열린치과	정성인	경인D&C
이인경	(주)서울원복	임명섭	(주)영남바른상조	정성훈	(주)엘피니스
이인선	대구경제자유구역청	임상택	위드고	정소영	창성산업
이인현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구경북지회/ 화인쿠치네	임상훈	엔티엘의료재단	정승진	한국OSG

대구FC 엔젤클럽 명단

※ 본 명단은 가나다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정에스터	갤러리제이윈	진해운	(주)보강디엠에스 / 벡스투어(주)	최태원	대구축구협회 부회장
정연일	한 패밀리 병원	차성범	(주)삼인프라임	최한교	디스이즈모든
정영만	제이아그로(주)	차순봉	선우종합건설	최해동	국제로타리3700지구
정영목	(주)대한피앤씨건설	차영규	민영산업/ 문화원	최현희	(주)아르데코무이
정영준	(주)다원아이디	차인석	대성엔팩스	최효욱	(주)월성주택
정영철	제이스마인드의원	차훈일	(주)샘초롱 농업회사법인	추재엽	(주)대영에코건설
정용화	빠리바닷가재	천상현	흥전사(주)	추화엽	대성크린텍
정용화	(주)대서케이칼	천용규	(주)가우	코바체프	대구시향
정우필	(주)서한	천자우	(주)에슬린	하달용	(주)삼건환경건설
정원호	(주)삼화봉재	천종열	(주)윤성건설	하석배	계명대학교 음악대학
정일균	(주)다온시스템	천종태	소천도예원	하승우	하승우내과
정장화	주성안전기	천향규	연세클리닉	하윤수	한국공조
정재간	대구대학교	천해성	(주)하림조경	하정식	시보정밀
정재석	탐메디케어	최경목	수성정비센터	하종범	더 포스코샵
정재호	초록들코리아(주)	최경수	삼익테크	하춘수	대구가톨릭대학교
정정국	(주)지엘이앤씨	최고현	MBC	하태욱	대구과학대학교
정태일	한국OSG	최규락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코리아(주)	하호만	농협
정태호	대영 코어텍(주) / 대영(주) / 대영모던텍(주) / 품그리기(주)	최대식	(주)동경주산업개발	한금재	케이프린텍
정택수	매일애드	최동욱	(주)한라개발	한도준	삼익기리우(주)
정하용	동신에스피	최만수	인터볼고CCC	한동엽	방천가족축발
정한재	청운신평	최명수	(주)오성종합주류	한무경	효림산업(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정현수	(주)보국이앤씨	최명환	경진사종합건축사사무소(주)	한상섭	대구 경찰병원
정호균	메디피아	최미경	법무사 최미경 사무소	한화용	금도에너지(주)
정홍표	(주)홍성건설	최미애	(주)뉴니케	함동호	에듀대표
조국진	(주)효림	최상무	오페라하우스	허성규	우진시스템
조규현	대명건축사사무소	최상태		허용훈	(주)건화트랜저로그
조극래	대가대교수	최석훈	남산병원	허원희	HK GOLF
조동희	제이원씨티갑(주)	최신주	(주)연호개발 / 제이엘지개발	허정수	명진약품
조두석	(주)에드메이저	최성문		허정호	(주)프리미엄에셀
조득환	(주)금강알텍	최성욱	(주)책임전력공사	허진걸	(주)영산전기
조만현	(주)동우씨엘건설	최성주	(주)동진금속	허태조	사)한국산림보호협회중앙회
조만규	프로골프	최세욱	(주)우경정보기술	허필수	동성중공업
조민성	동영염직(주)	최승규	이에스티산전	허홍만	명성골프 대표
조병래	디자인해밀	최양원	(주)이루케이칼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 대구점
조봉준	동일	최영철	(주)삼코	현정규	(주)영진기공
조선웅	유마스텍 메디컬 그룹	최영호	대구시청	홍덕률	전)대구대학교
조성섭	(주)도원이앤씨	최영환	동명테크윈(주)	홍민수	WOORAM 우람
조성수	에이엘테크	최영훈	KT텔레캅	홍석준	대구시 미래산업 추진본부
조영래	(주)원형D&C	최예영	태양인이게마한의원	홍석환	소방감리원 기술단
조영만	(주)제이에이치테크	최오원	(주)이랜트카	홍장현	(주)뉴영남인테리어
조용호	(주)어펙시스템	최용석	빠른감자탕	홍정민	경산버스
조장형	(주)나라피움	최우각	(주)대성하이텍	홍진수	세인트나인
조정연	(주)대청디앤씨	최은미	대구세계합창축제 조직위원회	홍철자	부부엔젤
조정욱	두손건축	최은석	의사회 서포터즈	홍효정	부부엔젤
조종수	(주)서한 대표 / 대구건설협회	최익진	(주)풍국면	황성	(주)진일공업
조준근	대구시 학원 총연합회	최인철	(주)에이원감정평가법인	황세영	매천축산/조원한우
조준호	(주)태일	최인호	(주)명성티엠에스	황영	(주)푸르맘
조지혜	제이커뮤니케이션	최일경	명문덴탈	황우곤	파인스트리트
조철래	(주)성지여행	최일권	(주)현대중공업	황인혁	인성데이터
조현수	한국케이블TV 푸른방송	최재호	주식회사 골든크라운	황정철	제우스프팅
주대중	함창교육재단(영화식당)	최종태	(주)슬트커뮤니케이션즈	황정현	성광전기설계사무소
주운수	토정건설(주) 토정개발(주)	최종해	동양종합건설(주)	황주연	한솔해피니스대구수성센터
지성한	오성시스템(주)	최주희	변호사	황현호	인터테크주식회사
지용호	(주)대한공조	최진오	한국디자인모형		
진경훈	(주)코엔코	최진환	(주)고려이앤씨		
진덕수	(주)대흥코스텍/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최창배	신항도시개발(주)		
진영환	삼익 THK	최철환	광풍 피쳐		

대구FC엔젤클럽은 대구사랑입니다

대구FC엔젤클럽은 시민구단 대구FC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과 축구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결성된 뜻있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엔젤클럽은 지난해 1년 앞당겨 구명 회원 목표'를 달성하면서, 대구FC 재정안정과 관중증대에 한 몫 하는 등 '대구시민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용구장 시대를 앞둔 2018년을 맞아, 엔젤클럽은 2018명 회원달성'을 목표로 다시 한 번 릴레이를 펼치고 있습니다.

시민구단 대구FC의 발전은 우리 대구의 발전과 같습니다.

대구FC를 명문구단으로 만드는 것은 물론 대구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진정한 '시티즌 오블리제'(Citizen oblige)의 실천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활동을 기대합니다.

◆ 가입문의

- ▶ 대구FC 엔젤클럽 사무국
- Tel : (053) 602-7307 - Fax : (053) 602-7306
- ▶ 대구FC엔젤클럽홈페이지
- <https://www.dgfcangel1004.co.kr>

◆ 대구FC엔젤클럽 회원이 되면 매년 다음과 같은 의무가 생깁니다.

*자동이체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동이체가 힘든 경우 일시납
(계좌번호 :대구은행 505-10-166391-1) 카드결제가 가능합니다

▶ 후원금 납부

- 다이아몬드 : 1000만원 이상
- 일반 : 100만원 이상 / 자동이체의 경우 월 83,000원
- 엔시오 : 12만원 이상 / 월 10,000원 *엔시오는 자동이체를 원칙으로 합니다.

▶ 엔젤릴레이

- 릴레이방식으로 추천

▶ 홈경기 직접관람 응원

- 대구FC 홈경기시 엔젤존 운영 (E석)

▶ 천사데이 등 각종 엔젤클럽 행사 참여

▶ 엔젤 회원으로 대구FC 홍보 활동 적극 참여권유

◆ 혜택

- ▶ 구단물품증정
- ▶ 행사참여
- ▶ 입장권 증정(후원금 액수만큼)
- ▶ 배너노출



대구FC구단 후원금 CMS 자동납부 신청서



◆ 수납기관 정보 (수납기관 기재란)

수납기관	기관명	대구FC	수납목적	대구FC 후원금
	대표자명	조광래	사업자등록번호	502-81-67049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180(대흥동 504번지) 대구스타디움 내 대구FC 사무국		

◆ 자동이체 신청내용 (납부자 기재란)

신청정보	신청인			연락처	() -
	금액	월납	☐ 월 10,000원(연12,000원) ☐ 월 83,000원(연996,000원) ☐ 월830,000원(연9,960,000원)	납부일	매월 ☐ 5일 ☐ 15일 ☐ 25일
		연납	☐ 년 120,000원 ☐ 년 1,000,000원 ☐ 년10,000,000원		매년 월 일
	결제정보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예금주 휴대전화번호		(*필수입력)			
실명번호		생년월일 / 성별	- - - - - -		
개인정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자동이체를 통한 후원금 수납 ◆ 수집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통신사명, 예금주(명의자),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부부터 자동이체 종료일(해지일)까지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 거부 시 자동이체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 3 자 제공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대구FC구단 및 금융기관(하단 신청가능은행 참조), 통신사(SKT, KT, LGU+, CJ헬로비전 등)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자동이체서비스 제공 및 자동이체 동의 사실 통지, 고객센터 운영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통신사명, 예금주(명의자),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일부부터 자동이체 종료일(해지일)까지 단, 관계법령에 의거 일정기간 동안 보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수납업체가 제 3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 시 자동이체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활용동의					

◆ 자동이체 동의여부 통지 안내 : 대구FC구단 및 금융기관은 안전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결제자 휴대전화번호로 자동이체 동의 사실을 SMS (또는 LMS)로 통지합니다. 신청인(예금주)는 신청정보, 금융거래정보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 3자 제공 및 월자동납부에 동의하며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1. 신청인의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확인하고 자필서명후, 신분증은 복사나, 핸드폰으로 촬영후 인쇄본으로 첨부합니다
2. 기존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서를 신규로 작성하 여야 합니다.
3. 신청가능은행 : 국민, 우리, 신한, 농협, 하나, SC, 기업, 외환, 씨티, 산업, 새마을, 부산, 대구, 경남, 광주, 전북, 제주, 수협, 신한, 우체국, 동양증권, 삼성증권
4. 신청가능 통신사 : SKT, KT, LGU+, CJ헬로비전

Daegu FC Report



그라운드에 내가 있다면,
내 안에 그라운드가 있다.
-박지성



대구FC 새로운 태양의 전사 영입!



대구FC가 전력 보강을 위해
세명의 새로운 태양의 전사를 영입했다!

날렵하고 정교한 스트라이커 **조세**
검증된 골잡이 **에드가**
찬스메이커 미드필더 **츠바사**

후반기 반등을 노리는 대구FC!
새 선수들의 맹활약을 기대해본다.



‘전력보강’대구FC, 새 외국인 공격수 조세 영입

연계 플레이 뛰어난 브라질 출신 공격수

후반기 반등을 노리는 대구FC가 8일(금) 브라질 출신 공격수 조세를 영입했다.

183cm, 80kg의 날렵한 체격을 보유한 조세(Jose Roberto, 24)는 연계 플레이가 장점인 스트라이커다. 왕성한 활동량과 넓은 시야, 정교한 패스 능력 등을 갖추고 있으며, 페널티 박스 부근에서 직접 득점도 노릴 수 있다.

조세는 2012년 브라질에서 프로 데뷔해 바히아(Bahia), 폰체 프레타(Ponte Preta) 등 브라질 전국 2부, 1부 리그를 오가며 116경기 21득점을 기록했다. 이번 시즌 미라솔(Mirassol), 상 벤투(São Bento)에서 19경기 5득점으로 활약했고, 이번에 대구 유니폼을 입으면서 K리그 무대로 첫 발을 내딛었다.

해외 무대가 처음인 조세는 “한국의 정돈되고 질서정연한 모습에 놀라웠다.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나에게 긍정적인 게 느껴져 기분 좋다. 최대한 빨리 언어를 배워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조세는 “팀의 상황을 알고 있고 도움이 되고 싶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팀이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 좋은 활약을 펼쳐서 대구 팬들에게 멋진 승리를 안겨주고 싶다”고 입단 소감과 목표를 밝혔다.

후반기 반등을 노리는 대구는 조세의 영입으로 공격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식 지정병원인 으뜸병원에서 메디컬 테스트를 마친 조세는 곧바로 남해 전지훈련에 합류해 기존 선수들과 호흡을 맞춘다.



FW
조세
호베르토

생년월일	1993년 9월 14일
국적	브라질
신장 / 체중	183cm/80kg
전 소속팀	São Bento(브라질)
번호	10

대구FC, 검증된 ‘골잡이’에드가 영입

유럽, 아시아 무대에서 90득점 이상 기록, 검증된 골잡이
브라질 U-20 대표팀 일원, 유로파 리그, ACL 경험도 갖춰

후반기 반등을 노리는 대구FC가 14일(목) 검증된 ‘골잡이’에드가를 영입했다.

에드가는 191cm, 87kg의 탄탄한 체격을 가지고 있으며, 헤딩과 몸싸움, 드리블 돌파, 골 결정력 등 힘과 기술을 모두 겸비한 공격수다.

‘골잡이’로서의 능력을 유럽과 아시아 무대에서 검증했다. 브라질 리그에서 프로에 데뷔해 포르투갈, 아랍에미리트, 터키, 태국 리그 등을 거치면서 통산 90득점 이상을 기록했다. 2007년에는 일리안(현 첼시), 파투(현 텐진 취안젠)등과 함께 브라질 U-20 대표팀에 소속되어 2007 CONMEBOL U-20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특히 올 시즌에는 태국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부리람의 핵심 공격자원으로 활약했다. 에드가는 부리람에서 리그 15경기 8골,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8경기 4골을 기록했고, 지난 5월 20일(일) 부리람 소속으로 나선 마지막 경기에서는 헤트트릭을 기록하는 등 절정의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다.

대구는 카이온, 지안이 시즌 초반 부상으로 부진하면서 일찌감치 새로운 선수 물색에 나섰다. 그때 조광래 대표이사가 에드가와 조세를 찾아냈고, 적극적인 영입작업을 펼친 끝에 두 선수를 영입하게 됐다. 특히 에드가는 중동을 비롯해 국내외 여러 구단의 러브콜을 받았고, 대구 관계자가 직접 태국을 방문하는 등의 노력으로 에드가 영입에 성공할 수 있었다.

입국 후 바로 남해 전지훈련에 합류한 에드가는 “팀에 많은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고 싶다. 내가 도움이 돼서 좋은 경기력을 유지한다면 골도 자연스럽게 많이 터질 것이다”라며, 올 시즌 각오를 밝혔다.

조세와 에드가의 영입으로 공격진을 강화한 대구는 오는 16일(토)까지 이어지는 남해 전지훈련을 통해 하반기 반등을 노리고 있다. 대구의 하반기 첫 번째 경기는 오는 7월 8일(일) 오후 7시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리는 FC서울과의 15라운드다.



FW

에드가 실바

생년월일	1987년 1월 3일
국적	브라질
신장 / 체중	191cm/87kg
전 소속팀	Buriram United(태국)
번호	9

대구FC, 유럽무대에서 활약한 미드필더 츠바사 영입

패스, 슈팅, 탈압박, 드리블로 득점 기회 만드는 찬스메이커
폴란드, 슬로바키아 리그 거치며 83경기 10득점 활약

후반기 반등을 노리는 대구FC가 15일(금) 일본인 미드필더 츠바사를 영입했다.

츠바사는 패스와 슈팅, 탈압박과 순간적인 드리블을 통해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미드필더다. 2013년 폴란드 리그에서 프로무대에 첫발을 내딛었고, 레키아 그단스크, 비드제프 로즈, 스토틀 올슈틴(이하 폴란드 리그)와 MFK 젬플린 미할로프체(슬로바키아) 등을 거치면서 83경기 10득점을 기록했다.

츠바사는 “후반기에는 제 강점을 최대한 발휘해서 팀의 상황을 바꿀 수 있도록 팀에 공헌하겠다. 또한 팬 여러분들이 즐거울 수 있는 축구를 하겠다. 응원하러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츠바사는 대구FC 공식 지정병원인 으뜸병원에서 메디컬테스트를 마치고 남해 전지훈련에 합류했다. 대구는 츠바사의 영입으로 아시아쿼터까지 4명의 외국인 선수 구성을 모두 마쳤다.

대구의 하반기 첫 번째 경기는 오는 7월 8일(일) 오후 7시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리는 FC서울과의 15라운드다.



MF

츠바사

생년월일	1990년 4월 8일
국적	일본
신장 / 체중	173cm/66kg
전 소속팀	MFK ZEMPLIN MICHALOVCE(슬로바키아 1부)
번호	44

대구FC 정승원·정치인, '지구방위대' 용병으로 투입...

대구 성광고 상대로 '스쿨어택당' 첫 승 이끌다!

2002 월드컵 레전드들과 한 팀 되어 '스쿨어택 당' 첫승 견인
이천수 등과 찰떡호흡 과시,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200만원 기부

대구FC 정승원, 정치인 선수가 지난 4월 20일(금)
대구 성광고등학교를 방문해 '지구방위대FC'의 첫 승을 이끌었다

이날 정승원과 정치인은 2002 월드컵 4강 멤버로 구성된 '지구방위대FC'의 용병으로 긴급 투입됐다. 지구방위대 멤버인 최진철 프로축구연맹 경기위원장이 빠졌기 때문이다. 게릴라 형식으로 진행되는 행사인 만큼 몰래 학교에 잠입한 대구FC 선수들은 이천수, 현영민, 김병지 등 지구방위대 멤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지구방위대 김병지 감독은 공격수인 정승원과 정치인 선수를 소개하면서 "취약포지션을 보강했다"고 했고, 지구방위대 주전 공격수 이천수는 정치인, 정승원에게 " (공격에) 올라오지 말라"며 경계하기도 했다.

교장선생님이 몰래카메라로 학생들을 운동장에 모으자, 지구방위대가 깜짝 등장했다. 뜨거운 환호 속에 학생들과 첫 인사를 나눈 지구방위대는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경기에 나섰다. 경기에 들어가자 정승원, 정치인과 2002 월드컵 레전드들은 찰떡호흡을 과시했다.

지구방위대는 성광고에 2골을 먼저 내주며 끌려갔지만, 이천수의 추격골에 이어 정치인이 현영민의 패스를 받아 동점골을 터트리면서 2대2 균형을 맞췄다. 정승원은 이날 후반에서 빌드업을 맡아 이천수, 정치인 등 공격수들에게 공을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결과는 지구방위대의 4대2 승리였다. '축구'로 성광고 학생들에게 좋은 추억을 선물한 지구방위대와 대구FC 선수들은 사진을 찍고 학생들에게 사인을 해주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구단 홍보에도 효과만점이었다. 선수들이 이름이 새겨진 대구FC 유니폼을 입고 뛰자 학생들은 인터넷에 정승원, 정치인을 검색해보는 등 관심을 보였고, K리그를 많이 사랑해달라는 씨쩍철의 당부에 '직관'을 약속하기도 했다.

공식 영상은 숏포터브 유튜브 채널, 공식 SNS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구FC에서 제작한 비하인드 스토리 영상은 대구FC 유튜브와 공식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구방위대FC는 맘스터치가 후원하고 2002 월드컵 4강 멤버와 숏포터브가 참여하는 프로젝트다. 스쿨어택 콘셉트의 시즌2는 지구방위대가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미니축구 대결을 펼치는 방식이다. 사전에 신청한 학교를 대상으로 예고 없이 기습 방문하는 게릴라 형식으로, 지구방위대FC가 승리하면 경기당 200만 원을 맘스터치가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기부한다.

'스쿨어택당'으로 대구 성광고 학생들을 만난 대구FC는 4월 28일(토) 오후 2시 대구스타디움에서 제주유나이티드와 2018 KEB 하나은행 K리그1 10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대구FC 한희훈, 원정석에서 뒀던 89+1번째 경기

상벌위원회 사후 징계로 4경기 출장정지, 전남전 결장
전남전 원정석 등장해 풀타임 응원전 펼쳐

대구FC 주장 한희훈이 5월 19일(토) 전남과의 경기가 열린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원정석에 등장해 서포터즈와 함께 대구를 응원했다

한희훈의 89+1번째 경기였다. 이번 경기 그의 무대는 그라운드가 아닌 원정석. 4경기 출장 정지로 경기에 나설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팬들과 경기에 나서는 동료들을 위해 전남전이 열린 광양축구전용구장을 찾았다.

원정석에 등장한 한희훈은 메가폰을 잡고 팬들과 함께 뛰었다. 아쉬운 실점의 순간도, 짜릿한 동점골의 순간도 팬들과 함께 했다. 90분 내내 응원전을 펼친 한희훈은 "팬들의 열정이 이렇게 큰지 몰랐다"며, "이렇게 계속 소리를 내는 게 쉽지 않은 걸 느꼈다"며 응원에 참여한 소감을 밝혔다.

한희훈의 행동은 놀랍지 않았다. 매년 팬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을 전했다. 최근 팀이 5연패에 빠져있을 때도 한희훈은 자신의 SNS를 통해 '믿어달라,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지난 13일 수원전 경기가 끝난 직후 원정석 앞에 서서 사과하는 영상도 팬들 사이에서 크게 화제가 됐다.

한희훈은 지난 시즌에 이어 올해까지 2년째 주장을 맡고 있다. 특유의 파이팅과 솔선수범하는 태도로 동료선수뿐만 아니라 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 프로 통산 89경기, 올 시즌 13경기에 출전해 몸을 사리지 않는 플레이로 위기의 순간을 넘겨왔다.

한희훈의 응원에 힘입어 대구는 이날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6연패에서 탈출했다. 한희훈은 포항과의 18라운드 홈경기부터 그라운드에서 만날 수 있다. 리그 12위로 전반기를 마무리한 대구는 월드컵 휴식기를 통해 팀을 단단하게 재정비할 예정이다. 대구를 이끌 믿음직한 주장 한희훈의 행보가 기대된다.



Half time talk



남의 책을 읽는데 시간을 보내라.
남이 고생한 것으로 자기를 쉽게 개선할 수 있다.
-소크라테스(Socrates)

축구의 나라를 가다

축구의 나라를 가다 ④멕시코



▲카리브해의 전형을 보여주는 멕시코 칸쿤 바닷가. 어디를 둘러봐도 에메랄드 빛 바다가 눈에 들어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에 장벽을 쌓겠다고 말할 정도로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 나라가 미국과 중미를 연결하는 곳에 있는 멕시코다.

지도를 떠올려보면 자그마한 나라로 생각하기 쉽지만 멕시코는 한반도 면적의 9배나 되는 세계 14위의 면적을 가졌다.

국토의 절반 이상이 고지대로 중심부는 해발 평균 2천600m, 북부는 평균 1천200m에 달하는 고지대다.

태양의 나라로 태양이 뜨겁기도 하지만 낮엔 서늘한 게 바로 고도 때문이다.

이 태양을 가장 뜨겁게 느낄 수 있는 곳이 최근 우리나라 신혼부부 희망여행지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칸쿤이다.

마약왕 호아킨 구스만, 낮에만 다녀야 하는 국경마을 수아레스, 대학생 43명이 시체로 발견된 계계로주 이팔라 등 외신에 오르내린 도시 이름들만으로도 멕시코하면 ‘위험’이란 단어가 동시에 연상된다.

칸쿤 역시 나이트클럽에서 총격사건도 일어나긴 하지만 멕시코 정부에서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도시다.

관광수입도 크지만 미국인이 은퇴 후 가장 살고 싶어하는 곳인 칸쿤의 이미지마저 살인이나 마약으로 오염될 경우 멕시코의 국가 이미지 회복이 더 이상 쉽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거기엔 마야, 아즈텍 문명과 함께 아직도 900만명이나 남아있는 인디오들의 문화로 대변되는 멕시코 문화와 전통의 보존이란 의미도 있다. 특히 중미의 피라미드라고 할 수 있는 치첸이사, 테오티우아칸을 비롯한 많은 고대문명 유적지, 스페인식민지문물 그리고 멕시코인들이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축구는 멕시코의 또다른 아이콘이다.

‘축구의 나라를 가다’ 이번 호에서는 2018년 6월 현재 피파랭킹 15위를 달리는 멕시코를 이야기 한다.

그 중에서도 수도 멕시코에 이어 제2의 도시인 과달라하라와 과나후아토 그리고 칸쿤을 소개한다.

◆ 에메랄드 색깔이란 이런 것

상징주의 시인인 프랑스의 아르튀르 랭보는 그의 시집 ‘지옥에서 보낸 한철’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건 기분종개 취해 해변에서 자는 일”이라고 했다. 칸쿤은 랭보의 말에 절대적으로 합치되는 해변이다. 그러나 잠만 자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해변이기도 하다. 여권이 있어야 공항 자체에 들어갈 수 있는 과테말라시티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시간 20분만에 도착한 멕시코 칸쿤. 유카탄반도의 중심인 키타나로오주의 도시다. 사실 칸쿤은 작은 어촌이었다. 하지만 “멕시코 치클처럼 부드럽게 말해요”라는 껌 CM 송에서 알 수 있듯이 1970년대 이후 천연 치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치클산업은 물론 관광산업이 육성되면서 ‘뜨’ 도시다. 마야문명의 상징 중 하나인 치첸이사 피라미드와 역시 마야유적지인 툴룸과도 가까운 지리적 위치가 칸쿤을 유카탄관광의 중심지로 만든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해안선을 따라 끝도없이 이어진 호텔존 해변에 설치된 선베드는 시간을 멈추게 하는 장치로 칸쿤의 상징이 된 지 오래다. 호텔존의 선베드를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이나 일반 여행객들은 아무 곳에나 자리를 잡고 바다에 뛰어들면 된다. 얼마나 바다가 에메랄드색으로 눈이 부시면 바다에 뛰어드는 순간 몸마져 푸른 빛으로 물드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다. 여기에 카리브해의 석양을 바라보며 마시는 맥주와 테킬라는 칸쿤을 못 떠나게 발목을 잡는 기분좋은 족쇄가 된다. 해변에는 커플티셔츠를 입은 신혼부부들과 은퇴 후 여가를 즐기러 온 노부부들 그리고

◆ 버스킹의 원조 마리아치의 고향

영국 그룹 스모키가 부른 멕시코 걸이란 노래 중 “그녀의 피부는 벨벳 하늘처럼 부드럽고 그녀의 머릿결은 달빛에 빛났어요”라는 가사가 있다. 아마 여기에 나오는 ‘그녀’는 과달라하라 출신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자타가 공인하는 멕시코 미녀들은 옛날부터 과달라하라에 모여있다고 했고 실제로 거리 곳곳에 미녀들이 많기 때문이다. 미인을 보는 기준은 개인적일 수는 있지만 현지인들은 ‘이유가 있다’고 말한다. 과달라하라에는 크리오요 즉 멕시코에서 태어난 스페인파를 가진 사람들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살고 있고 그 아국적인 매력에 발산되기 때문이라는 것. 실제로 멕시코의 유명 배우나 미인대회 출신자들 대부분이 과달라하라 출신이라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물론 과달라하라의 매력은 미녀가 많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멕시코 제2의 도시로 할리스코주의 주도인 과달라하라는 1530년대부터 스페인 지배가 시작돼 아름다운 식민문화가 그대로 남아 있어 ‘서부의 진주’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멕시코 독립의 영웅 이달고 신부를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의 무대이기도 했으며 유리공예, 도자기, 가죽제품 등의 수공업과 테킬라생산으로도 유명하다. 특히 TV 해외여행프로그램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멕시코의 민속 양상블인 마리아치가 탄생한 곳이기도 하다. 2005년에는 ‘아메리카 문화의 수도’로 선정되기도 했다. 1994년부터 국제 마리아치축제를 열고 있다. 흔히 멕시코시티에서 마리아치공연을 많이 볼 수 있어서 마리아치가 멕시코시티의 산물로 알고 있지만 사실 그들은 모두 과달라하라에서 이주한 사람들이다. 과달라하라의 콜로니얼문화는 센트로에 모두 집중돼 있다. 각종

같은 수영복을 입은 동성애자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가끔씩 모습을 드러내는 이구나나도 빠뜨릴 수 없다. 이구나나는 도심 한복판에도 종종 모습을 드러낸다. 파충류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기겁을 하고 달아나기도 한다. 배낭족들은 비싼 호텔존이 아니라 도심에 숙소를 잡고 시내버스를 타고 해변으로 향한다. 칸쿤의 버스는 아무데나 손을 들면 세워준다. 에어컨이 없지만 바닷바람이 시원해 덥지 않다. 왕복버스비 1천 400원이면 카리브해를 즐길 수 있는 셈이다. 곳곳에 세워진 대형 쇼펄물과 슈퍼마켓이 여행의 즐거움을 더한다. 하지만 이런 즐거움도 공항에서의 불쾌함을 감수하고 나서다. 칸쿤을 비롯한 멕시코의 모든 공항은 까다로운 짐 검사로 악명(?)이 높다. 마약류 단속이 주된 이유다. 물론 운이 좋아 무사 통과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항공사 승무원들의 가방이라고 예외는 없다. 칸쿤과 더불어 최근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곳 중의 한 곳이 바로 ‘플라야 델 카르멘’이다. 칸쿤에서 한 시간 정도 떨어진 곳으로 같은 카리브해지만 칸쿤과는 살짝 다른 바닷물빛을 지닌 곳이다. 도시 자체가 걸어서 다닐 정도로 작아 배낭족들의 카리브해 성지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유카탄 카리브의 선택지가 한 곳이라면 망설임 없이 카드를 뽑아야 될 곳은 칸쿤이라는 데 이견은 없을 듯하다.

광장, 박물관, 조각상, 교회 등을 모두 보려면 하루로 부족하다. 과달라하라 센트로에는 과테말라 안티구아와 마찬가지로 색이 들어간 간판을 걸 수 없도록 돼 있다. 패스트푸드점 간판도 마찬가지로여서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햄버거 하나 먹기도 쉽지 않다. 이곳 역시 센트로를 말을 타고 둘러보는 마차투어가 있다. 중남미 다른 도시들과 달리 도로에 말 배설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배설통을 뒤에 단 것이 눈길을 끌었다. 기아자동차가 몬테레이에 공장을 지으면서 많이 빠져나갔긴 했지만 한국교민은 1천여명이 넘게 생활하고 있다. 2016년 5월에도 진도 5.6의 지진이 발생할 정도로 지진이 비교적 잦은데다 물이 많은 지반이어서 높은 빌딩들을 찾아보기 힘들다.



▼칸쿤에서 채 한 시간이 걸리지 않는 플라야 델 카르멘이 최근 칸쿤에 이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바다로 알려지고 있다.



▼과달라하라의 센트로의 여러 모습들.



▼도시 전체가 알록달록한 과나후아토는 어디를 둘러봐도 물감이 흘러내린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멕시코 칸쿤 바닷가



◆형형색색의 즐거움에 싸인 낮과 밤

과달라하라에 오면 꼭 들러가는 곳이 바로 과나후아토란 작은 도시다.버스로 4시간을 꼬박 달려야 가는 거리지만 갔다오면 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곳이다.한때는 은 광산으로 유명했던 곳으로 15만명도 되지 않는 인구를 가진 도시지만 지금은 ‘머스트 고’ 관광지가 됐다. 작은 광장들이 들어선 센트로를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집들이 자연스럽게 산등성이로 이어져 있다. 남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분지형도시지만 알록달록 칠해진 집색깔들이 도시를 예쁘게 그리고 밝게 빛나게 한다. 도심의 일방통행의 좁은 도로는 자갈로 만들어져 있으며 시내 중심부는 차량통행이 금지돼 있다.새벽까지 돌아다녀도 위험하지 않는 도시이기도 하다. 서양여행객들이 시민들 숫자와 비슷한 정도로 눈에 많이 띄는 것도 특징이다.무엇보다 낮보다 밤이 아름다운 곳이기도 하다. 카페와 레스토랑으로 둘러싸인 하르딘 우니온(우니온 가든)에 밤이 오면 항상 마리아치들의 노래를 들을 수 있다. 은은한 조명이 밤새 비치는 성당과 극장 그리고 그 위에 뜬 달은 염서가 따로 없을 정도다.과나후아토에서 빠트리지 말아야 곳은 바로 돈키호테의 작가 세르반테스 박물관이다.처음에 돈키호테 박물관이 이곳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이해가 되지 않았다.다수의 블로거들이 작가 세르반테스가 말년을 보낸 곳이기 때문에 박물관이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었다. 그러나 2016년으로 서거 400년이 되는 그가 당시에는 수만리 떨어진 낯선 나라의 작디작은 시골마을에서 여생을 보냈을리 만무했고 그럴 형편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서 들어보니 왜 멕시코의 시골에 돈키호테 박물관이 들어섰는지 알 수 있었다. 박물관은 스페인사람인 돈 에우랄리오 페레르(1921~)의 열정에 의해 설립됐다.1936년부터 39년까지 지속된 스페인 내전에서 많은 스페인의 예술작품들이 파괴되거나 훼손된 것을 본 그는 젊은 시절 읽고 가슴에 담아두었던 돈키호테의 이상을 떠올리게 된다.특히 어린 나이에 스페인내전에 참여해 지옥같은 아르헨레스 수르메르수용소 경험도 한 그는 새로운 자유를 찾아 가야될 곳으로 멕시코를 정한다. 이후 그를 받아준 라사로 카르테나스 멕시코 대통령(1934~1940년 집권)의 호의를 생각해 멕시코 독립운동의 출발지인 과나후아토에 박물관을 짓게 된다.세르반테스 스타디움터이기도 한 박물관은 1천200여점에 달하는 작품들이 있다.

박물관을 나와 가까운 햇살을 뒤로하고 간 곳은 피필라기념탑. 미니 케이블카라고 할 수 있는 후니쿨라를 타고 간다. 피필라는 멕시코독립투사다. 원주민 광부였던 그는 부왕군의 보급차단을 목적으로 알론디가 창고를 불태우고 장렬히 산화했다. 커다란 그의 기념조각상이 내려다 보고 있는 과나후아토는 무지개색깔로 칠해진 크레파스 그림이었고 그 그림 위를 축제의 소리가 형형색색으로 도시 전체를 수놓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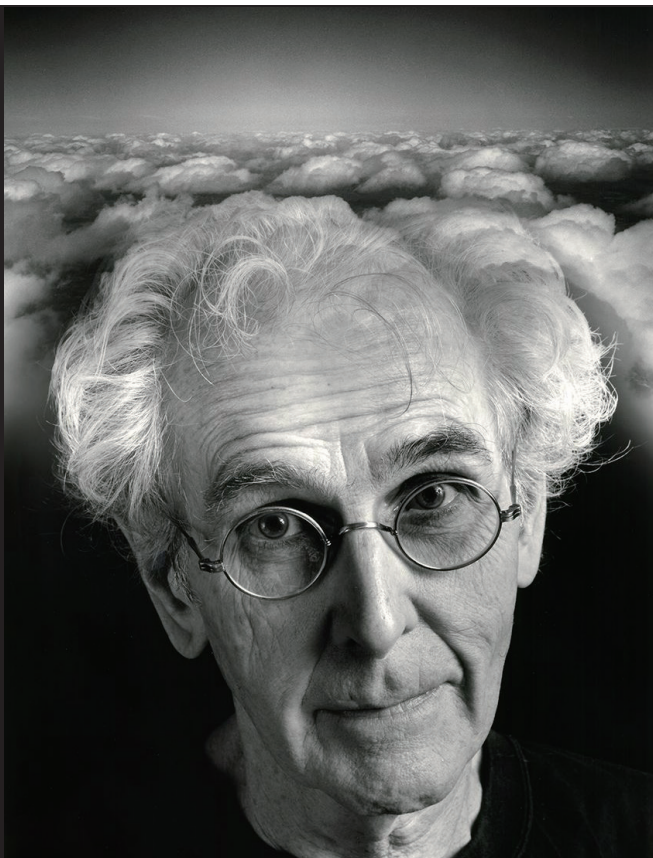


▲동상은 세르반테스의 소설 돈키호테의 모습.

초현실주의 합성사진의 거장

제리 율스만

네 번째 이야기



제리 율스만은 초현실주의적인 이미지 작업으로 1960년대부터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사진사에서도 그의 등장은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다뤄지고 있다.

제리 율스만의 작품들은 자연과 인간의 모습을 합성해 환상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1934년 미국 미시건주 디트로이트에서 태어난 그는 로체스터 공과대학과 인디애나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후, 1960년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사진학을 강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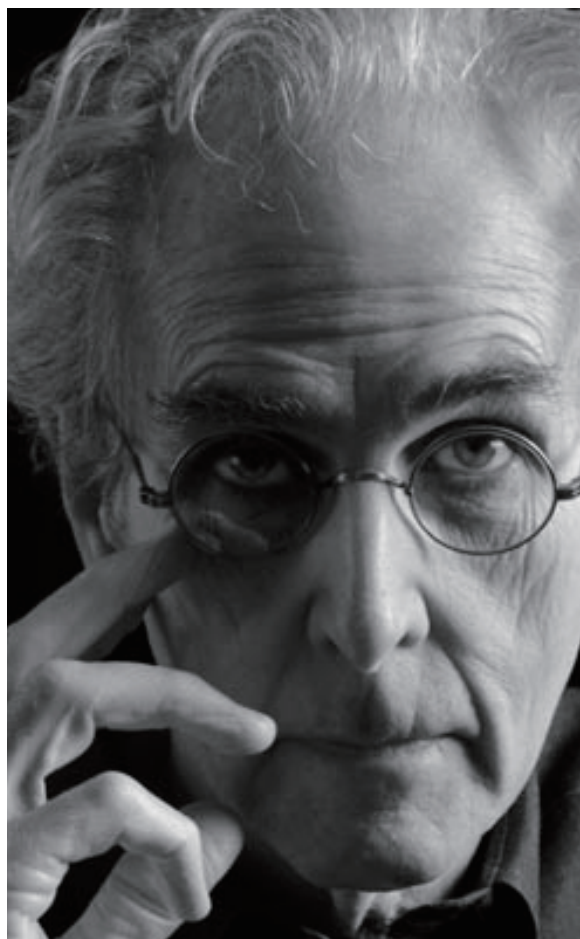
학생들을 가르치며 몽타주 사진기법을 발전시킨 그는 사진의 현실 재현성에 대한 한계로부터 벗어나 초현실적인 풍경을 담아내는 아날로그 합성사진을 선보였다. 그리고 1967년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열린 대규모 개인전을 통해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제리 율스만은 '실제의 사실'을 포착하기 보다는 '가공의 진실'을 창조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그것은 사진과 다른 시각예술 사이에 미학적인 차이가 전혀 없음을 주장하는 것이고, 사진이 갖는 사실적인 증거물로서의 기록이라는 속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의 사진은 꿈, 혹은 환영처럼 비현실적이고 비논리적이지만, 그 안에는 다양한 의미를 유추하게 하는 상상의 힘이 있다.

율스만이 다른 작가들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작품의 완성도에 있다.



그의 암실 테크닉은 세계 어느 작가도 따라올 수 없는 노하우를 자랑한다.

작업방식은 여러 대의 확대기와 수십 장의 필름을 손수 합성하는 순수한 아날로그적 포토몽타주 형식으로 이미지를 재구성해 거기에서 상상력의 위력과 신비감을 창출해낸다.

최첨단의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이러한 효과는 컴퓨터그래픽 프로그램으로 얼마든지 이미지 조작이 가능하지만, 그는 여전히 전통적인 암실의 수동기법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실험한다.

그는 플로리다 게인즈빌에 있는 자신의 연구소에서 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초현실주의 사진작가이자 그의 아내인 매기 테일러와 함께 국내에서 2인전을 갖기도 했다.

자연과 문명의 이분법을 통해 문명의 황폐화를 비판하고 자연으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그의 작품에는 나무와 기계의 대립, 자연스러움과 인위적인 것의 비교, 그리고 비둘기와 물, 흙의 상징이 많이 드러나 있다.



남미·유럽 여행하며 보고 느낀 인연을 담다

저자 부부의 만남·여행서 얻은 경험 진솔히 엮어 짧은 호흡의 글·현지 사진·인터뷰 등 현장감 전해

비아헤 쏬띠(Viaje conti).

스페인어로 '당신과 함께 여행을'이란 뜻이다.

책은 여행을 좋아하는 남녀가 2010년 남미 볼리비아 우유니소금사막에서의 운명같은 만남 이후 결혼을 하고, 부부가 돼 다시 찾은 그곳에서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여행은 남미 아르헨티나부터 유럽의 암스테르담까지 1년 동안 이어진다.

이야기 속 남편이자 저자인 대구일보 김승근 기자가 짧은 호흡으로 글을 쓰고, 현지의 모습을 사진에 담아 일반 여행 서적과는 달리 깊은 감동과 풍미를 전한다. 특히 현지에서 직접 만난 이들과의 인터뷰 내용이 눈길을 끈다.

저자는 2003년과 2009~2010년에 이어 2016년까지 세 번에 걸쳐 남미를 여행 한 남미전문가다. 그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변화하는 남미의 모습도 전해준다.

저자의 다섯 번째 유럽 장기여행답게 책 속에는 흔히 '아름답다'라고만 알려진 유럽의 이면도 담겨있다. 나라별 정치, 경제 상황과 함께 때론 답답하게, 때론 비판적인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본다.

책은 남미, 중미, 캐나다, 북유럽, 동유럽, 발칸반도, 영연방, 남유럽, 서유럽 등으로 나뉘어 총 9부로 구성됐다.

1부는 아르헨티나, 칠레, 볼리비아, 페루, 에콰도르, 콜롬비아의 이야기를 다룬다.

모레노빙하를 바라보며 컵라면을 먹고 침묵하는 것만으로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표시할 수밖에 없었던 아르헨티나 엘찰텐에서의 트레킹과 이과수폭포에서 악마의 목구멍으로 빨려 들어갈 듯한 짜릿한 경험 등을 소개한다.

2부는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멕시코 이곳저곳의 모습이, 3부에서는 캐나다에서의 여정이 담겼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에서의 이야기는 4부에서 펼쳐진다.

오슬로에서 뭉크의 절규를 보고 감흥에 젖은 이야기와 피오르의 중심에 아찔하게 자리잡은 바위산 펄핏록에서 다리를 후들거렸던 이야기 등 노르웨이에서의 생생한 여행담이 담겼다.

5부는 러시아와 라트비아, 폴란드, 헝가리, 불가리아, 조지아에서의 여정으로 펼쳐진다.

'죄와 벌'의 라스콜리니코프가 걸었던 코쿠시킨 다리를 걸어 숙소로 돌아간 사연, 유럽 속 아름다운 유럽인 라트리바 리가에서 스토리텔링의 정수를 느끼고 2차 대전의 상처가 가장 컸던 폴란드 바르샤바로 들어간 이야기 등이 소개된다.

이어 6부는 보스니아, 몬테네그로,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코소보, 마케도니아 등 이름만으로도 내전의

상처가 고스란히 전해지는 발칸의 화약고에서 느낀 점들이 기자의 날카로운 시각으로 담겼다.

7부에서는 영국과 아일랜드, 스코틀랜드에서의 이야기가 소개된다.

홈즈의 이야기가 살아있는 셜록홈즈 박물관, 노벨로씨어터에서의 뮤지컬 맘마미아 관람, 고집은 있지만 미워할 수 없는 아일랜드 사람들과의 만남, 007 스카이프의 배경인 글렌코 계곡에서의 석양, 골프의 발상지 세인트 앤드류스에서의 라운딩 등이 그림같이 펼쳐진다.

터키, 이탈리아, 그리스, 모로코, 모나코에서의 여정은 8부에서 소개된다.

한때 마피아의 본산 중 하나였던 시라쿠사의 숙소 주인이 길을 떠날 때 내민 작은 올리브유와 고체 우유는 감동 그 이상이었다고 저자는 말한다.

마지막 9부에서는 독일 베를린에서부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까지의 여정이 담겼다.

여전히 좋은 맛을 유지하는 호프브로이의 고향 뮌헨을 넘어 모차르트와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이 도시경계를 건인하는 잘츠부르크, 스파이의 천국 비엔나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제 목 : 비아헤 쏬띠(Viaje conti)

▶글·사진 : 김승근

▶펴낸 날 : 2018년 4월 20일

▶펴낸 곳 : (주)도서출판 보물섬

▶페이지 : 436쪽

▶가 격 : 17,800원

▶ISBN : 979-11-86587-71-3



향기로 건강해지는 일상의 아로마테라피 I

향기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향기”와 “냄새”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듯해도 많이 다르다. 향기롭다는 말은

좋은 냄새의 의미를 훨씬 넘어선 감성을 터치하는 것을 의미 한다.

요즘 주변에는 향기를 파는 곳이 많이 생겼다. 단순히 뿌리는 향수의 한계를 넘어서 향기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쑥 들어섰다. 백화점과 마트 일대에서도 향기를 가진 다양한 상품들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곳들 또한 적지 않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향기는 우리 몸에 유익한 것일까?

향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인위적으로 만든 인공향과 자연에서 온 천연향이다. 과학의 발달은 장미의 향기를 그대로 만들 수 있고 라일락의 심오한 향기도 그대로 만들 수 있다.

천연향기와 인공향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것은 계놈프로젝트로 만든 인조인간과 신의 창조물인 만물의 영장인 “사람” 과의 차이가 아닐까 싶다.

이런 단순한 차이에서 끝이 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인공향의 부정적인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너무 엄청난 결과를 만든다는 것이다.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지만 음식의 향기는 코로 들어간다. 즉 향기는 코를 통해 뇌로 유입되고 뇌로 들어간 향기는 변연계와 시상하부 그리고 뇌하수체로 유입되어 감정, 호르몬의 시스템을 교란시킨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게 된 우리는 더 많은 질병의 증상에 노출되어 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는 이미 맑은 하늘을 볼 수 없게 되었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하는 불편한 일상을 만들었다. 미세먼지는 호흡을 통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렇다면 “향기”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리는 이미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공향이 우리 몸에 미치는 나쁜 영향

한가정의 가족들 중에 이런 증상들이 보편적으로 있다.

알레르기 피부/비염/아토피/자외선 알레르기/생리통/우울증/공황장애/두통/불면증 등...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아주 당당하게 들어와 있는 인공향은 우리의 생활필수품에 그대로 녹여져 있다. 세제, 화장품, 치약, 벽지 등 우리와 모든 생활을 같이 하고 있다.

어느새 우리의 일부가 되어버린 향기를 가진 물질들은 오래전부터 인체 시스템을 인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현장에서 고객과 상담을 하다보면 인체에 쌓여있는 화학물질의 총량을 의미하는 “바디버든”의 높은 수치로 건강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음을 보게 된다.

미디어를 통해 “바디버든”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이미 체내에 누적되어 있는 독소를 해독해내는 방법을 알 수 없고, 또 생활 속에서 천연향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지도 모른다.

천연향과 아로마란?

천연향과 아로마는 같은 의미는 아니다. 천연향이란 자연에서 온 향기를 의미하며, 아로마란 천연향이면서도 식물의 향기를 에센셜로 추출해낸 향기가 나는 오일을 의미한다.

향기를 가진 식물을 허브라고 하고 허브는 치유효과가 있는 약용가치가 있는 식물을 뜻한다.





그렇다면, 아로마는 어떤 사람에게 필요할까?

누구나 아로마를 사용해도 좋지만
특히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 적극추천 드린다.

- ▶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수험생
- ▶ 과다한 스트레스로 신경이 곤두선 사람
- ▶ 성공적인 다이어트로 행복해지고 싶은 사람
- ▶ 건강하고 탄력이 넘치는 매력만점의 피부를 원하는 여성
- ▶ 팔, 다리,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
- ▶ 애정이 식은 부부 (성기능이 저하된 사람)
- ▶ 명상을 원하는 사람
- ▶ 손가락하나 까닥하기 싫어하는 무기력증
- ▶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
- ▶ 비염, 만성기관지등 호흡기
- ▶ 매달 그날이 괴로운 여성(생리통)
- ▶ 산후 빠른 자궁수축과 회복을 원하는 여성
- ▶ 천연의 향으로 상쾌한 사무실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은 사람
- ▶ 영원한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



아로마를 잘쓰는 방법은?

아로마는 많은 활용법이 있지만

첫째, 그중에서도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피부관리실에서의 사용법이다. 피부와 건강상태에 적합한 에센셜오일과 캐리어오일을 블렌딩하여 전신 또는 해당 부위를 마사지하여 체내에 흡수 시키는 방법으로 가장 안전하고 피부의 재생, 해독, 순환을 돕는 방법이 있다.

둘째, 욕조만 있다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홈아로마 스파테라피 활용법이다. 37℃정도의 온수에 피부와 건강상태에 적합한 에센셜오일을 6~8방울 떨어뜨리고 10~20분 정도 입욕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오랜 시간 몸을 담근다고 좋은 것이 아니기에 적당 시간을 꼭 준수해준다.

셋째, 어디서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가능한 간편한 아로마테라피 활용법이다.

흡입법의 기본 호흡법은 복식호흡으로 특히, 기관지계열에 효과가 좋은 이용방법이다.

-직접흡입 : 에센셜오일 원액을 손바닥에 떨어뜨려 코로 흡입하고 입으로 내뿜는 복식호흡법

-간접흡입 : 가습기, 디퓨저, 캔들, 롤온, 향수로 본인이 적응하기 편한 방법으로 사용가능한 흡입법

마지막으로

팁팁한 입안이 항상 고민이신 분, 특히나 염증으로 고생하시는 분에게 추천하는 가글링 이용법! 입안이나 목안에 염증이 있거나 잇몸이 붓고 냄새가 날 때 미지근한 정수물 100ml에 에센셜오일 1~2방울을 떨어뜨려 여러 번 가글링하는 방법이다.

이 외에도 좌욕법, 좌훈법 족욕법 등 활용법이 다양하다.

천연과 친환경적인 제품을 찾는 분들이 많아짐으로써 아로마테라피는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이며 앞으로도 더욱더 다양하게 활용되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연이 주는 선물 아로마는 우리 몸에 유익하게 작용하는 천연물질로서의 약리적인 효과와 함께 인체의 유해한 화학물질에 대항하는 방어기전을 갖는다는 점에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가는 자연치유법이라 할 수 있다.



김정희건강피부관리실 원장 김정희

#2. 전국민의 건강보험 실손보험 가입?

- 실손보험, 정말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 -

‘유병력자 실손보험’ 상품이 출시되었다. 과거에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과 같은 중증질환을 진단받은 병력이 있는 사람에게도 치료비의 70% 이상을 지급해주는 보험을 가입시켜준다는 것이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보험업계에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가입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일 지라도, 이미 실손보험의 문제점이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다.

현재 보험계에서는 갱신했던 보험으로 인하여 보험료의 인상폭이 예상 수준을 크게 웃도는 현상이 관찰된다. 더불어, MRI와 CT 촬영과 같은 값비싼 진료행위들이 검사 단계에서 불필요한 과잉진료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 때문에 보험수가는 위험수위에 도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중심에는 환자, 의료계 종사자, 유병력자들이 있다. 요즘 병원에 가면 진료를 하기도 전에 “혹시 실손보험 가입해놓으셨어요?”라고 환자에게 묻는 일이 허다하다. 이 말의 속뜻은, 실손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으면 치료하지 않아도 될 것을 ‘실손보험을 가입하였으므로 많은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되니’, 치료를 하고 가라는 것이다.

보험회사와 감독당국이 보험료 인상에 대비하여 안정장치를 준비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보험료가 매년 25% 이상 인상은

불가하다는 상한선을 정하여 보험 상품 판매를 하였지만, 최근 3년의 통계자료를 보면 더 이상의 인상이 불가할 만큼 상한선에 근접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병력자 실손보험 출시’라는 사안은 보험가입자들의 불만이 제기 될 위험이 있고, 동시에 사회적인 쟁점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염려가 되는 부분이다.

또한 정부에서는 공무원이나 공공기업에 근무하는 단체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퇴직 후에도 지속적으로 실손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보도를 하였다. 하지만 이는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누적되어있는 곳에 또 다른 문제요소를 가져온 셈이다, 이는 불이 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라서 향후 보험시장에 큰 혼란으로 다가올 것이다.

전 세계의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제도는 중증환자가 생기면 남은 가족들이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는 어려움을 크게 호전시켜주었다. 어쩌면 그 핵심에는 실손보험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전 국민 의료보험’이라는 말로 대신 불리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어떤 제도들이 준비되어야할까?



첫째, 국민, 보험회사,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와 심도 있는 합의점을 도출해 내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이 충분히 보장되는 상황이었다면, 실손보험이라는 상품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주의할 점은 결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미리 대중에게 알려 특정 집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여론을 조성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마음으로 거시적인 안목으로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둘째, 보다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적용해야 하며, 과잉진료환자에 대한 패널티가 존재하여야 한다. 보험의 근간은 불특정 다수가 살아가면서 예상하지 못한 불의의 사고나 질병을 보호받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인데, 이미 질병이나 사고를 통하여 치료를 하고 있는 환자들이 있다.

이런 환자들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제도도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과잉진료를 하는 보험가입자에게는 책임을 부가시키는 제도를 혼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 가입자 중 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많이 수령한 사람은, 다음 해에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점은 그 합리적인 적정선과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구분하는 것인가, 라는 논제가 될 것이다.

셋째, 국가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국가가 주체가 되어 실손 보험의 흡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지금껏 수많은 국민들이 국가에서 보호해줘야 할 생존의 문제를 보호받고자 개별적인 비용을 지출하였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암과 싸우다가 1억 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해야하면서 꺼져가는 생명을 살려보고자 애쓰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였다. 그렇다고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이 중증으로 투병을 하는데 금전적인 막대한 손실과 치료의 기회마저 놓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최대한 많은 수혜자가 생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서, 이 제도가 단순히 일차적인 병원비를 해결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잃은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경제적인 고통으로 희망을 잃어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푸르덴셜생명 **김강수**

PRO BONO (For the Public Good)
PRO BONO는 "공익추구가 바로 최상의 수익모델"
이라는 대성그룹의 100년 비전입니다.

 **대성그룹**  **대성에너지(주)**

매월 4일은 가스안전 총점검의 날



새로운 에너지로의 패러다임 변화 대성그룹이 이끌어 갑니다.

햇빛과 바람으로 에너지를 만들고 땅속과 하늘에서 물을 만드는 기술
대성그룹이 새로운 에너지를 찾고 활용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물, 식량 문제 해결을 통해
대성그룹이 새로운 에너지의 미래를 열어 갑니다.



〈Angel Club〉은

한국 정기간행물 윤리위원회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Angel Club〉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gel Club〉에 실린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Angel Club〉은 대구FC의 후원단체인
엔젤클럽을 중심으로 대구시민들에게
대구FC 및 엔젤클럽 관련 소식을 전하고
교양을 전달 공유하려는 목적으로
정성과 사랑을 담아 드리는 매거진입니다.

〈Angel Club〉을 만드는 사람들

- ▶ 발행기관 : 대구FC 엔젤클럽(회장 이호경)
- ▶ 발행 · 편집인 : 최종태
- ▶ 편집장 : 김승근
- ▶ 편집위원 : 강정영, 김용하, 김홍범, 신성영, 최지수
- ▶ 포토그래퍼 : 김진홍
- ▶ 편집디자이너 : 김정주
- ▶ 인쇄 : ㈜케이프린텍(대표 한금재)

접수처 / 대구FC 엔젤클럽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팔현길 212
(만촌동, 호텔 인터볼고 대구) (우.42064)
전화 : 053. 602. 7307 팩스 : 053. 602. 7306
메일 : dgangel1004@naver.com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번호 _____
□ □ □ □ □

우편요금
수취인 부담
발송유효기간
2017. 08. 21 ~ 2018. 08. 20
대구 수성우체국
승인 제 40195호

받는 사람

대구광역시 수성구 팔현길 212
(만촌동, 호텔 인터볼고 대구)
대구FC 엔젤클럽 사무국 담당자앞
TEL 053.602.7307 FAX 053.602.7306

4 2 0 6 4



*가입 번호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자 정보			가입번호	2018 -
성명 (회사명)	생년 월일	연락처	상의 사이즈	
소속	E-mail			
주소	추천인			

후원 금액	(후원하고자 하는 금액에 표시해주세요. 대구FC 홈경기입장권 구입비)
□ 100만원 이상 - ()원	

결제 방법
□ 자동 이체 [자동이체 납부신청서 p.62 참조]
□ 계좌 이체 [※ 계좌번호 : 대구은행 505-10-166391-1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 / 카드 결제

엔젤클럽 추천 약정	
본인은 엔젤클럽 가입과 함께 엔젤클럽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사람을 엔젤클럽 회원으로 추천하는 “후원 릴레이”를 실천할 것을 약속합니다.	
추천시기	□ 바로 추천(아래의 추천 대상자 인적사항을 바로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1주일 내 추천(추천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사무국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추천 대상자	성 명) _____ 연락처) _____ 성 명) _____ 연락처) _____

개인정보 활용 동의
작성해주신 정보는 대구FC 엔젤클럽 가입 및 혜택 제공 외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습니다. 대구FC 엔젤클럽 가입을 위해 신청자 및 추천 대상자 정보를 수집, 활용,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예 □ 아니오

안내 사항
우편 발송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팔현길 212 (만촌동, 호텔 인터볼고 대구) (42064) 팩스 송부 : 053)602-7306 ※문의 사항은 대구FC 엔젤클럽 사무국 ☎ 053)602-7307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대구FC 엔젤클럽에 가입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인)



2018 Vol.4

대구시민프로축구단 후원금 안내

■ 가입방법

- ▶ 가입신청서 작성 후 제출
 - 가입신청서 엔젤클럽 사무국 보관
- ▶ 대구FC 엔젤클럽 사무국으로 문의
 - Tel : (053) 602-7307
 - Fax : (053) 602-7306
 - Phone : 010-3861-4505 (대구FC 엔젤클럽 사무총장 : 김종두)

■ 후원금액

- ▶ 대구FC엔젤후원금은 엔젤회원의 의무로써, 대구FC의 재정안정화와 관중증대에 필요한 '대구FC홈경기입장권' 구입비입니다.
 - ▶ 100만 원 이상 희망하시는 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 ▶ 후원금 처리방법
 - 후원금은 입장권 판매대금으로 지급되고 실제로 입장권이 지급되므로 사업장의 직원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
- ※ 참고 : 대구FC는 시민들이 주주로 참여하여 창단한 시민구단으로, 주식회사 이다보니 상법상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 결제방법

- ▶ 자동 이체 [자동이체 납부신청서 p.62 참조]
 - ▶ 계좌번호 : 대구은행 505-10-166391-1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
- *자동이체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동이체가 헛드신 경우 일시납
(계좌번호 : 대구은행 505-10-166391-1) 카드결제가 가능합니다

■ 가입 혜택 안내

- ▶ 기념품 : 엔젤클럽 자켓, 머플러, 사인볼(1회)
- ▶ 엔젤회원으로 각종 활동 참여

대구시민프로축구단

대구FC 엔젤클럽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기재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거나
대구FC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입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Angel Club〉은

여러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고기고나 사업제휴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접수처 / 대구FC 엔젤클럽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팔현길 212
(만촌동, 호텔 인터볼고 대구) (우. 42064)
전화 : 053. 602. 7307 팩스 : 053. 602. 7306
메일 : dgangel1004@naver.com



오래 기다렸습니다.
새로운 안심.

연탄가루 날리던 안심연료단지가
깨끗하고 건강한 안심뉴타운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모두가 바라던 도시
안심뉴타운

대구도시공사
Daegu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Angel Club〉은

한국 정기간행물 윤리위원회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Angel Club〉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gel Club〉에 실린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Angel Club〉은 대구FC의 후원단체인 엔젤클럽을 중심으로 대구시민들에게 대구FC 및 엔젤클럽 관련 소식을 전하고 교양을 전달 공유하려는 목적으로 정성과 사랑을 담아 드리는 매거진입니다.

〈Angel Club〉을 만드는 사람들

- ▶ 발행기관 : 대구FC 엔젤클럽(회장 이호경)
- ▶ 발행 · 편집인 : 최종태
- ▶ 편집장 : 김승근
- ▶ 편집위원 : 강정영, 김용하, 김홍범, 신성영, 최지수
- ▶ 포토그래퍼 : 김진홍
- ▶ 편집디자이너 : 김정주
- ▶ 인쇄 : (주)케이프린텍(대표 한금재)

접수처 / 대구FC 엔젤클럽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팔현길 212
(만촌동, 호텔 인터불고 대구) (우.42064)
전화 : 053. 602. 7307 팩스 : 053. 602. 7306
메일 : dgangel1004@naver.com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받는 사람

대구광역시 수성구 팔현길 212
(만촌동, 호텔 인터불고 대구)
대구FC 엔젤클럽 사무국 담당자앞
TEL 053.602.7307 FAX 053.602.7306

4 2 0 6 4



대구FC 엔젤클럽 가입신청서 Angel Club

*가입 번호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자 정보			가입번호	2018 -
성명 (회사명)	생년 월일	연락처	상의 사이즈	
소속	E-mail			
주소	추천인			

후원 금액	(후원하고자 하는 금액에 표시해주세요. 대구FC 홈경기입장권 구입비)
□ 100만원 이상 - ()원	

결제 방법
□ 자동 이체 [자동이체 납부신청서 p.62 참조]
□ 계좌 이체 [※ 계좌번호 : 대구은행 505-10-166391-1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 / 카드 결제

엔젤클럽 추천 약정	
본인은 엔젤클럽 가입과 함께 엔젤클럽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사람을 엔젤클럽 회원으로 추천하는 "후원 릴레이"를 실천할 것을 약속합니다.	
추천시기	□ 바로 추천(아래의 추천 대상자 인적사항을 바로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1주일 내 추천(추천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사무국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추천 대상자	성명) _____ 연락처) _____ 성명) _____ 연락처) _____

개인정보 활용 동의
작성해주신 정보는 대구FC 엔젤클럽 가입 및 혜택 제공 외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습니다. 대구FC 엔젤클럽 가입을 위해 신청자 및 추천 대상자 정보를 수집, 활용,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예 □ 아니오

안내 사항
우편 발송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팔현길 212 (만촌동, 호텔 인터불고 대구) (42064) 팩스 송부 : 053)602-7306 ※문의 사항은 대구FC 엔젤클럽 사무국 ☎ 053)602-7307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대구FC 엔젤클럽에 가입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인)



21 GK 조현우

2018 Vol.4

대구시민프로축구단 후원금 안내

■ 가입방법

- ▶ 가입신청서 작성 후 제출
 - 가입신청서 엔젤클럽 사무국 보관
- ▶ 대구FC 엔젤클럽 사무국으로 문의
 - Tel : (053) 602-7307
 - Fax : (053) 602-7306
 - Phone : 010-3861-4505 (대구FC 엔젤클럽 사무총장 : 김종두)

■ 후원금액

- ▶ 대구FC엔젤후원금은 엔젤회원의 의무로써, 대구FC의 재정안정화와 관중증대에 필요한 '대구FC홈경기입장권'구입비입니다.
- ▶ 100만 원 이상 희망하시는 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 ▶ 후원금 처리방법
 - 후원금은 입장권 판매대금으로 지급되고 실제로 입장권이 지급되므로 사업장의 직원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
- ※ 참고 : 대구FC는 시민들이 주주로 참여하여 창단한 시민구단으로, 주식회사 이다보니 상법상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 결제방법

- ▶ 자동 이체 [자동이체 납부신청서 p.62 참조]
- ▶ 계좌번호: 대구은행 505-10-166391-1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
- *자동이체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동이체가 힘든 경우 일시납
(계좌번호 :대구은행 505-10-166391-1) 카드결제가 가능합니다

■ 가입 혜택 안내

- ▶ 기념품 : 엔젤클럽 자켓, 머플러, 사인볼(1회)
- ▶ 엔젤회원으로서 각종 활동 참여

대구시민프로축구단

대구FC 엔젤클럽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기재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거나
대구FC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입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Angel Club〉은

여러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고기고나 사업제휴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접수처 / 대구FC 엔젤클럽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팔현길 212
(만촌동, 호텔 인터볼고 대구) (우. 42064)
전화 : 053. 602. 7307 팩스 : 053. 602. 7306
메일 : dgangel1004@naver.com